

第216回国會
(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12月12日(火)

場 所 第2會議場

議事日程

1. 2001년도예산안(계속)

부별심사 :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철도청·금융감독위원회·교육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
국정홍보처·경찰청·문화재청·방송위원회

審査된案件

1. 2001년도예산안(계속)

부별심사 :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철도청·금융감독위원회 1

1. 2001년도예산안(계속)

부별심사 : 교육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국정홍보처·경찰청·문화재청·
방송위원회 34

(00시00분 개의)

○委員長代理 丁世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부별심사 :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철도청·금융감독위원회

○委員長代理 丁世均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신항만이 갖는 경제적 가능성이나 전망 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등의 말씀은 생략드리고 96년도에 만들었던 항만개발계획에 있어서 민자부분이 아직 대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꼭 포항만 그런 것

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번에 민자사업협상이 깨졌습니다마는 지금 이 민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사업자와 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항·영일만이 대북방교역에 대비해서 동남권의 산업지원 거점항만으로 개발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말씀드립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榮卓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했는데 민자가 유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재정자금으로 돌리는 방안은 없으신지 또 소위 IMF 이후에 민자유치가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산자부장관께도 포항신항 주변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치하라고 주문한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고 또 대구·경북의 대북진진기지의 역할로서 포항신항만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벌써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민자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자유치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재

정자금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産部長官 盧武鉉** 지금 확답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尹榮卓委員**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바라는 것이지요.

○**해양수産部長官 盧武鉉**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함부로 즉흥적으로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尹榮卓委員** 즉흥적으로 대답할 문제는 아니고, 여태까지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무슨 말씀이요?

○**해양수産部長官 盧武鉉** 좀 길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尹榮卓委員**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産部長官 盧武鉉**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항만개발종합계획을 세웠는데 민자부분이 대단히 부진해서 지금까지 20% 정도밖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물동량 예측도 달라지고 항만별 중요성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년말 그리고 내년초까지 해서 항만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항만의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동량의 예측과 이후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경제여건까지 전부 고려해서 우선순위도 새로 짜야 하고 투자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근본적으로 현실적 여건을 전부 감안하고 또 관심을 갖는 업체들을 조사해서 민자와 정부투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대구의 소외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대답을 잘하고 싶습니다마는 그 점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떻든 앞으로 포항신항만의 건설에 큰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자로 하는 것이 꼭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때는 정부재정도 투입할 것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재원에는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선순위의 측면에 있어서 포항은 대북방교역에 대비한 거점항만으로서 자리매김 되어 있는데 대북방교역이라는 부분이 지금 남북관계의 진전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든 민자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정부재정으로라도 항만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榮卓委員** 98년4월에 金大中 대통령께서 대구-포항간 산업도로 기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오셔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영일만 쪽을 대구·경북으로 이어지는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는 관건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수産部長官 盧武鉉**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金容鈞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동량의 예측 시에 실적치를 감안하지 않고 특정지역 항만을 편중개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에 38개 항만의 개발사업비는 7,619억원으로서 지역별 투자현황을 보면 영남권이 51.6%, 호남권이 33.9%, 충남 및 경기가 각각 4.1%와 10.4% 정도입니다.

현재로서는 타 지역보다 항만조건이 유리한 부산항과 중국경제 활성화에 연계한 서해안 개발의 영향으로 전남권의 투자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항만건설 투자에 관련해서는 항만의 특성과 물동량 수요에 따라 추진하고 또한 항만별로도 착수단계, 본격추진단계, 마무리단계에 따라 투자규모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 항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가운데서도 각 권역별 거점항만에 대한 항만개발투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별로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權琪述 위원님께서 화물량이 적고 하역시설이 남아도는 항만, 특히 목포 신외항과 광양항 등에 대한 투자를 삭감해서 화물처리실적이 많고 하역처리능력이 부족한 인천, 울산신항, 부산신항 등에 배려해야 된다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목포항에 투자액이 다소 많은 것은 인근에 도서지방이 많고 어선이 많은 관계로 연안여객 수송시설 및 어선접안시설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다소 많이 편성되었으며 신항은 민자사업협약이 체결되는 등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재정투자 적정소요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광양항은 부산항과 함께 컨테이너중심 항만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급증 추세와 함께 특히 중국의 환적화물이 대폭적으로 늘어남을 감안할 때 광양항의 개발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천항은 기존 항만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투자비가 적게 편성되었고 신항만은 민자사업의 지연으로 재정사업비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자사업이 곧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민자사업 진행이 확정되면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항은 기존 항만의 개발비 대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투자비가 다소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신항만의 정부투자사업은 99년12월에 착공되어 초기단계에 있어서 대폭적인 예산증액을 하지 못했지만 금년 말까지 민자유치계획을 고시해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아울러 정부재정투자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權琪述委員** 장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전체적으로 항만개발 SOC 투자가 적습니다.

전체를 보니까 9,965억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권역별 항만건설에 3,379억, 신항만 건설에 3,73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항만 SOC 투자 자체가 근본적으로 너무 미흡합니다.

그리고 항만부족시설이 지금 5,663만t이나 되는데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국가로 발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러한 부족시설부터 먼저 확충해서 해소시켜야 될 것인데 이 부족시설이 많은 지역의 항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합니다.

지금 목포항은 인천항 규모의 18분의 1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인천항보다도 70억원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모로 보아 부산항의 18분의 1인데도 부산항보다도 20억원이 많이 책정되었고 특히 울산항의 26분의 1 규모로서 모든 화물 실적이나 화물시설능력이 목포항은 111만t이 남아 있는데도 울산항보다도 93억이나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것은 장관님께서 예산배정하실 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천항도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투자해 온 것이 마무리 단계 같지 않습니다.

96년도 346억원, 그다음 해에 416억원 그리고 98년도에 255억원으로 푹 떨어졌다가 99년도에 265

억원으로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올해는 330억원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인천항은 내년도 예산이 254억원으로 올해보다도 오히려 30% 줄어들었습니다.

목포항은 보면 96년도에 218억원 투자했다가 97년도에 216억원으로 떨어졌다가 98년도에 152억원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즉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예산을 심의할 때는 152억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226억원으로 경증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273억원이 되었다가 내년도에는 324억원으로 올해보다 19%나 크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서 다른 항구에 비해서 너무 증가폭이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부분도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조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질의에서도 역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권 위원님께서 울산항의 사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목포나 인천까지 대비를 함으로써 해양수산부가 항만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대단히 불공정한 편파적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가지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항의 경우 전 정권에서 편성했던 98년 예산은 2,009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부산항의 99년도 예산은 2,843억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다가 2000년에는 다시 2,091억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의 경우에는 정권의 전후에 관계없다가 99년도에 와서 560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 울산항은 99년도에 290억원으로 예산이 아주 낮아졌다가 2000년도에 와서는 575억원으로 경증 뛰기도 했습니다.

지난날의 투자액수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투자는 영남쪽으로 총액에 있어서 대단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하나씩 따로 떼어서 비교를 한다든지 또는 절대액이 아니라 전년도 증가율을

가지고 대비했을 때 그것은 진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고 아주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의 투자 흐름을 아주 왜곡되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5년간의 예산을 전부 통틀어서 보아야 하고 또 실제로 모든 항만의 여객터미널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개발하고 화물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개발해야 하는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동쪽으로 갔다가 내년에는 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항만수송이 미국과 일본경제를 지향하고 있던 시대에는 경부축이 물동량의 기본축이 되고 따라서 도로도 그쪽에 많이 건설되고 항만도 그쪽에 많이 건설되다가 이제 중국과의 교역량이 늘어나니까 서해안개발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盧泰愚 대통령 시절부터 金泳三 대통령 시절까지 서해안쪽에 여러 가지 투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것이 느리다고 호남의 많은 분들은 답답해하고 많은 불만을 가졌습니다마는 대중국 교역관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목포의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객부두에 대한 것이고 신외항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래 전망을 보고 거기에 민자가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서 예산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은 인천항 다음에 체선율이 아주 높은 문제가 있는 항입니다마는 그것은 96년도에 수립했던 항만투자계획이 그 뒤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던 데서부터 생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계약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반드시 민자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울산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서 울산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어서 제가 있는 동안에 신경을 좀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權琪述委員** 감사합니다.

항만시설 부족량이 큰 지역과 교역량이 큰 지역 또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꼭 울산뿐만 아니라 중점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잘 좀 배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해수부장관 답변 다 하셨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답변을 마쳤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李瑾榮입니다.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서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예견되는 시기에 국민의 돈으로 현대건설 계동사옥 매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융감독원 청사가 그동안 협소해서 다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단독청사를 마련해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계동사옥에 대해서는 매각을 위임받은 외환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고 저희한테 매입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까지 그 매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鄭亨根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시고 그 질의의 대부분이 그릇된 보도나 오해에서 연유된 것이 많아서 저도 해명해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부득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黃祐呂委員** 아까 답변하신 중에 너무 시간에 쫓겨서 못했는데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5분만 확인했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3분으로 디스카운트하시지요.

黃祐呂 위원님께서 3분만 금융감독위원장께 질의하시겠습니다.

○**黃祐呂委員**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금고에 대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17개 금고가 정지됐는데, 그 중 인천은 12개 중 5개가 정지되어 거의 반에 가까운 금고가 정지됐기 때문에 최근 금고문제의 가장 진원지가 인천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화방안이 무엇인지, 이번에 1조 가량 자금 푸는 것 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지역여론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경기은행 퇴출 후에 인천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를 꺾 담당해 왔던 금융의 실핏줄 같은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금고가 쓰러지면서 그 중 부실해졌거나 퇴출된 것을 전부 흡수통합해서 건설한 지역금융기

관을 설립할 경우에 금융감독위나 재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은 12개 금고중 5개 금고가 영업정지를 당해서 7개 금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동방금고와 관련된 금고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인천의 상호신용금고가 문제됐고 또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다른 금융영역보다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화되는 정도가 심했고 또 상호신용금고는 소수 주주에 의해서 사금고화될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BIS비율이 낮거나 부실경영혐의가 있는 상호신용금고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불행히도 동방금고나 열린금고와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금융사고 발생과 함께 부분보장제도로 인해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인출이 10월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마는 이번 부실금융기관 조사를 13일에 최종 끝내게 됩니다.

○**黃祐呂委員** 14일입니까, 13일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하루 더 당겨서 13일에 끝내려고 합니다.

끝나는 것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구조조정은 모두 끝내고 앞으로 대형화하든가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꿔준다는가 하는 신뢰성 제고와 유동성 지원 등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黃祐呂委員** 인천지역도 그런 운동이라고 할까 그런 기운이 자생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잘 지도해 주시고, 지원할 데가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엄하게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는 것이 굉장하…… 오늘도 도하 신문에 인천이 대구와 더불어 BIS기준으로 전국최악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이러한 여론이나 국가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인천 상호신용금고업체가 가장 피해가 크므로 저희도 그것을 유념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黃祐呂委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1조 중에 삼사천억은 자산관리공사가 하는데 이것은 공적자금으로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그렇지 않고 상호신용금고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는 것입니다.

○**黃祐呂委員** 그러면 그 재원은 금고 자체 저축분이 있습니까?

(丁世均 간사, 張在植 위원장과 사회교대)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금고에서 대출해 줬으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자산공사에서 우선 매입해서 유동성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黃祐呂委員** 그 재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축적한 자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그 자금입니다.

○**黃祐呂委員** 나머지 한 5,000억 정도는 금고연합회의 추가한도를 늘려주는 것인데 이것은 공적자금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그것은 은행의 크레딧 라인을 이용해서 지금 3,800억 되는 것을 5,000억으로 늘려서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산하 신용금고에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黃祐呂委員** 한도액을 늘려주시려고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黃祐呂委員** 그리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지금 정치권 때문에 보장해 주는 것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예.

○**黃祐呂委員** 그것을 금고에도 해주시는 것이지요?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그렇습니다.

○**黃祐呂委員**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액을 다 보장하다가 이것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데 5,000만원 정도면 금고로서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알려진 것도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 철저하게 홍보해서 서민금융과 중소기업금융의 통로를 안정화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黃 위원님,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다음은 건설교통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건설교통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尹榮卓 위원님께서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에 대한 예산투입이 부진해서 공기가 연장된 사유와 조기완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고속도로 예산은 중앙·서해안 등 주요 고속도로의 완공을 목표로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등 신규사업은 한정된 재정형편상 투자가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요 고속도로사업이 완

공되는 2001년 이후 대구-포항을 비롯한 고속도로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金一濶 위원님께서서는 최근 경부 고속철도 대구 이남 구간 용지비예산을 추가로 계상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착공 전에 설계와 용지보상을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며, 작년 말 까지 대구 이남 구간의 설계를 완료하였습디다마는 올해 용지매수실적이 부진하여 용지비 358억 중 200억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상 이월액을 전액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용지매입예산 추가반영문제를 검토·결정하여 주신다면 사업착수 전에 용지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께서서는 내년 3월 개항을 앞두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빗이 많아 경영권이 해외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초 재무구조가 다소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인천공항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비핵심업무의 아웃소싱, 입점은행을 통한 자본유치, 단기 고금리차입의 장기저리구조로의 개선,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인천공항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추가로 출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와 같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지분의 일정비율을 해외에 매각하여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인천공항의 재무구조를 더욱더 개선시킴은 물론 선진공항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인천공항을 국제적 수준의 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자본의 유치과정에서 경영권의 해외매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서는 경부고속철도 서울-부산 간 완공시기를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1단계로 서울-대구 간에 신선을 건설하고, 대전·대구도심 및 대구 이남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선을 전철화하여 2004년4월 우선 개통

할 예정이며, 11월 말 현재 우선개통 기준으로 58.8%의 공정률을……

○**金容鈞委員** 중간 이야기는 빼고 부산까지 언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서울-부산 간 전 구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설계 및 용지수매, 문화재발굴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金容鈞委員** 현정부 내에서는 안 하겠다는 내용이구먼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현재도 용지매수를 하고 있고, 착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權琪述 위원님께서서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예방을 위해서 수계치수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치수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99년 임진강 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하천개수는 2007년까지 완료하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수해방지를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치수예산이 더욱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서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련예산을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 재정형편상 내년도 예산안에는 67억원밖에 편성되지 못한 실정입니다마는 폐공관리 등 지하수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관련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權琪述委員** 차관! 지금 우리나라 수계치수나 수해상습지개선, 일반하천개수사업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보다는 피해복구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난 뒤에 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수십 배를 수해복구비로 투입해도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복구보다 예방에 주력해야 합니다. 지금 2007년까지 하천개수 마치고 수해상습지는 2004년까지 마치겠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 8,321억원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나갑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수계치수사업에도 1,500억 정도가 있어야 되고 수해상습지 개선에도 1,500억 정도, 일반하천 개수하는 데도 3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3,300억 추가반영을 제안한 것입니다. 차관! 본 위원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權琪述委員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사후복구형 재해대책비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수해복구비는 홍수가 났거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것이 자그마치 1조5,000억 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도 많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치수사업등 전체는 8,000억 밖에 안 되고, 사고 난 뒤에 재해복구하는 데는 1조5,000억 예산을 예비비로 갖다 없어났어요. 이 1조5,000억 중에서 5,000억 정도는 재해복구비로 남겨놓고 1조원 정도를 삭감해 가지고 치수사업예산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 예산관계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질의한 것입니다.

적절한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반예비비 1조원 중에서 5,000억 정도를 삭감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본 위원이 질의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정이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개 입니다. 그런데 물을 37억t 씩이나 이용하고 있는데 지하수 이용률이 전체 물 중에서 11%입니다. 그리고 외국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독일은 64%, 프랑스는 60%, 미국 경우는 조금 낮아서 22%입니다. 마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점차 증가해야 될텐데 그렇게 하려면 지하수종합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안에 보면 6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수문지질도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지하수 폐공이 지금 삼사십만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폐공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30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權琪述委員 됐습니다. 다음 것을 답변해 주세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다음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호남선 전철화 사업비 중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전액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공사비 삭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남선 전철화사업은 주요 간선철도망 전철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최소한의 투자비로 호남선의 철도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시기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기존선을 단순전철화 하는 사업으로서 경부선 동대구-부산 간 전철화사업 기본설계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2001년 예산안에 실시설계 및 공사비를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權琪述委員 차관, 턴키로 발주합니까?

○鐵道廳長 鄭鍾煥 아닙니다.

○權琪述委員 철도청장이 잘 아실테니까 청장이 답변하세요.

이것이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鐵道廳長 鄭鍾煥 실시설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하면……

○權琪述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턴키발주를 한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갑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착공까지 전부를 일시에 발주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실시설계를 해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재도 구입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도 안 해 놓고 사업비를 여기 예산에 넣어놨다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업도 해야 될 자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철도청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만 유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 추진해야 됩니다. 호남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철저히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도 없이 엉터리로 경부고속철도 시작하듯이 해 가지고 수십 번 설계변경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설계를 하고 난 뒤 2002년도에 사업착수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돈을 655억씩이나 가져가서, 설계하는데 655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건교부차관은 이 부분을 잘 검토하세요. 물론 우리 국회 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결론이 나겠습니까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게 편성하세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 21개를 시작하도록 했는데, 물론 27개 중에서 6개는 예산 자체도 반영 안 시켰습니다. 조치원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 자체도 반영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시킨 21개 신규사업 총액이 9조8,743억인데 호남선사업비 5조9,311억원은 지나칩니다. 특히 철도청이 2001년 신규사업을 다섯 건 하는데 세 건이 호남지역사업이다, 말이 됩니까? 이래가지고는 정말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총액이 2조7,271억인데 호남선사업비가 87.4%, 2조3,822억원, 이러면 호남지역 편중예산이다 특혜다 이래가지고 결국 누가 어디로 갑니까? 대통령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동서화합에도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편성하실 때도 좀 폭넓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鄭哲基委員 철도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鐵道廳長 鄭鍾煥 權 위원님, 지금 호남선 전철화를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성을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전철화 사업이라는 것이 교량이나 터널이나 노반같이 설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존 선로노반에다가 가선을 세워서 전기선만 연결하면 전철화가 되는 비교적 단순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대구에서 부산까지 설계를 완료한 경험도 있고 비교적 단순한 설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9개월 내에 이 설계를 완벽하게 끝마칠 수 있습니다.

○權琪述委員 청장, 바로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1조3,250억이 들어갑니다. 자그마치 그런……

○鐵道廳長 鄭鍾煥 아닙니다. 8,755억입니다.

○丁世均委員 경부고속철도는 돈 안 들어가고 그냥 놓습니까?

○權琪述委員 왜 그냥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계를 해야지 그냥 가볍게 설계를 하면 안 됩니다.

○鐵道廳長 鄭鍾煥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의미는 충분히……

○鄭哲基委員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權琪述委員 위원장, 제가 발언 중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의사진행발언하세요.

○鄭哲基委員 존경하는 權琪述 위원님 평소에 제가 權 위원님을 상당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았는데 예산심의회에서 보니까 權 위원님 말씀이 아무 근거도 없이 사사건건 영·호남만 단순비교해 가지고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역감정 조장하지 마세요.

權 위원, 제가 평소에 존경했는데 예산결산심의회에서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존경 못 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자꾸 평면적인 비교를 하십니까?

○權琪述委員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근거를 대드릴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鄭哲基委員 30년 동안 경상도에만 퍼부은 것은 왜 말 안해요?

○權琪述委員 제가 근거를 대드릴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한 것입니다. 2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호남권이 11건, 영남권이 3건, 수도권이 1건, 충청권이 3건, 강원권이 1건, 제주권이 2건입니다. 그리고 액수로 해서 전체 9조8,743억인데 호남권에 5조9,311억입니다. 60%입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철도청의 경우는 호남선 대전-목포간 256km 복선전철화 사업 1조3,250억원, 순천-여수 철도개량사업 40km 7,552억원, 동순천-광양 10.9km 복선화사업 3,020억원, 중앙선 제천-도담 17km 복선전철화사업 2,975억원, 영동선 동해-강릉 45km 전철화사업 474억원, 계 2조7,271억원이 신규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3건이 호남쪽이고 또 호남지역이 87.4%인 2조3,822억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근거가 없습니까? 근거가 이렇게 있는데 근거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鄭哲基委員 경부선은 몇 십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權琪述委員 몇 십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 그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역편중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鐵道廳長 鄭鍾煥 위원님, 저도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權琪述委員 됐습니다. 시정하세요.

차관, 앞으로 시정시키세요.

○鄭哲基委員 답변도 안 들으려면 뺏하려고 해요?

○權琪述委員 좀 조용히 가만히 계세요.

○鄭哲基委員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權琪述委員 제가 근거를 대는데 근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박해 보세요.

○鄭哲基委員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權琪述委員 내가 차관 답변을 듣지 누구 답변을 듣는단 말이에요?

차관, 답변해 보세요.

차관, 무슨 답변 뭐할 게 있어요? 이 근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거를 대는데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지금 權琪述 위원님께서 신규철도 건설사업이 호남지역에 편중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2001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모두 13개 사업을 요구하였으나 5개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를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에 동해-강릉간 전철화 사업, 충청권에 제천-도담간 복선 전철사업, 호남권에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사업, 순천-여수간 철도개량사업, 호남선 전철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선로용량 부족구간의 해소 및 일반수송체계 구축과 고속전철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를 위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반영된 신규 8개 사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거나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투자시기 조정, 정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철도 수송효율을 제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權琪述委員 차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

료와 똑같이 차관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5개 사업,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차관이 답변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8개 지역은 빠졌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 우선순위가 뒤라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기획예산처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기획예산처에서 보도자료로 돌렸던 것입니다. 여기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조치원-대구 구간의 B/C 비율입니다. B/C 비율이 1.84로서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지만 이것은 예산이 한 푼도 없이 깎였습니다. 깎이고 지금 뒤에 동순천-여수 개량사업은 뒤에 하거나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였고 B/C도 1.13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것은 여기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B/C 비율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자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시정 좀 하세요.

○鐵道廳長 鄭鍾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權琪述委員 됐어요. 가만히 계세요!

차관, 그렇게 좀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세요.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예, 참고하겠습니다.

○鄭哲基委員 참고를 하기는 무얼 참고로 해요. 똑똑히 이야기를 해요.

○權琪述委員 아무리 똑똑히 이야기를 해도 지금이 자료가 개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鄭哲基委員 여기 이 철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權琪述委員 철도비를 무얼 제외한다는 거예요, 무얼 제외해요?

○鄭哲基委員 고속철도 하나만 해도 전체 철도예산의 두 배가 넘어요. 그것을 왜 비교를 단순비교를 하고 그래요?

○權琪述委員 신규사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신규사업 얘기를 하는데 자꾸 고속철도니 다른 것을 얘기합니까?

○丁世均委員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權琪述 위원님, 참 듣자듣자 하니까 좀

지나쳐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이 철도를 건설하는데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에 쪽 해오던 사업도 있는데 그것을 철도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었는가를 같이 따져야지 자기네들한테 자기가 주장하는 논리에 유리한 다른 기존사업은 제쳐놓고 불리한 신규사업 부분만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와서 아전인수격으로 논리를 세워 가지고 이 정부를 비판하고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라선이 지금 복선입니까, 단선입니까? 저는 정말 치졸하게 이런 것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영남권은 지난 수십년간 철도에 제대로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고속철도 투자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왜곡해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해서 누구에게 무슨 이득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이간시키고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발 그런 짓 좀 그만 합시다.

○**權琪述委員** 지금 丁世均 위원님께서 과거의 투자 이것까지를 전부 분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과거의 투자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신규사업을 지금 여기서 부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부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지나치게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까지도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을 본 예산까지, 사업비예산까지 반영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을 총동원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500억 이상 대형사업은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익 대비를 계산합니다. 이것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치원-대구라든지 이것은 1.84로 나와 있고요, 철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동순천-여수는 1.13입니다. 1.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B/C가 낮은 곳은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었고 B/C가 높은 곳은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깐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 국회의원이 여기서 안 따지고 어디서 예산심의를 뭘 한다는 것입

니까?

그래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해서 무슨 역적행위나 한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지요.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개선해 주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예산심의, 부별심의 왜 합니까?

이상입니다.

○**金容鈞委員** 조금 전에 權琪述 위원님께서 내년도 철도예산과 관련해서 지역편중 문제에 대해서 따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丁世均 위원님과 또 다른 한 분 위원님께서 과거 30년간 영남쪽에 퍼부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가지고 뭘 그러느냐, 그래서 조금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기차를 타고 서울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30년간, 경부선 하나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냥 복선, 부산에서 서울까지 있던 것 그대로이고 동해남부선 그대로이고 철도 하나도 확장되거나 단선이 복선화된 것 없습니다. 철도예산에 과거 30년간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영남권에 돈 마구 편파적으로 갖다 부은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丁世均委員**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철도청장, 과거에 영남은 철도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호남에다만 계속 투자했습니까?

○**鐵道廳長 鄭鍾煥**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숫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사실 SOC 예산을 지역별로 따진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98년, 99년, 2000년도, 2001년도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를 포함한 모든 철도의, 다른 데는 알겠습니다. 영남과 호남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호남 15.1%……

○**權琪述委員** 여기가 광고장인줄 알아요?

○**鐵道廳長 鄭鍾煥**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丁世均委員** 權琪述 위원!

○**裴基善委員** 한나라당 위원 여러분!

○**權琪述委員**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예요.

○**丁世均委員** 權琪述 위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래요!

○裴基善委員 權琪述 위원님!

○鐵道廳長 鄭鍾煥 통계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裴基善委員 權琪述 위원님, 왜 경상도에 편파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말을 막습니까?

○權琪述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裴基善委員 아니, 철도청장 답변을 들읍시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2001년 예산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와 미래를 균형있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도 너무 합니다. 해도 너무 해요!

○權琪述委員 결산도 하고 예산도 다 여기서 합니다.

○裴基善委員 아니, 왜 그렇게 건강부회하십니까?

○權琪述委員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여기서 결산도 하고 예산도 하고 다 합니다.

○裴基善委員 좋습니다. 우리 權琪述 위원님 오늘 저녁에 얘기 다 들었으니까 철도청장 얘기도 들어 봅시다.

○權琪述委員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철도청장이 나와 가지고 지금……

○裴基善委員 위원장님, 철도청장 발언하게 하세요!

○委員長 張在植 철도청장 설명하세요.

○裴基善委員 우리가 지금 철도청장 설명을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鐵道廳長 鄭鍾煥 위원님 이것은 설명을 올려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참고적으로……

○裴基善委員 설명하게 하세요!

○權琪述委員 설명을 하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것으로 하세요.

○鐵道廳長 鄭鍾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98년, 99년, 2000년, 2001년 4개 연도의 철도예산을 지역별로 설명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호남권이……

○權琪述委員 지금 결산합니까?

○鐵道廳長 鄭鍾煥 아닙니다.

연도별로 철도예산이 어떻게 지역별로 됐느냐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철도청장 설명듣고 발언하세요.

○鐵道廳長 鄭鍾煥 98년도에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호남권이 15.1%이고 영남권 10.9%입니다. 99년도에는 호남권이 9.4%, 영남권이 10.9%입니다. 2000년은 호남권이 8.2%, 영남권이 22.8%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 호남권이 10.5%, 영남권이 16.9%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금 權琪述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의 경우에 다섯 개 중에서 세 개가 호남권이기 때문에 신규사업만 보면 영남권에 비해서 호남권이 훨씬 많은 것은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구태여 따진다면, 저희는 사실 이것을 따지지는 않습니다마는 따진다면 그렇게 너무 불균형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이크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裴基善委員 경상도는 쌀밥만 먹고 전라도는 보리밥만 먹어야 됩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마이크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張在植 金一潤 위원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權琪述委員 지금 내 질의에 대한 답변 중이니까……

○委員長 張在植 權琪述 위원 그만하고 金一潤 위원 말씀하세요.

○丁世均委員 당사자니까 마이크 주세요.

○權琪述委員 청장, 지금 철도투자 비율을 죽 설명해 주셨는데 2001년도에 호남이 10.5, 영남이 16.9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鐵道廳長 鄭鍾煥 예, 그렇습니다.

○權琪述委員 그런데 지금 호남 철도하고 경부선 철도하고 여객수가 몇 대 몇이지요?

○鐵道廳長 鄭鍾煥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경부선이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權琪述委員 80%가 경부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78%인가요?

○鐵道廳長 鄭鍾煥 75 대 25 정도됩니다.

○權琪述委員 75 대 25면 예산을 75 대 25로 투자해야 됩니까, 10 대 16으로 투자해야 됩니까?

○裴基善委員 사람 숫자도 75 대 25입니까?

○權琪述委員 그렇습니다.

○鐵道廳長 鄭鍾煥 지금 현재 그것은 여객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權琪述委員 지금 철도청장이 10 대 16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입니다.

왜? 여객숫자는 25대 75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비율대로 해야지요. 사람이 100명 다니는 곳과 10명 다니는 곳은 길이, 넓이를 달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지금 10대 16 하나까 보라고, 경상도가 많다고, 영남 쪽으로 많이 갔다고 하시는데 이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감정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丁世均委員** 가만히 있는데 자꾸 끊어서 그렇지 누가 많이 갔다고 그랬어요?

○**裴基善委員** 창피하니까 그만 합시다.

(장내소란)

○**委員長 張在植** 자, 그만하고 다음 답변하세요. 건교부차관!

○**建設交通部次官 姜吉夫** 다음은 존경하는 朴世煥 위원님께서 대구공항의 향후 국제노선의 신설 또는 증편대책과 대구 위천산업단지를 조기진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시다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충실히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건설교통부차관의 대답이 향상…… 대답을 좀 명확히 하세요.

다음에 중소기업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小企業廳長 韓竣皓** 중소기업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元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金元雄委員** 그것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中小企業廳長 韓竣皓** 예,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世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朴世煥委員** 서면으로 하세요.

○**中小企業廳長 韓竣皓** 예,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容鈞委員** 서면으로 하십시오.

○**中小企業廳長 韓竣皓**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

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철도청장 답변하시지요.

○**鐵道廳長 鄭鍾煥** 존경하는 金一濶 위원님께서 울산, 경주, 포항……

○**金一濶委員** 청장! 지금 시간이 자정을 넘어 1시가 넘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까?

○**鐵道廳長 鄭鍾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金一濶委員**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합니까?

○**鐵道廳長 鄭鍾煥** 예, 동의합니다.

○**金一濶委員** 그러면 됐습니다. 다만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權琪述 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수치는 맞습니다. 저도 아까 부별심의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항, 항만, 철도, 고속철 등 하나 하나 예를 다 들지 않았습니까? 그 수치 없이 그냥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서 동료위원의 말이 설령 귀에 좀 거슬린다고 하더라도 30년 이야기 나오고 그렇게 길게 이야기 나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호 인격을 존중하거나 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듣다 듣다가 저럴 수가 있나, 실제인데…… 이렇게 해서 말이 쭉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시고 어쨌든 장관 그리고 철도청장! 본 위원의 질의를 충분히 숙지했고 이해한다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제발 그렇게 와글와글, 지역차별이 너무 많다,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답답하다 하는 소리 안 듣도록 잘 좀 하세요. 그것이 바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이 정부가 나가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鐵道廳長 鄭鍾煥** 예,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羅午淵 위원 말씀하세요.

○**羅午淵委員** 철도청장! 내가 들으니까 철도청장이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주무청장으로서 여객수라든가 화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별 투자의 적정성을 따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전부 다 제쳐놓고 절대 수치를 가지고 이쪽이 많으니 저쪽이 많으니 하는

식으로 이렇게 흥분해서 여기에서 떠들고 하는 것은 청장으로서 지킬 도리를 못 지켰다고 생각하는 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좀더 정확한 답변을 조용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鐵道廳長 鄭鍾煥 명심하겠습니다.

○裴基善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말씀하세요.

○裴基善委員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막판이 이렇게 고성인 오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權琪述 위원님께서 정말 고향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신 나머지 이 건너편에 있는 호남 지역의 다소 편중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철도청장께서는 분명히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부지역 출신으로서 고향이 호남 쪽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어려운 젊은 시절을 지내면서 지역감정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몸소 체험해 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싸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가능하다면 경상도 쪽에서는 호남을 걱정해 주고 호남에서는 경상도를 걱정해 주는 이런 예결장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됐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끼리 얘기니까 서로……

○申溪輪委員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예.

○申溪輪委員 저도 말씀을 좀 드릴까 했는데 드릴 기회가 없어서 제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권에서 자꾸 지역을 정당한 듯 말하면서…… 저도 그런 것이 없는가 반성은 해봅시다라는 이 논쟁이 참 부끄럽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약점을 잡고 크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한밤에 있었던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서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로 받았는데요, 자료를 한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금 2차 외환자유화 조치가 수 차 대외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대외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IMF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를 날짜별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외환자유화 조치로서 우리 기업이나 경제활동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0년1월부터 9월까지 해외 불법외환거래 적발된 금액이 1조3,071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떤 불법외환거래 유형인가, 어떤 내용의 불법외환거래 내용이고 어떻게 적발했는가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이로써 정부 측 답변이 모두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철도청,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했다가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교육부 등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여러 장관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1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委員長 張在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張在植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장님 여러분!

이번 박금성 전 서울경찰청장 인사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金文洙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사안의 관행이 앓은 자리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張在植 그냥 그 자리에서 하세요. 보고

가 중요하니까 나와서 하든 거기에서 하든 하세요.
또 위원장이 한번 지시를 했는데……

(「위원장의 권위를 세워주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간에 협의를 하세요.

○李漢久委員 그러면 협의할 때까지 정회를 하시지요.

○委員長 張在植 그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장내소란)

○李漢久委員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행자부장관께서 보고를 앞에서 해 주시고 질의응답은 앉아서 받으시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행자부장관, 그렇게 하세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張在植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이번 朴金成 전 서울경찰청장 인사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朴金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인사기록카드상에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서 이를 수리하였으며 수도권안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인사를 곧바로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15만 경찰의 명예와 긍지에 상처를 주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찰인사과정에서 학력 등 경력 검증 등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인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말씀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경찰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金景梓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예.

○金景梓委員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경찰청장으로 가면 행정자치부장관은 다 끝났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경찰청장이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제가 질의 받고 그 다음에 청장이……

○金文洙委員 위원장!

○金景梓委員 그럼 경찰청장은 내려가세요.

金文洙 위원 제가 발언권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행정자치부장관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그 필요한 조치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金景梓委員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앞으로 이 경찰청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카드를 일대 정비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두 줄 굵고 도장 찍고 하는 그런 규정상의 가감철삭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서를 일체 해 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엉터리 학력, 변조된 학력을 가지고 승진을 한다든지 출세를 한다든지 임명받아 가지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장관의 책임하에 정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 한번 하십시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인사기록카드의 수정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밀확인 작업을 진행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종학력 기재사항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간의 일치여부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를 일제히 검증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景梓委員 예,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자면 지금 이 경찰청 인사에 관계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상신이 되지 않습니다.

○金景梓委員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확인을 하시면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철저한 대책을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金文洙 위원 발언하세요.

○金文洙委員 지금 우리 행자부장관께서 보고를 하시고 오늘 이것이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청 인사가 바르게 되어야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생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본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을 향해서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은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다고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이면서 또한 우리 예결위원으로서 경찰청의 여러 가지 인사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예산을 올바르게 배정함으로써 그 심사과정에서 다시 국민적 신뢰를 우리 경찰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참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자부장관에 대한 개별적인 질의는 그 뒤로 미루고 우선 이번 사건의 제일 핵심적인 당사자이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의 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 보고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昌委員 아까 행정자치부장관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 인사문제에는 핵심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인사기록카드 정비를 잘못했다 또 확인을 안 했다 여러 가지 그런 절차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법상 나와 있는 권한을 소관 장관이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찰인사에 대해서 제청권을 법상 엄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장의 추천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의해서 사실상 제청권을 경찰청장이 함으로써 장관은 그냥 경유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부 언론보도에도 장관이 내정한 것과 실제 인사가 시행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되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찰인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대한 주무부장관으로서 앞으로 장관의 제청권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사 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되고 또한 아무리 경찰이 권력기관이고 또한 특수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상 장관이 제청권이 있으면 장관의 책임하에 경찰의 인사가 제청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이번에 확실히 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인사위원회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수석비서실에서 사실상 주요한 인사대상자에 대해서 모든 기록을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바탕위에서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서울경찰청장의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장치들이 왜 하나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오히려 여러 군데서 터치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도 옳게 체크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李在昌 위원님께서 지금 장관의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또 추천권자인 청장의 의사대로 그냥 경유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추천과 제청절차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제가 들어서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부적정한 경우는 또 바꾸고 이런 상호 의견교환과 또 상하 간에 의사전달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경찰이라고 하는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는 청장부터 하위직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인 저로서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비교적 폭넓게 수용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문제대로 제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청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장관의 제청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장관이 내정한 인사와 실제 시행된 인사가 다르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민정비서실 등 모든 기록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한 검증과정을 앞으로 거치고 또 인사 전반에 대해서도 그런 점을 유의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는 앞으로 정부 전체의 인사를 해 나감에 있어서 방금李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연구도 함께 하겠습니다.

○**申榮國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께서도 아시겠습니까마는 지난번 정치분야 부별심의할 적에 행자부에서 생각지 않았던 경찰인사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정치분야 중에서 유독 행자부 소관만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진행은 행자부장관과 지금 경찰청장의 보고를 듣고 몇 분의 관심 있는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종결지은 다음에, 부별심의가 끝난 다음에 사회문화분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경찰청장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행자부장관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관심 있는 몇 분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 주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哲基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우리 申榮國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오늘 양당 간사 간에 부별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경찰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께서는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행자부에 대한 부별심의를 마칠 것이냐의 여부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고 이따가 오늘 문화분야 부별심의 때 경찰청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질의하는 순서가 되어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潤委員** 위원장!

○**委員長 張在植** 金一潤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一潤委員** 저는 오늘 행자부장관의 보고말씀을 듣고 매우 실망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이번 서울경찰청장의 인사과동문제 과연 이것이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를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추천한 추천자가 책임이 많은 것인지 제청자가 책임이 많은 것인지 그 책임분야를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왜냐 하면 보고말씀에 학력과 경력이 잘못된 것을 그냥 유의해서 보지 못했다 하고 가볍게 이렇게 넘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천자보다도 제청자가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인에게 물어 봤더니 사실상 서울청장의 경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더군다나 학력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대통령께 제청하는 장관이 그 중요한 서울청장의 인사기록을 학력이라든지 보지도 못하고 추천자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올릴 수가 있느냐 거기에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시험을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학력과 경력입니다. 이것을 대통령께 제청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지도 않고, 따져 보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추천자의 말을 듣고 쏙 올릴 수 있느냐 하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행자부장관이 그런 정도의 보고로써 희미하게 넘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책임이 막중한 장관의 입장에서 그런 정도의 보고로 끝마칩니까?

○**李漢久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예, 하세요.

○**李漢久委員** 오늘 스케줄상으로는 행자부장관께서 보고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궁금증이 풀리면 일단 돌아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장한테 보고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중간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질의하면 질서가 안 잡혀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丁世均 위원 말씀하세요.

○**丁世均委員** 우리 李漢久 간사님 말씀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자부장관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장이 보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한 말씀은 뭐가 미진해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행자부장관의 지금까지의 여러 조치라든지 또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든지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자신으로서는 이것이 전부이니까 혹시 더 별도의 사항이 있으면 경찰청장이 보고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위원님들도 그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형식적으로 보면 국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행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

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서만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법기관인데 그것 말고 하는 것은 곤란한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자부장관이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원래는 예산과 관련된 부별심사는 끝났는데 서울경찰청장 인사문제가 불거짐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외교분야 부별심사를 할 때 끝을 내지 못하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밀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장관의 미결사항은 현재 서울경찰청장 인사문제만 미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원래 의사일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 분야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행자부장관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고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하신 다음에 행자부를 종결해야 사회문화분야의 부별심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사회문화분야 부별심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정식으로 여기에서 보고를 하거나 부별심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그렇다 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서울경찰청장에 1차적으로 내정됐던 사람이 사임을 해가지고 후임자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원인이 없어졌다,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야당에서도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의사진행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貞淑委員** 지금 丁世均 위원님께서 원인이 없어졌다, 협조를 해라, 이런 부탁도 하셨는데 서울경찰청장 사건은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경찰청 인사가 아주 중대한 인사인데 어떻게 3일간의 코미디로 끝난 것 같은,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해 하고 또 중요한 자리의 인사가 이렇게 허술하게 기록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 중책을 임명하는 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좀 들으세요. 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하도 분분하시니까……

그러면 행자부장관이 지난번에 아침에 보고를

끝내고 갈 때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경과나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대한 부별심의도 미뤘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와서 자세한 것은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朴金成 청장에 관한 사건만 관계되는 것입니다. 경찰청장의 얘기를 듣고 납득이 가면 우리가 이 건을 처리할 것이고 납득이 안 가면 청장이나 행자부장관에게 질의를 더 할 것입니다.

더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실망하고 놀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문제, 인사기록카드를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행자부장관은 아마 이번 청장의 제청하는 책임이랄지 아니면 앞으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복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이 지금 간단히 답변을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경찰청장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자세히 듣고 그 다음에 행자부장관이 또 답변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장관은 경찰청장 답변하고 질의가 끝날 때까지 좀 앉아 계시고 아까 청장의 보고를 듣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빨리 듣고 그리고 빨리빨리 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聖順委員**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金聖順 위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는데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결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예결위면 결산과 예산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너무 다른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 발언하는 것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번 이 수첩에 쪽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자정 넘어 일하면서도 별로 능률을 올리지 못합니다.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고 또 그 문제 가지고 저렇게 논의를 벌이고 있구나 참 비능률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남북협력관계, 지난 11월 27

일부러 제가 쪽 조사했는데 퍼준다 왜 이렇게 저 자세나라는 내용이 중심으로 된 남북협력관계에 대해서 서른세 분의 위원님이 무려 80차례에 걸쳐서 발언을 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탄핵에 관해서 열아홉 분이 40회에 걸쳐서 발언을 했습니다. 노벨상, 특히 노벨상 타러 가라 가지 마라 하는 얘기, 이것이 무슨 예산결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노벨상 관련발언으로 일곱 분의 위원님이 12번 발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서울청장 인사문제를 포함한 인사편중문제에 대해서 스물네 분의 위원님이 무려 102회에 걸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률적인 국회가 될 수 있습니까?

또 朴正熙 전 대통령 기념관과 동상에 관한 건, 이것을 일곱 분의 위원님이 12번에 걸쳐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런 것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이 부분적으로 예산결산에 관련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102회, 80차례…… 물론 연인원입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지금 서울청장 얘기만 해도 이제 일단락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시에 개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벌써 11시 30분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공세가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산심의 법정일자 지났습니다. 예산심의에 직접 관련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인사편중문제, 검찰총장 탄핵, 남북문제 이러한 문제 포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 인사가 잘못 되었으면, 또 행자부장관의 잘못이 있으면, 또 경찰청장의 잘못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추후에 행자위에서 따질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상 더 논란을 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金容鈞 위원님!

○金容鈞委員 존경하는 金聖順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국회라

는 것이 본래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국가의 예산을 쓰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인사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예산을 쓰는 사람들의 자질이 국민적인 봉사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부터 따져 들어가야 예산의 숫자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결위원회에서는 무려 101조에 달하는 일반회계, 이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내년엔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돈을 세금을 내서 정부를 운영하라고 국민들이 던져줄 때 그 정부운영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엉뚱한 데 돈이 쓰여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크나큰 우려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결위원회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金聖順 위원이 말씀하신 남북협력문제, 검찰총장탄핵문제, 노벨상문제, 인사편중문제, 지역편중문제 등이 논의가 되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하나씩 형성해 가는 그러한 변증법적인 토론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경찰청장의 인사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치분야 예산심의에서 이미 상당한 부분의 질의 응답을 마쳤습니다마는 그 질의가 끝나기 전에 전 국민의 관심사로 제기된 경찰청의 부당인사, 고속승진, 기록카드 변조사건이 터지면서 그 질의 종결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청장이 이 곳에 출석했습니다. 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방법은 사회분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 두 사람이 현재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서울경찰청장의 인사문제를 둘러싼 현재의 이 논란에 대해서 뭔가 적절한 결론을 내리고 사회분야에 들어가야지, 행정부는 정치분야 사항이고 경찰청은 사회분야 사항이니까 따로따로 해서 해보자, 이것은 너무나 인위적인, 가식적인 또 국민을 무시한 의사진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위원들이 질의하고 의문점을 해소한 이후에 사회분야의 질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마지막으로 李相洙 위원 말씀하세요.

○李相洙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예결위장이 계속 공전을 거듭하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요?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미 예산안 통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는 국가 예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지자체 예산도 심의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모든 시·군·구에서는 국가 예산이 빨리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지 않고 정쟁만 해야 되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아까 金貞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서울청장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인사제도도 고치고 책임자가 있으면 문책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발적으로 예산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조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임시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부처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또 경찰청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특별하게 오늘 행자부장관이 나온 것은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보고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듣기 위해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오늘 나름대로 보고했는데 그 보고 중에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장도 계시니까 나중에 질의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지 내가 답변하지 않고 내 답변을 대신해 청장이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행자부장관의 답변이 미진하면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질의하시고 일정한 질의가 끝나면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청장한테 또 질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합쳐서 하겠다는 입장은 저희 여당에서 볼 때는 정치공세를 펴기 위해서 오늘 사회분야 심의를 제쳐놓고 완전히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비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행자부장관에게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보낸 다음에 다시 이따가 경찰청장께 질의할 때 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이미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金貞淑委員 행자부장관 빨리 가시게 해요.

○委員長 張在植 예. 우리 양당 간사 간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행자부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자기 보고에 혹시 미진한 점이 있을까 몰라서 경찰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 했으니까 일단 경찰청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고 국회의원들께서는 경찰청장한테는 나중에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 행자부장관한테 오늘은 질의를 하고 행자부장관이 질의 도중에 자기 혼자 잘 모르는 게 있다든지 협의할 일이 있으면 경찰청장하고 협의해서 대답을 하도록 이렇게……

○丁世均委員 그게 아니에요.

○委員長 張在植 그게 아닙니까?

○丁世均委員 행자부장관은 그렇게 해서 끝을 내고 그리고 가고, 경찰청장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委員長 張在植 언제 별도로 해요?

○丁世均委員 경찰청장은 부별심사를 따로 하나 청장은 오후에 하고 행자부장관은……

○李相洙委員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행자부장관은 나와서 보고하고……

○委員長 張在植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사문제에 관해서만입니다. 예산은 오후에 하고, 그러니까 청장 나와서 보고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시면 질의는 행자부장관께 위원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警察廳長 李茂永 먼저 존경하는 張在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1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인사가 추천 과정에서 인사자료 검증 소홀 등으로 인해서 사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朴金成 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추천한 것은 과거 경찰인사의 고질적 병폐였던 연공서열이나 끼워맞추기식 인사관행에서 탈피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를 구현한다는 방침 아래 경기청장으로서 경찰개혁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보여 주었고 대부분의 근무를 서울에서 봉직한 바 있어 막중한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치안정감급 인사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이미 30년 간의 공직생활 중 학력이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는 점을 과신해서 공직자로서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행히 본인이 인사기록카드 허위 학력 기재 사실 여부를 떠나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이미 사퇴를 하였고 조직 내에 신망이 두터우며 다양한 보직을 두루 경험하고 두 번에 걸쳐 지방경찰청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李八浩 경찰대학장을 선임 서울청장으로 내정을 하였으니 만큼 이제 새로운 각오로 경찰조직을 추스려 민생치안에 전념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난 12월9일에 K-TV를 통해서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시간 20분에 걸쳐서 염려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청취했습니다. 특히 閔鳳基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그때 느꼈던 점과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교훈으로 삼아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더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경찰인사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예, 들어가세요.

○金洪信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張在植 예, 발언하세요.

○金洪信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 이번 제청권 행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인정을 하셨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러니까 학력 검증을 제대로 못한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기존 공무원 속에서 승진할 때에는 최종학력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것에 그쳤기 때문에 그 점을 소홀히 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金洪信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朴金成 전 청장의 인사기록카드는 장관께서 직접 확인한 적은 없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그렇습니다.

인사할 때 보면 대강 약력카드 정도 정리해 가지고 아까 金一濶 위원도 말씀 계셨지만 학력은 최종학력 정도를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洪信委員 최종학력을 보실 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조선대 3년 수료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니까 인사기록만 본다면 교육대학 2년 졸업 후에 3년 동안 법률학을 전공한 학구과 인물로 보신 거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학구과 인물로 봤다기 보다는……

○金洪信委員 학구과까지는 그렇더라도……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오랫동안 경찰에 투신했기 때문에 사실 학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金洪信委員 좋습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나라가 학연·지연·혈연의 한국적 병폐가 문제인데 朴金成 전 청장은 수혜자이자 상징적 피해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2년 8개월 사이에 초고속 승진할 때 공직사회의 동요나 경찰 쪽에서 부당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런 얘기를 굳이 많이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경무관에서 치안감 올라갈 때에 좀 빠르게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면 빠르게 올라갔다는 건 알고 계신 거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金洪信委員 그러면 경찰외부로부터 부탁, 인사철에는 당연한 수순인데 어느 곳에서 혹시 부탁 받은 적 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저는 고위직 경찰인사와 관련해서 외부로부터 부탁 받은 적이 없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면 대개, 인사기록카드에 관해서는 나중에 청장한테 별도로 따지겠습니다마는 제가 요 몇 가지는 조목조목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고위직 인사에서 첫째, 인사기록카드조차 확인 안 하고 제청을 했습니다. 장관께서…… 그 다음에 경찰고위직 인사기록을 그 지경으로 관리하도록 방치한 점이 문제고 셋째, 경찰내부의 인사불만이 팽배하도록 편중인사를 한 점이 문제점이고 넷째, 해임하지 않고 사표제출로 끝까지 부당한 인사를 보호한 점이 질책받아 마땅한 점이고 다섯째,

이번 사태로 경찰의 위상을 파괴했고 경찰조직의 자존심에 상처를 심각하게 내준 점에 관해서 반성을 해야 하고 여섯째, 제청권을 잘못 행사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 위상을 웃음거리로 만든 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점이기에 때문에 대 국민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경찰상을 망가뜨린 책임자도 마땅히 사퇴케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요 며칠새 산지사방에서 로비를 받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로비를 받고 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경찰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金洪信委員** 아니, 지금 李茂永 청장의 문제, 이번 사태를 이 정도로 덮자는 로비를 산지사방에서 받고 있느냐고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金洪信委員** 전혀 없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일부 제보에 의하면 李茂永 청장 얘기입니다. 지난 추석 때가 아니면 그 이후에 성묘길에 청장비서실장과 정보국장을 대동하고 경찰 헬기를 이용해서, 공무가 아닌 사적입니다. 완주에 있는 모친 산소에 성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헬기를 이용해서 간 사실은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金洪信委員** 전혀 제보를 받은 적 없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없습니다.

○**金洪信委員** 이 때 전북의 각 지방경찰서장이 성묘행사에 배석하고 참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저는 없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면요. 李茂永 청장의 헬기 이용과 관련해서는 김포공항 경찰항공대 또는 본청 항공계 운항일지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경찰청장……

○**警察廳長 李茂永** 예, 제가 답변……

○**金洪信委員** 아니, 운항일지 주실 수 있나요?

○**警察總長 李茂永** 예, 제출하겠습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것은 제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출하겠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다음에 李茂永 청장 유임운동에 관한 진위를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어떤……

○**金洪信委員** 제 제보에 의하면 본래 尹雄燮 전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으로 그다음에 金在鍾 전 경

찰대학장이 서울청장으로 이렇게 되도록 장관께서도 마음의 결심을 한 상태에서 모 실력자가 주선해서 이 결정을 뒤집고 4명의 치안정감을 퇴진시켰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또 제청권자인 제가 누가 얘기해서 뒤집히거나 그런 상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면요. 오늘 아침 중앙일간지를 좀 보셨습니까? 사설란을 보셨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오늘 아침에 이른 시간에 국무회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신문을 다 못 봤습니다.

○**金洪信委員** 지난번에도 이런 것이 가판에 났었을 때 전혀 모른다, 가판을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현직 경찰청장이 유임운동을 했을 의혹을 제기한 일간지 기사를 가판에서 그럼 본 적이 없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어떤 가판 말씀입니까? 언제……

○**金洪信委員** 조선일보, 말하자면 어제 오후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가판을 대개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자 신문이에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자 신문은 보질 못했습니다.

○**金洪信委員** 가판도 못 봤다 이거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가판하고 본판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까? 오늘 여기 출석하시면서 이 얘기를 아무도 귀뜸을 안 해 주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아니요. 제가 아침에 국무회의에 갔다가 곧바로 여기 오기 때문에 신문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金洪信委員** 아니,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았느냐고요. 이 얘기를……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가서 이번 경찰인사과동에 관한 질의를, 시달릴 것을 뻔히 알면서 사실에 현직 경찰청장이 유임운동을 한 의혹을 제기한 것조차 파악을 못 했다 이 얘기입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제가 신문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金洪信委員** 세상에 말이지요. 아무리 장관께서

말이지요. 지금 이렇게 긴급현안인데 이 얘기를 내부에서 누가 얘기를 안 해줬단 말입니까? 자동차로 이동하면서도……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제가 못 들은 것은 못 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金洪信委員** 아니,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경찰조직을 통할하고 있습니까? 아이 참, 정도가 있지요. 그런 정보 가지고 장관직에 봉직을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이 경찰조직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이런 문제가요. 역사상 처음 이런 인사파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그 점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洪信委員** 한번 보세요. 고위직 4명을 한꺼번에 퇴직시키고 인사를 한 지 3일 만에, 다시 또 하루 이틀 만에 보직변경을 연속으로 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에 관해서 제청권을 가진 장관께서 李茂永 청장을 사퇴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럴 용의는 없습니다.

○**金洪信委員** 없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金洪信委員**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청장이나 장·차관은 고위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사흘 만에 사퇴를 하게 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생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朴金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년 전에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기재했던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등재된 인사기록카드상의 학력기재의 잘못, 그리고 그 이후로 꾸준히 경찰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잘못 파악한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음에 기재를 잘못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추천권자인 경찰청장의 사임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洪信委員** 좋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경찰청장에 얽혀서 왜 이렇게 소문이 세상에 질퍽하게 많습니까? 들으셨겠지만

고급양복을 증여받았다는 고급 옷로비사건 얘깁니다. 과거에는 여성 옷로비사건이었는데 이제는 남성 옷로비사건의 태동인데요. 이 얘기를 들으신 적은 있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金洪信委員** 그것을 들은 뒤에 진위를 확인해보았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물론 본인에게 확인했고요, 경찰청에 대한 질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는……

○**金洪信委員** 왜 이 얘기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명을 벗겨주어야 되고 사실이라면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청장의 질의시간 때 위원님께서 확실히 밝혀서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信委員** 나머지는 나중에 청장께 묻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경찰청장이 해명을 잘 해 주세요. 어제도 보문장·차관들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면 잘못이 있으면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든지 없으면 이리이러해서 없습니다 해야 하는데 우물우물하고 있으니 사실화되지 않아요.

경찰청장도 그런 잘못이 있으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없으면 분명히 없다는 것을 해명해 주세요.

宋錫贊 위원님……

○**宋錫贊委員** 지금 동료·선배위원님께서 이번 경찰인사의 책임을 지고 경찰총수를 물러나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朴金成 전 서울경찰청장이 학력허위기재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미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사직했습니다. 저는 인사기록카드의 학력허위기재 사실을 모르고 인사발령을 하여 물의를 빚었던 정부의 책임도 있고 또한 추천했던 경찰청장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朴金成 전 서울경찰청장의 허위기재는 국민의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 행정자치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29년 전 한나라당 집권 당시에 허위기재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라당 집권 당시 허위기재된 것을 30년 동안 한나라당에서 잘 관리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이 있으면 치안공무원으로서 신원조

회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리고 인사기록카드 같은 것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서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던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찰청장이라든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0년 동안 인사기록카드를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승진시키고 그리고 경찰 요직을 두루 거치게 했던 그 책임을 한나라당께서 져야 합니다. 한나라당 정권 시대 때 주요 경찰 요직을 주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에서는 그것을 믿고 오늘날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큰 물의를 빚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나라당 요구대로 서울경찰청장이 사임을 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산통과를 해 주어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를 하여야 내년도 우리 살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치적 공세를 펴지 마시고 이것으로 일단락 지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金容鈞 위원 질의하세요.

○金容鈞委員 공인의 진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의 보고나 경찰청장의 보고에서 불분명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朴金成 치안정감이 서울시 경찰청장에서 해임된 것이 사표를 제출해서 사표를 수리한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인이 기록카드를 허위작성·변조했기 때문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 임명되어서 물러나고자 했고 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표를 수리한 것이냐, 세 번째로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냐 그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록카드를 허위작성·변조했기 때문에 물러난다면 그것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사유라면 도의적 책임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기록카드가, 조금 전에 宋錫贊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 언제 기록카드가 이런 식으로 허위로 작성되어서 계속해서 행사가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고위관리의

인사에 활용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록카드 작성 경위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언제 작성이 되었고 그것을 본인이 작성했는데 왜 도장을 안 찍었느냐, 아니면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타자수가 작성해서 그냥 끼워 놓은 것을 본인이 묵인한 것이냐, 그 학력이라든지 기타 이것은 무엇을 토대로 해서 타자를 친 것이냐,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조사반을 구성해서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기록카드 허위작성과 변조를 철저히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선대학에 청강생으로 1년 내지 3년을 다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선대학교 청강생명부를 우연히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선대학교에 가면 청강생 명부가 연도별로 절대 위조를 할 수 없이 일련번호를 매겨 가지고 언제 얼마를 받고 청강을 시켜 주었다는 서류가 고스란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대학에 가서 보시면 그 서류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고 변조할 수 없는 그런 요지부동의 서류, 역사적인 문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강생 명부를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한 학기에 청강생 등록금이 5만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5만원을 몇월 며칠에 영수하고 누구를 청강생으로 한다는 것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조선대학만큼 청강생을 철저히 관리한 학교가 없습니다. 그 명부를 확인하시고 이 부분의 허위여부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인사 과정의 권력투쟁과 그로부터 파생된 무리한 고속승진, 보임이 이 사건의 원초적인 문제다, 朴金成 치안정감 사건은 그냥 부차적인 것이다라는 이러한 정치계와 또 관계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진상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우선 金容鈞 위원님께서 朴金成 서울경찰청장이 사임한 것이 본인의 기록카드 허위 기재의 작성 때문이나, 또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나, 아니면 정치권과 언론에서 물의를 야기한 사람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세 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金容鈞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카드를 잘못 쓴 것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는 29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따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은 동창회 명부라든지 그 당시에 또 동창회에 나간 기록들을 보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고등학교를 목포고등학교로 써 왔던 것은 아니라는 정황은 저희가 과거의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 3년 수료로 한 점에 대해서는 관계 기록이 그 쪽에 없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金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청장생 명부에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등학교 학력을 정정하면서 두 줄을 긋고 날인하고 작성자의 도장을 찍지 않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조사를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朴金成 경찰청장 임명과 경질 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정치계와의 투쟁의 산물이고 부차적인 것이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했던 인사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기록에 학력기재가 잘못된 데 따라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종결이 된 사건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委員長 張在植 다음은 金容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申榮國 위원님, 金文洙 위원님 이런 순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甲委員 우선 서울경찰청장 인사와 관해서 질의응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에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면 같이 답해 주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저한테만 질의를 다 하시고 다음에 청장을 상대로 하시기로 아까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金容甲委員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고을에서 대통령이 탄생하면 그를 도왔던, 대통령을 만들었던 주변인물들은 2선으로 물어나는 것이 동서고금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주변인물들은 권력을 완전 장악하고 국가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 마치 이 나라를 개인의 나라처럼 운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의 출신지인 목포시의

국회의원이 되고 權魯甲 최고위원은 목포상고 출신이고 韓和甲 최고위원은 목포고 출신이고 金玉斗 사무총장은 목포해양고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권력을 독식하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인지 목포공화국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게다가 집권 3년이 가까워지면서 경제난국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도 그들끼리 親權이니 反權이니 하면서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서부극 OK목포의 결투처럼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이렇고도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 金大中 대통령의 국정쇄신이니 인사쇄신이니 하는 말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경찰청장이 목포고인지 해양고인지도 헷갈리는 사람을 차기 경찰청장 1순위인 수도청장에 임명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인사는 결국 대통령에게 엄청난 누를 끼치고 편파인사라는 오욕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해서 경찰청장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 응답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朴金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간부 인사를 추천은 누가 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경찰청장이 추천을 합니다.

○金容甲委員 그러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할 때 청장이 갔습니까, 장관이 갔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저와 청장이 같이 갑니다.

○金容甲委員 그러면 밑의 간부인사를 하기 전에 청장인사가 먼저 결정되었어야만 청장이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렇습니다. 청장은 쪽 해오고 있었으니까요.

○金容甲委員 그러면 청장의 유임결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되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지금 경찰청장의 임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경찰청장을 오래 한 분도 계시고 짧게 한 분도 계십니다. 임기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유임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도입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容甲委員 보통 서울청장까지 인사를 할 것 같으면 청장 유임문제가 먼저 결정되고 그 결정이 된 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관이 제청을 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없이 서울청장을 비롯한 하위직만 인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습

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李茂永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더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상의가 되었습니다.

○**金容甲委員** 사전에?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그렇습니다.

○**金容甲委員** 제가 경찰청장 통계를 내어 보니까 임기가 평균 1년 정도,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 하다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李茂永 청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훨씬 넘는 상태인데 사전에 유임이 되어도 좋다 하는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기 때문에 李 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 별도로 상의를 하고 청장 책임하에서……

○**金容甲委員** 두 번째 朴金成 서울청장의 인사기록카드를 상세히 보았습니까, 그냥 별로 보았습니까? 청장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장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장관은 인사기록카드 전체를 보지 않고 약력카드라고 해서……

○**金容甲委員** 약력카드만 보셨다는 얘기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렇습니다. 장관이 다 보지는 않습니다.

○**金容甲委員** 상세한 카드는 아마 청장이 보셨을 것입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청장이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容甲委員** 그리고 朴金成 청장이 전남 목포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저는 목포 부근의 전라남도에서 태어난 것은 알았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金一濶 위원이 저한테 자꾸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저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金容甲委員** 왜 朴金成 청장의 고향이 목포라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원래는 전라남도 영암군 출신입니다.

○**金容甲委員** 고등학교를 목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 韓和甲, 權魯甲, 金玉斗 이분들이 전부다 목포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거기에다가 서울경찰청장

은 사실상 경찰청의 제2인자인데……

(장내소란)

왜 질의하는데 자꾸 중간에 끼어요!

조용히 해!

(장내소란)

이야기 들어보고 문제 있으면 나중에 질의하세요.

왜냐 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의 제2인자이고 앞으로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많은 사람이 목포의 학교 출신인데 여기에다가 또 목포에 있는 학교 출신을 보내면 이것이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내소란)

좀 조용히 하세요.

장관 답변하세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경찰지휘관 인사는 적성이라든지 능력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사가 장관이나 대통령께 누가 되고 이런 측면의 고려는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容甲委員** 제가 이야기한 것은 충정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한 소리입니다. 지금 편중인사다, 인사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장내소란)

더 이상 못 하겠어요.

○**委員長 張在植** 질의 계속하세요.

(장내소란)

발언 계속하세요.

○**金容甲委員** 저는 이런 식으로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고성을 지르면 제가 더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하고 쿨다운시켜 가지고 해야지 더이상 제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李漢久委員**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발언하세요.

○**李漢久委員** 그런데 동료위원 발언할 때 너무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기 여러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격앙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진정시키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질의는 계속하시고 양당 간사 간

에 합의하세요

○**裴基善委員** 왜 대통령을 거론하고 왜 權魯甲, 韓和甲씨를 거론합니까?

○**金容甲委員**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질의 못 하겠어요.

중간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고성을 지른 사람이 사과부터 먼저 하세요.

○**裴基善委員**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容甲 위원님께서 우리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는 도중에 목포공화국이다, 권력을 독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61년 朴正熙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이 나라 권력이 경상도로 간 이후에 이제 겨우 3년 전에 목포출신 金大中 대통령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40년 동안 이 나라는 네 차례에 걸쳐서 경상도 대통령이 나왔고 얼마나 많은 장관, 얼마나 많은 장군, 다 경상도에서 나왔습니까?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쌍으로 해가지고 경상북도 출신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 나라의 중요한 권력의 자리들을 얼마나 많이 중요한 자리를 전부 경상도가 다 독식을 했습니까? 지금도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거의 중요한 자리는 중간자리까지 모두 다 경상도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처럼 능력있는 사람 한번 발탁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학력기재된 것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러났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예산국회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위법입니다.

우리는 여야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예산의 가장 중요한, 국가경제가 지금 위태롭다고 하는 현 시점에서 국가예산을 법을 위법하면서까지 정치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국회가 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국회는 국정을 논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경찰청장 하나 문제삼는 것,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지금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은 통과시켜 주고 또 李漢久 위원과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도적인 보완, 할 것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도를 24시간 만에 할 수 있으며 1주일 만에 할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계속되던 예산회계법을 하루 만에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 당에서는 제도적인 보완이나 법률적인 보완 전부 다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통과시켜 주고 제도적인 보완하고 경찰청장 잘못된 것 있으면 따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국회를 질질 끌면서 날마다 국가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어서 곧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왜 예산은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국회일정은 이렇게 하루살이 일정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감정, 앞으로 계속 만약에 하신다면 저희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야당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委員長 張在植** 裴基善 위원님 됐습니다.

우선 金容甲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서로 의견이 오고 가고 해가지고 지금 간사끼리 합의하러 나갔습니다. 나가시는 도중에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되었으니까 그다음 차례인 申榮國 위원께서 우선 먼저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하시고 그리고 金文洙 위원 하시고 간사간에 합의된 다음에 우리 金容甲 위원님 다시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제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申榮國委員** 위원장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나 간사가 지금 회의를 중단하고 간사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나온 다음에 발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그렇게 하세요

○**羅午淵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것 다 쳐놓고 동료위원이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위원장한테 발언권도 얻지 않고 옆에서 고향을 지르고 40년 동안 경상도 정권이 이러니저러니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그런 질서문란행위를 못 하도록 막아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얼마든지 지금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고향지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 金容甲 위원 발언 도중에 발언이 중단되어 가지고 더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이

렇게 운영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간사 간에 의논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쿨다운시켜서 좀 질서가 있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張在植** 존경하는 우리 羅午淵 위원 발언이 맞습니다. 맞는데 역시 인간이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 간에 발언하다가 고함이 오고가고 명패를 던지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건드리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또 서로 오늘의 주 목적이 예산심의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발언을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煥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예, 하세요. 간단히 해주세요.

○**金榮煥委員**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료위원이 발언을 할 때 또 다른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무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무던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국회의 금도라고 할까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발언의 수위라고 할까 발언의 질을 좀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발언권을 얻었다고 해서 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섞여 있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결위원장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고 있고 또 전체 공무원들이 여기 수백명이 와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언권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발언을 다 하게 된다면 그것이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불안감과 여러 가지 파급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은 국회의원 한 사람의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해서 이것이 다 모여서 역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위원 가운데에서 한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저것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언이 지역을 분열시키고 또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발언들이 또 노골적으로 또 객관적인 그런 어떤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매도하고 또 직접

적으로 자극하는 이런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언하신 이중대 발언을 포함해서 김정일식 무슨 둠기정치를 한다든지 또는 최근의 이런 지역편중인사와 관련된 발언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지역주의에 올라 타고 앉아서 국민들의, 지금 봉합을 하고 아물어도 시원치 않은 이런 지역 문제를 자꾸 부각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과 관계없는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의 명예와 또 남의당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를 자꾸 건강부회하고 갖다 붙이는 이런 질의를 하게 될 때 동료위원들이 참 이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듣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주의문제, 지역편중인사의 문제는 여기 정부의 우리 각료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裴基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연원과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편중인사를 우리가, 그런 의심을 받는 일 또 그렇게 우려하는 일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연원이 깊고 그 배경이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제기해서 이것을 정치공세화한다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매도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정치가 파행을 걷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역분열의 정치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전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이 지역문제에 관한 언급에 있어서는 절도를 가져야 된다, 자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경찰청 문제만을 다루는 예결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그런 질의답변을 하려고 한다면 오전에 이렇게 많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장관들이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같은 질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경찰청

장이 허위기재를 했느냐, 또 서울경찰청장이 이것에 대해서 문책을 당해야 되느냐, 또 그것에 대한 경찰청장 자체가 문책사유가 있느냐 하는 이 세 가지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다 해소된 상태에서 경찰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같이 증언부언이 되고 자꾸 정치공세가 되는 것은 질의의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을 돌려 보내시고 부별심의를 진행하면서 야당위원들이 경찰청장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張在植** 예, 참고하겠습니다.

申榮國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國委員** 위원장 의견을 존중해서 아직 양당 간사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제가 발언을 해야겠습니다.

○**金容甲委員**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申榮國委員** 질의 안 끝났어요?

위원장, 金容甲 위원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그것은 지금 간사들 간에 합의 중이니까 합의 끝날 때까지 약간만 보류해 주시고……

○**裴基善委員**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예, 신상발언 하세요.

○**裴基善委員** 제가 존경하는 金容甲 위원님 발언 도중에 고성을 지르고 또 말씀을 방해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이제 국민을 통합시키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따라서 정말 경찰인사가 잘못되어서 국가가 걱정이 되고 이 국민의 정부가 걱정이 되는 그런 충정에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머리숙여서 제가 새겨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전라도를 미워하고 호남을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혹시라도 호남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왜 경상도 출신 위원들이 저렇게 호남을 자꾸 거론할까라는 그런 국민적인 의구심과 혹시라도 지역감정이 더욱더 깊어져서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해 올립니다.

○**權琪述委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예,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權琪述委員** 지금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사실 검찰총장·차장단핵표결 무산으로 파생되었던 국회 파행을 우리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조건 없는 결단으로 국회가 지금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새벽까지 우리 다 같이 고생하면서 99년도 결산까지 잘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도 과거에 없이 지금 연일 밤을 세워가면서 열심히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과정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각자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일단 듣고 또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다시 거기에 이런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발전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여기 의석에서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바라는 발전적인 국회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가 피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피할 수 있도록 특히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장님께 본 위원이 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데요. 경상도에도 야당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호남에도 여당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 좁은 땅에서 너무 호남이다, 영남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또 한나라당이 30년 집권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한나라당이 창당된 것은 97년도입니다.

본 위원도 97년도에 민주당을 하다가 신한국당도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고 한나라당에 동참을 했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됐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權琪述 위원…… 됐습니다.

○**權琪述委員**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민주당 같이 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새로 97년에 한나라당을 창당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당의 역사를 아시고 말씀을 해주셨으

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金容甲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容甲 위원님이 계속 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張在植 예, 지금 계속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金容甲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말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재경위원회나 여러 군데에서 느끼는 소감이 하나 있습니다.

당이 틀리니까 정책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속칭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가령 야당은 李會昌 총재님을 존경하고 모시고 계시고 또 여당 하는 분들은 金大中 총재님을 존경하고 모시고 있는데 양쪽이 다 그 존경하는 분을 앞에 놓고 우두머리를 너무 인간적으로 공격을 하면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정당 정책이나 여러 가지 기타사항은 얼마든지 공격해도 좋은데 최고책임자이신 양당의 총재님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일례를 들면 방자하다랄지, 나이도 훨씬 차이가 있는데 보통 방자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건방지게 놓고 존경심도 없고 함부로 하는 것을 방자라고 하는데 나이도 훨씬 밑인 사람이 웃어른보고 방자하느니 이런 표현만은 안 해줬으면 좋지 않냐는 것이 저의 평소 개인의 느낌입니다.

서로들 이해하시고 양당끼리 얼마든지 공격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金容甲 위원 발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甲委員 우선 裴其善 위원이 사과를 한 데 대해서 제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제가 목포고등학교 출신에 대해서 지금 여러 사람을 열거한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나라에 어려움이 많은데 바로 정치에서 親權이니 反權이니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신을 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경찰인사에 그쪽 고등학교 출신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꼬집어냈는데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다보니까 이것이 방향이 영똥한 데로 갔어요. 30년 뒤 정권을 잡았느니 안 잡았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崔仁基 장관을 잘 압니다. 崔仁

基 장관은, 이 과거 崔仁基 장관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아주 공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찰인사를 보면서 이 崔仁基 장관이 어떤 본인의 뜻에 따라서 제청한 것은 아니다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崔仁基 장관한테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청장에게 이런 과정을 소상하게 질의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이것을 고치고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어떤 방식이든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질의의 요체입니다. 요체인데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경찰인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아무튼 실망을 하고 적어도 10만 이상의 경찰에게 이 총수 되는 분들이 도덕적으로도 또 모든 면에서 당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앞으로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이것이 반드시 고쳐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감사합니다.

다음은 申榮國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國委員 申榮國 위원입니다.

행자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새벽 1시 2시경 또 그날 아침 10시경에 우리가 행자부장관과 좋지 않은 일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럴 적에 행자부장관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 이후 하루도 안 되어서 그날 4시에 朴 청장이 사임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 역시 崔 장관답게 일처리는 사전은 잘못됐지만 사후처리 하는 것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게 한다 그리고 또 지금 바로 후임자를 임명을 해서 치안이 지장이 없게 한 崔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일단 저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저울과 자를 항상 가까이 합니다. 저울과 자라는 것은 나눔의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눔은 데 어떻게 하면 1g도 서로 틀리지 않게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눔의 문화가 쉽게 말하면 국민의 갈등을 화합으로, 만약에 나눔이 1g이라도 나눔이 틀리면 그것이 화합이 안 되고 갈등이 거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나눔의 공정성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데 불구하고 최근의 인사를 국민들이 봤을 적에 아, 저것은 정직한 나눔이 아니다, 저쪽으로 1g이 더 간 것 같다 또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얘기가 있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이것이 1g도 더 가지 않았다 했을 적에 국민이 화합하고 흠어진 국민의 힘을 한쪽으로 모아서 그래서 이것이 국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4,000만 국민이 각자 힘이 흠어지면 국력이 제로입니다. 모여야 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문화가 중요하고 저울이 중요하고 자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에도 국민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배고픔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에 대해서도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도 검찰, 경찰이 어느 부서입니까,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있는 중책을 맡은 분들입니다.

검찰이 사고가 나면 피의자를 해외로 보내고 몇 달씩 잡지도 않고 이러면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합니다.

또한 경찰, 이제는 이번 이 사건이 있고 나서는 이력서를 못 받을 것입니다. 이력서를 받으면 그것을 확인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소위 만약에 이번에 그만둔 박 청장이 특정지역 출신이 아니었다라면 그런 이력서 가지고 그 고위직에 올라갔을까 그렇게 의심도 해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직무의 의욕을 샘솟게 하려면 정확한 자와 정확한 저울로 공정한 인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그 반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건으로 해서 전국의 공직자의 사기는 물론 가까이 있는 15만 경찰의 사기도 샘이 솟는 것이 아니라 샘이 말라버릴까 상당히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한 덩어리로 국력을 모을 수 있느냐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도 배가 고프고 신뢰에도 배가 고평합니다.

이런 배고픈 사람을 해결하고 많은 공직자의 정확한 자, 정확한 저울로 해서 사기를 샘솟게 할 수 있으려면 얘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장관, 그날 새벽 1시에, 10시에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듣고 장관은 오후 4시에 박 청장의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대단히 두 분께 죄송하지만 흠어진 국력을 하나로 모두고 피곤한 국민을 안 피곤하게 하고 배고픈 국민을 배고프지 않게 하고 나라를 지키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똑같이 오늘 오후 4시쯤 장관과 청장이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 희생을 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제가 죄송하지만 두 분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文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委員 우선 申榮國 위원의 답변을 들으시지요.

위원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申榮國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경찰 자체가 스스로 이 잘못된 인사 후유증을 바로 잡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대체로 없다.

왜냐하면 이번 인사의 진짜 책임자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李茂永 경찰청장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임되어야 될 사람이 李茂永 경찰청장이다. 이런 국민적 합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인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단순하게 지역편중 인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 국가의 지도층 내부, 권력층의 핵심층 내부의 바로 공정하지 못한 많은 난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국정전체의 난맥과 국가적 위기, 국민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번 경찰청 편중인사 과정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朴金成 전 서울청장이 자진사퇴형식을 빌려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진사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적 압력에 의한, 국민에 의한 해임조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장 초점으로 되었던 朴金成 서울청장이 그만두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내부의 이렇게 중요한 인사기록카드 하나도 완전히 허위로 작성되었는 것, 바로 경찰에 제출한 인사기록카드 이 전체가 허위로 되어 있다. 일반회사가 이렇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장래는 필경 부도사태로 간다든지 회사가 폐업사태로 가지 않겠나 보는데 대한민국의 사법경찰 또 치안의 총 책임자인 경찰

의 최고위층 인사기록카드가 이렇게 조작되고 완전 허위에 기초해서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30년 동안 이루어졌든 얼마 동안 이루어졌든 여전히 고치지 않고 이렇게 초고속 승진…… 경찰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승진의 근거가 이런 허위에 기초하고 있다, 어떤 잘못된 권력의 행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국민은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이제 나서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국회에서 우리 당에서 계속 경찰청장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해야 된다, 인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청문회 같은 기능은 없지만 저는 예산결산위원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나 형클어진 국가인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집요한 여러 가지 노력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李茂永 경찰청장이 그만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경찰청장 자신이 스스로 사퇴하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崔仁基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번에 崔仁基 장관께서도 많은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아마 자신이 생각하지 못 하는 사이에, 좀 방심하는 사이에 큰 오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장에 대한 제청권자로서 정말 잘못된 제청권이 행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아는 崔仁基 행자부장관님은 모든 면에서 능력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경력도 풍부하시고 또 인품도 훌륭하시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분이신데 정말 권력의 잘못된 구조 아래서는 한 개인의 여러 가지 무능함이 무기력하게 이런 잘못으로 귀결되는구나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국민적인 여망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이번에 잘못된 인사의 핵심에 바로 李茂永 경찰청장이 서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 정도쯤 되면 李茂永 경찰청장이 그만두어야 된다는 것을 대통령께 해임제청할 용의가 없으신지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앞서 申榮國 위원님께서 지금 흐트러진 이번 일로 인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고 또 실망스러운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장관과 청장이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金文洙 위원님께서 경찰청장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장관 자리를 두 번째 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고시 합격해서 들어와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장관 두 번 일하는 그런 행운을 안은 사람입니다.

저의 공직관은 진퇴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와 같은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의 작은 능력이지만 제가 일을 통해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또 일을 통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데 작은 능력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공인으로서 할 일을 다한 것이다 저는 늘 그런 자세와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저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검증과정의 소홀함 또 균형감각을 일부 상실했던 인사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공정한 인사질서를 잡는 것이 저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면 물러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진퇴에서 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金文洙 위원께서 청장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의 해임건의가 없더라도 임명권자가 해임여부는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朴金成 전 청장의 29년 전 인사기록카드는 누가 조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록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본인의 학력을 과장해서 기록했던 그것이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었던 그 점, 그 점이 그대로 통용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우리 행정기록물관리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또 일단 공직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기존의 업무능력을 봐서 진급을 시키고 하는 것이지 그때 또다시 학력을 검증하는 이런 절차가 없이 진행되어 온 행정내부의 오랜 관행때문에 결과적으로 29년 전에 과장되게 기록됐던 그 기록을 가지고 요즘 최종학력으로

보았던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추천권자인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李茂永 청장은 이 건을 계기로 해서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자세와 인사관리 기록물 관리와 이래서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서 경찰의 엄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하는 것도 李茂永 청장의 반성속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 위원님 들께 누를 끼치고 또 국민들에게 또 15만 경찰들에게 실망은 안겨준 점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끝으로 올립니다.

○委員長 張在植 됐습니다. 이렇게 양당 간사 간에 합의된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시고 또 행정자치부장관께서도 신중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장에 대한 질의와 또 답변은 경찰청소관 예산심의 할 때 하기로 하고……

○金龍學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張在植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金龍學委員 이번에 장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순서가……

○委員長 張在植 아닙니다. 아까 합의돼서 했어요. 아까 양당 간사 간에 합의됐어요.

○金龍學委員 장관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인데요.

○委員長 張在植 질의입니까? 한마디 하세요.

○金龍學委員 우리 朴金成 청장문제는 현재 국무위원들의 인사에 대한 나태한 책임의식과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자부장관뿐만 아니라 인사제청권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해당된다고 보아서 행자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좀 자신이 질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내심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관께서는 인사제청권을 행사하셨는데 제청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제청권은 용어 그대로 어떤 사람을 특정직에 임명해 달라는 의견을 품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龍學委員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목적은 인사기관장으로서 그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기관

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龍學委員 제가 알기로는 인사권자에게 인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저는 봅니다.

다음에 절차는 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고 구두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건은 문서로 하셨습니까? 구두로 하셨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이 건은 문서로 합니다.

○金龍學委員 아까 李茂永 청장하고 같이 가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구두로 제청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구체적인 李 청장 유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과 상의말씀을 따르 드렸고 아래 하위직에 대해서 청장하고 같이 가서 제청을 했습니다.

○金龍學委員 되었습니다.

제청한 인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 제청권자인 장관은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을 집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법률적인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글썽요, 朴金成 청장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그 사안이 제청권자인 저에게 법률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金龍學委員 보통 법률적인 책임은 우리가 행정상의 징계책임이라든가 형사책임, 민사책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고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龍學委員 통상 이 도의적 책임은 외부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것은 국민들이나 임명권자에게 사과하는 방법도 있고 물러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龍學委員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행사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朴 청장의 제청권 행사시 다른 말은 못듣고 초고속 승진에 관한 사실은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제청하셨는데 맞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렇습니다.

○金龍學委員 초고속 승진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고 제청 이전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조치라고 하면 무슨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龍學委員** 알아보았다든가 그것의 타당성 여부 같은 것……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렇습니다.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또 900만 경기치안을 무리없이 해왔던 그런 업무능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좋습니다.

통상 조직에서 초고속 승진이라는 것은 조직의 조직력을 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고속 인사를 하시려면 그런 조직의 조직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나 방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런 것을 하셨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청장에 관해서 인사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金龍學委員** 그것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금성 청장 사임에 장관은 관여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렇습니다.

○**金龍學委員** 어떤 형태로 관여하셨나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경찰청장에게 그날 국회에서 되었던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또 그런 뜻을, 국회에서 전달한 것을 본인에게 전달토록 제가 했었습니다.

○**金龍學委員** 청장을 통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달토록 하셨다는 것이네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金龍學委員** 그러면 장관께서는朴 청장 사임사유가 사임사유로서 정당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그렇습니다. 경찰고위지휘관으로서 그런 도덕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사임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金龍學委員** 사임 전에 장관이 직접 좀 앞서가지고 사임에 관련된 조치를 했었으면 하는 것이 상당한 바람이거든요.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정국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는 잘 아실테니까요. 왜 좀더 일찍 이런 사임에 관련된 조치를 좀 하지 않으셨

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게 전날 오후에 문제가 되어서 다음날 제가 곧바로 사임조치를 한 것은 대단히 빨리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金龍學委員** 빨리 하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金龍學委員** 여기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좀더 확실하게 파악하셨다 그런 뜻이겠네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金龍學委員** 인사 제청권자로서 본 건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장관께서는 어떤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당사자의 최종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경찰청에서 추천한 내용을 믿고 한 그 점이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龍學委員**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믿은 게 잘못이네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 서류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지 못했던 그 점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金龍學委員** 장관께서는 그러면 이朴 청장 인사에 관한 잘못에 관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 장관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제가 제청권자로서 인사 잘못된 점에 대해서 아까 사과드렸고 또 반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으로……

○**金龍學委員** 사과하시고 반성하신다는 뜻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그리고 제 진퇴문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金龍學委員** 장관 진퇴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이번朴金成 청장 인사문제의 핵심은 특히 이것이 불거져 나온 이유는 지역편중인사라는 것 때문에 불거져 나오고 문제가 되었거든요. 장관께서는 이제 큰 문제를 한번 겪으셨는데 이 지역편중인사를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지역편중인사는, 공정하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인사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龍學委員** 능력과 적성…… 그런데 문제는 능

력과 적성을 앞세워가지고 지역편중인사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안배라는 얘기가 꼭 나옵니다. 지역안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지역안배는 가급적 고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안배 때문에 그 조직의 능력과 적성이 무시되면 조직의 총괄적인 역량은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金龍學委員**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지역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는 입장에서는 지역안배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안배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역안배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됩니다. 장관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각 지역을 굳이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그 인구라든가 각 지역의 경제력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기타 특별히 보호해야 될 사항들, 그동안의 과거 역사적인 관행들, 역사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감안이 되어야만 우리가 지역안배를 제대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장관께서는 능력 위주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또 능력 위주의 문제가 거론되다 보면 꼭 지역안배에 관한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저는 장관께서 능력 위주 뿐만이 아니라 지역안배도 꼭 신경을 써주셔서 향후 행자부 관련된 인사에서는 이런 朴金成 청장과 같은 인사 건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끝낸 것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시간이 1시가 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40분에 속개하여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委員長 張在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별심사 : 교육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국정홍보처·경찰청·문화재청·방송위원회

○**委員長 張在植** 지금부터 교육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국정홍보처·경찰청·문화재청·방송위원회소관의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정책질의는 이미 끝났고 예결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별심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부처의 예산에 관한 것에 국한해서 위원들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장관님들께서도 답변하실 때 요령껏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柳三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三男委員**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20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 국토의 3.8%에 달하고 이중의 34.6%는 개인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1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둘러싸고 환경당국과 주민들 사이에 많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알고 있습니다.

○**柳三男委員** 그래서 국립공원내 사유지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環境部長官 金明子** 우선 자연생태계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묶다 보니까 사유재산권 행사, 그밖에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柳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보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할 것인가도 아울러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최대한 지역여론을 현 지답사에 의해서 수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앙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 지역에 구역조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원화시켜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三男委員**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남해에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단시설지구,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가 있는데 이것을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

해 달라는 의견을 작년 8월에 제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해 본 결과, 환경부 실무자의 선에서는 먼저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련된 국립공원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지구가 이미 상당한 인구의 밀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취약지구로 묶을 수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나누어서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더 구분해서 구역을 하나 더 정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지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트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부처로서 국립공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또다른 지켜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화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법을 택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전국에 대해 일정한 원칙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보전이라는 기능과 상충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柳三男委員** 국립공원의 구역획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지역별로도 하고 계속 토론회를 거치면서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柳三男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 지정지역은 각각 특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같은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청회를 각각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충분히 토의를 하는 그런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있습니다.

○**柳三男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청소년정책예산으로 32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2억원이 청소년 건전육성의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청소년 육성의 명목으로 32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 두 부처 간에 사전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는가, 이것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다른 목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지금 柳 위원님 질의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지방양여금 중에 청소년정책에 쓰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양쪽으로 중복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柳三男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총 12조1,614억원을 투자해서 국가경계를 활성화하고 동서지역화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노무라 연구소에 용역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 안 나왔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거해서 지금 2001년도 예산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柳三男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생산적 복지정책이 3대 지표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복지정책하고 지금의 생산적 복지정책하고 달라진 것이 뭔가에 대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노인복지예산을 보니까 2,887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서 1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의 노령화추세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특히 대부분의 노령인구가 65세 이상이 되면 공공근로에서도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들은 공공근로사업에 65세 이상이 되면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본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정부에서는 노인들에 대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경로연금사업입니다. 지금 2,887억원 예산 중에서 1,999억원이 저소득노인들에 대한 경로연금지급예산입니다. 71만5,000명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을 또한 추진을 해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柳三男委員** 알겠습니다.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찰청장은 부임 이후에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통이라든가 범죄라든가 현장 민생치안을 위해서 몇 시간 정도 현장에 가서서 민생치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警察廳長 李茂永** 저는 경찰청장을 1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휴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직전의 서울청장 10개월 중에도 휴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전국 어디나 다니고 있고 또 전국 순회간담회나 현장 워크숍 그리고 연말연시 치안현장 순시 등으로 영일 없이 바쁘게 전국을 현장중심으로 뛰고 있고 아까 金洪信 위원님께서도 헬기탑승문제를 말씀하셔서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헬기탑승이 22회에 50시간30분을 헬기를 타고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柳三男委員** 알겠습니다. 조직의 승패는 지휘관에게 달려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지휘하는 한 마리의 호랑이 부대가 아흔 아홉 마리의 호랑이를 지휘하는 한 마리 양의 부대보다도 낫다” 이런 것이 병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직 인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각종 범죄예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 승패가 바로 경찰청장 양어께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청장의 몫입

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인사권입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법상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柳三男委員**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로 추천은 바로 인사권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그렇습니다.

○**柳三男委員** 그런데 학력기재 변조시비로 朴金成 전 서울청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 사퇴에 대해 우리 경찰청장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력기재문제로 각종 인사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또 학력을 무시하는 이런 중앙인사지침이 많이 있습니다. 학력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런데 29년 전, 30년 전에 간부후보생을 졸업하고 임관 직전에 지도교관이 와가지고 정확히 배운 대로 써라 그러니까 군생활 하면서 조선대학교에 가서 야간에 청강한 것까지를 썼던 이런 과실이 지금 현재 이런 업보로 30년 만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柳三男委員**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유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경찰청장으로서 서울청장을 추천할 때 어쨌든 지휘감독 소홀 아닙니까? 확인을 못한 것도 지휘감독 소홀이다 이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도의적이든 법률적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柳三男委員**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삼국지를 보셨겠지만 조조가 보리타작이 한창인 들에, 조조가 거느리고 있는 10만 대군에게 조조가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농민들이 갈고 닭은 보리밭을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엄벌에 처하겠다 그렇게 영을 내리고 나서 조조가 탄 말이 비둘기떼가 오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보리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책임을 느끼고 자기 말머리를 스스로 잘랐습니다. 이것이 조조가 내린 명령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경찰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서 청장으로서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마디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앞으로 치밀하게 서류도 검토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柳三男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洪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信委員 金洪信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관께도 몇 가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것을 저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李茂永 청장께서 의혹이 있으면 벗어나고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이런 규명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경찰의 총책임자로서 경찰의 위상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朴金成 전 서울청장은 오히려 2년제 교육대학 졸업 후에 고위공직자가 된 점은 인간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야지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잘못도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청장께요, 朴 전 서울청장의 경우에 인사기록카드 확인을 하셨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그것은 직접 확인은 못 하고 그냥 각 인사대상자들의 경력이나 최종학력 이것만 써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까지 다 통용이 되어 왔습니다.

○金洪信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최종학력을 읽어보셨겠네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광주교육대학 2년 졸업하고 다음에 조선대 3년 중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렇게 알고 계셨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金洪信委員 어느 고등학교로 알고 계셨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해양고등학교로……

○金洪信委員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이력서에도 해양고등학교로 되어 있었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거기에는 대줄 마지막 학력만 써놓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金洪信委員 고등학교 기록은 안 나오고요?

○警察廳長 李茂永 인사기록카드에는 해양고등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런데 경찰 인사기록카드에는 목포고등학교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전산에 그렇게 되어 있고 원본 인사기록카드에는 목포해양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면 말하자면 지우고 그 자리에 타이핑으로 끼워넣어서 너무 좁게 들어간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그것은 나중에 엇그제에서야 알았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면 평소 朴 전 청장은 목포해양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청장께서는 알고 있었네요?

○警察廳長 李茂永 저는 경찰 간부후보생 19기 동기생으로서 1970년에 같이 경찰전문학교에 입학해서 1년간 같이 학업을 받고 같이 임관했기 때문에 그분의 인간성이나 지휘력이나 또는 학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면 일부의 주장이 뭐냐 하면 바로 朴 전 청장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치안정감 네 분을 한꺼번에 퇴직하게 했다는 비판에 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매년 우리 경찰은 총경에서 경무관 승진을 12명, 많을 때에는 16명까지 승진을 시켜왔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조직순환상 그렇게 될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인사에는 40년생이 퇴직했고 작년말 인사에는 41년생이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의 인사가 바로 42년생이 차례가 되었다는 것……

○金洪信委員 그러면 그 나머지 치안정감 네 분은 모두 42년생이었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두 명이 42년생에 해당되었습니다.

○金洪信委員 나머지는요?

○警察廳長 李茂永 나머지 두 사람은 아닙니다.

○金洪信委員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답변도 합리적인 답변은 결코 아닙니다. 또 2년8개월 사이에 초고속승진할 때 경찰 내부에 동요나 부당하다는 말하자면 인식에 관해서, 그런 소문이나 동요를 알고 계셨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인사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자연퇴직자 3명과 42년생 그리고 치안정감 전원을 면직처리함으로써 예년보다 적은 겨우 11명 경무관 승진을 시킬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洪信委員 경찰 내부로부터 인사철이면 누구나 전화를 한번 받거나 청탁을 받기 마련인데 이번 인사철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들 말입니까?

○金洪信委員 예.

○**警察廳長 李茂永** 그런 분들이 저에게는 말을 못 합니다.

○**金洪信委員** 아니,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간접적으로 하지 바로 장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저한테는 인사청탁 같은 것이 없습니다.

○**金洪信委員** 외부인사로부터 단 한 건도, 친구나 친지나 그런 사람으로부터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인사청탁이 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선언을 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金洪信委員** 그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좋습니다. 통상 청와대 등 힘있는 권력기관, 학연, 지연, 혈연 등 관련자, 정당이나 다른 권력기관의 압력이 있는 것으로, 이미 비밀 아닌 비밀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확인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경찰이 보다 민주화되어야 되겠고 또 중립화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지도 않고 또 들려오지도 않았습니다.

○**金洪信委員** 좋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알겠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리고 존경받아야 할 경찰상을 망가뜨렸다는 경찰내부의 분노가 그침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께 제기했던 문제인데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5월20일경, 아까 확인해보니까 19일 전 라북도청 경찰헬기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전라북도청 것은 이용 안 했습니다.

○**金洪信委員** 혹시 경찰청헬기를 통해서 산소에 간 적은 있습니까? 있느냐 없느냐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없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다음에 본래 윤웅섭 전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으로, 김재중 전 경찰대학장이 서울청장으로 내락단계였다는 사실이 지금 파다하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부정하시겠습니까, 긍정하시겠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그것은 제가 청장이고 그 분

들은 제 수하에 있는 지휘관들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면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을 보셨겠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金洪信委員** 그것이 전부 허위입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그분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金洪信委員** 상대가 있는데 상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입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예.

○**金洪信委員** 아무튼 이렇게 의혹과 제보가 끊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위를 떠나서 청장의 행동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규명을 아울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물의가 일어나고 이렇게 말썽이 많게 되고 공직상에 동요가 일었다면 평생을 봉직하신 경찰후배들을 위해서 마땅히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변시간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묻습니다.

지난 7일 의료보호예산과 관련한 기획예산처장관의 답변내용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의료보호를 시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의료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으로,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金洪信委員** 또 기획예산처장관은 의료보호예산을 지역의보재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엉터리 답변이 맞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국고지원입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니까 엉터리 답변이 맞는 것이고 또 기획예산처장관은 체불이 부채가 아니라고 했는데 병원과 약국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의료보호환자 대신 지불하겠다고 하니가 정부를 믿고 한 외상거래가 맞는 것이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병원은 정부를 믿고 외상으로 거래한 것입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하면 빨리 갚아야 할 돈이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그렇습니다.

○**金洪信委員** 이 바람에 의료보호환자들, 힘없고 병든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체불이 장기화되거나 병·의원에서 의료보호환자들의 진료를 꺼리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金洪信委員** 다음은 연구용 혈액의 외부유출과 관련해서인데 96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1만4,392건의 헌혈혈액이 연구용으로 외부에 유출되었습니다. 적십자사는 관례적으로 제공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金洪信委員**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동아일보 사회면에 톱기사가 이렇게 큼직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 보셨을 텐데 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혈액은 헌혈혈액이 맞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金洪信委員** 헌혈을 할 때 국민들의 정서는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수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金洪信委員** 즉 헌혈이나 혈액제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 옳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金洪信委員** 적십자사 지침상 혈액을 제공할 때는 연구계획서의 검토, 경과, 폐기과정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金洪信委員** 그런데 제대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해서 더군다나 제공한 혈액이 쓰레기통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적십자사에서는 몰랐습니까?

명백한 직무유기인데요, 국민의 피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함부로 취급한 이 점에 관해서 장관께서는 적십자사의 책임규명과 함께 원인규명, 책임추궁을 하시겠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동아일보 기사보도 이후에 본래 헌혈혈액은, 정상혈액은 연구용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金洪信委員** 아무튼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가지

고 현재까지 유출된 혈액에 대한 사용량, 연구내역, 연구결과, 적정폐기여부에 대한 점검 이것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金洪信委員** 또한 혈액을 통한 유전자 정보문제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께서 좀 정확히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사건 이후 복지부에서 부적격 혈액 이외의 혈액에 대해서는 연구용 혈액제공을 전면 금지했습니다마는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도 늦출 수는 물론 없습니다. 법·제도의 정비가 되기 전까지 행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위한 혈액제공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행 법체계는 유전자정보보호에 관한 문제를 담보하고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洪信委員** 이 바람에 헌혈을 기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부족한 혈액을 어찌하든 제대로 수급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대국민성명을 통해서 혈액관리상 문제점도 보완했고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제대로 해 달라는 장관께서 의지를 밝히셔야 하는데 이것을 해 주시겠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洪信委員**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께 묻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원들의 주요이력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저희의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요청을 해서 金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洪信委員** 조사결과는 언제쯤 나오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환경부의 수질관련 조사결과는 금주에 수합을 해서 지금 모델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자 합니다.

○**金洪信委員** 그것도 함께 나오면 보내 주시고 환경부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두 가지 문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내

년에는 실업난이 IMF 수준 이상이 될 것인데 노동부의 실업자대책이 더욱 필요합니다. 취업유망분야사업의 경우 2000년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 추경 때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洪信委員** 추경은 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인데 이번 노동부예산을 보면 예산부족으로 추경을 편성했던 이 사업이 2000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 때 이 부분은 검토되어서 추가편성하기로 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金洪信委員**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행태는 줄여 나가야 됩니다.

추경예산은 실업자대책 부족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충분히 계획하고 검토를 하셨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金洪信委員** 실업자 증가를 대비해서 노동부도 대안을 잘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배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관한 부분하고 새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천년의 문 건립하는 것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전반에 관해서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또 친일유공자 서훈 치탈에 관해서는 보훈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선임장관께서 서면으로 할 테니까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宋錫贊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委員** 민주당의 宋錫贊 위원입니다.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朴金成 전 서울경찰청장은 허위 학력기재로 인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朴

金成 전 청장의 인사추천권자인 경찰청장과 그리고 제청권자인 행자부장관의 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매우 부당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朴金成 전 청장의 인사기록문제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29년전 임용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항으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고 허용되어 온 것이며 朴正熙 대통령 때 그리고 金斗煥, 盧泰愚 대통령 때는 물론 金泳三 문민의 정부 때에도 그 잘못 기재된 인사기록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초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97년도에 IMF한파를 만나서 온 국민들이 혹독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잘못되어온 이 문제를 지금의 장관과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는 朴金成 전 청장의 잘못된 인사기록카드기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민생을 안정시키고 위기에 놓인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심의에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유치원학비 지원비가 전년도 대비 46.6%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본 사업의 목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저소득층 유아의 취원 기회를 확대하여 공교육 기반확대에 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목적과는 배치되는 예산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감액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2000년 당초 예산보다 저소득층 선정기준의 강화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은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행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 교육비가 감소되는 까닭은 어디에 있으며 의무교육, 평등교육차원에서 유아교육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즉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여쭙었습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학비 지원예산이 더 늘지 않고 줄어든 이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유치원학비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됨으로써 2000년에는 1만6,000명의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였습시다마는 2001년도에는 2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니깐 그렇게 된 것입니다.

○**宋錫贊委員** 그리고 지금 장관님께서서는 우리 교육에 투자되는 교육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나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내역도 아시면 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교육비는 중앙, 시, 도 그리고 지방 다 합쳐서 22조7,000억……

○**宋錫贊委員** 사교육비는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사교육비는 29조3,78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宋錫贊委員**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비하고 사교육비가 합해서 약 한 51조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29조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이 사교육비로다가 지금 충당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의무교육, 평등교육을 주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가계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의무교육, 평등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현재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실시에는 교원봉급교부금 기준, 2000년 불변가격으로 약 1조4,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마는 과열과의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약 34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조기확대 실시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宋錫贊委員** 지금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까마는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적어도 이 의무

교육을 빨리 실시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평등교육 차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용품은 물론 옷까지도 지급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좀 앞으로 평등교육 그리고 의무교육 차원에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예.

○**宋錫贊委員** 그리고 지난번 제가 본 질의 때 대덕연구단지 내에 1년 중학생들 졸업생수가 1,200명인데 수용할 수 있는 학교는 대덕고등학교 하나로서 400명 정도 밖에 수용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원거리로 통학을 함으로 인해서 연구원들이 취약한 그러한 환경여건 속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외국으로라든가 타 직장으로 많이 이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연구단지 내에 인문계고등학교 설치를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대덕연구단지는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광역시라든지 교육청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좀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학생수용계획 책임을 맡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현재 대덕연구단지 내에 인문계고등학교를 2개, 대덕고등학교와 중일고등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관평지역, 관평지역이 대전에서 한 북쪽으로 4km……

○**宋錫贊委員** 장관님! 제가 중일고등학교를 모르고 관평동을 몰라서 장관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중일고등학교는 변두리 지역에 있는 학교로서 지금 대전시의 광역학군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관평지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조성지역으로서 앞으로 그 지역이 주거지가 되었을 경우 그 설립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송강동 일대 학생들을 수용하기도 부족한 이러한 학교입니다.

거기의 이웃학교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덕연구단지 내에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만 말

씀을 해주세요.

○**教育部長官 李敦熙** 지금 아마 대덕단지 내에는 학교시설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

○**宋錫贊委員**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예산만 확보해 준다면 지금 과학기술부에서도 학교 부지로 이미 시설결정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약 1만3,000평 정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예산확보 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대전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委員**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예산안 규모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3%, 금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8.5%가 증가하여 보장규모가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가 한 차원 높은 사회 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산이 증액되었고 제도의 질도 높아진 본 사회보장제도가 사전준비 부족과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문제에 대한 각종 부작용 우려 등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비판이 많은 것은 시행부서의 준비부족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능력부재에 따른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 시행상에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고 이 문제가 본연의 목적대로 제대로 추진되기까지 보완 정비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질환자 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성인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을 보면 성인 정신지체장애인 시설과 관련해 10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히 대전의 경우 이미 부지 3,400평을 마련해 놓고 대전시에서도 9억원의 지방비를 확보해 놓고 있어 내년

에 시설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필요한 시설 예산이 10억 8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노동부장관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실업률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서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인턴사원 훈련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 계상내역은 금년도의 43% 수준인 360억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턴사원 훈련사업 실적을 보면 수료자 중 87.2%가 정규직으로 채용됨으로써 그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그 성과가 좋았던 인턴사원 훈련사업의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경기하강과 구조조정 등으로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張在植 鄭哲基**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한나라당의 金容甲 위원 순서입니다만 안 계시므로 민주당의 鄭哲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國 위원이 하시겠습니까?

○**申榮國委員** 여야 여야 하는 것이 모양이 좋거든요.

○**鄭哲基委員** 하나씩 앞당겨 갈테니까 나중에 하세요. 순서대로 해나가면 돼요.

○**委員長 張在植** 그러면 申榮國 위원 하세요.

○**鄭哲基委員** 鄭哲基 위원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이 다음에 하세요. 시작했으니까 ……

○**鄭哲基委員** 보건복지부장관께 묻습니다.

새 천년 들어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출산율이 1984년 2.1명에서 99년 1.42명으로 급

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의 우리나라 기본 인구정책이 무엇인지, 과연 계속해서 인구억제정책인지, 아니면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방치한 것인지, 어떤 정책이 결정됐는지 그 정책결정 배경과 앞으로 그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병원 내 감염사고문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대형 병원마다 연간 100에서 150건 정도 감염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병원 내 감염 관련으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이 3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형 병원들은 각기 병원의 이미지 추락과 소송부담을 우려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결사적으로 은폐하고 합병증 등으로 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에는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도 없고 복지부에서 제정한 병원감염관리준칙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이런 병원 내 감염사고의 책임의 일정 부분은 국가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 감염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부장관께 묻습니다.

교육부 예산 중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가 작년도 306억에서 내년 예산에는 180억으로 대폭 줄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시는 대로 농특회계로서 농어민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지원문제는 宋錫贊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디바이드 극복책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처음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전적으로 농어촌에 집중적으로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농촌이나 임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7.3%로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을 장관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부장관께 묻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지금 남북 철도연결을 위해서 철도와 4차선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 계획은 12월 초에 이 평가서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철도나 고속도로를 건설하더라도 생태계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에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비무장지대에 많은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런 야생동물들이 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통로를 설치해야 할 줄로 아는데 계획상에 이 통로가 몇 개나 설치가 되었는지? 만약 계획에 이런 통로 설치가 없다고 하면 환경부장관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이 통로 설치를 주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사업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500억이 책정되어 있고 2010년까지 무려 1조가 투입될 초대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우리나라 환경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 위원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의 개념이 무엇이고 또 정의가 무엇인지, 어떤 사업추진에 얼마나 투자할지 정확한 사업계획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사업전담 관리주체가 현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 내에 있는 임시조직인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31명에 불과한데 과연 이런 인원으로 거대한 국책사업을 관리할 역량이 있다고 보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안 나오셔도 기획에

산처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오는 날이
에요?

그러면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다음은 申榮國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申榮國委員 경찰청장께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통 거짓말쟁이 그
렇게 말하지만 아마 법률상으로 보면 사기범 이렇
게 말하지 않나 봅니다. 또 공문서를 고친다든지
이러면 공문서변조에 ‘범’자 붙여 가지고 사기범이
나 공문서 변조범이 되는데 경찰이 그런 사람을
단속해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경찰 목적인
데 어찌해서 단속해야 할 사람이, 그런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 단속한다고 했을 적에 많은 국민들이
어찌 생각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공직자가 거짓말
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냈다는 것은 그 조직의 상
사를 속인 것이 아니라 사친만 국민을 속인 것이
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해외
여권을 낸다든지 하면 신원조사를 과거에는 했습
니다. 이 신원조사는 그 신원조사자의 조상이 뭐
혹시 이북에 어떤 관계가 없느냐까지 이렇게 조사
한 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가 공직자 중에서
중요한 경찰조직에 바로 공직자의 신원조사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인가, 신원조사를 엉터리로 했다
는 것인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급할 적에 30
년 전에 한 이력서, 그 때 신원조사서 가지고 그냥
영구히 계속 활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동안 가
족변동도 있고 또 결혼도 했고 그런 사항이 진급
때마다 인사자료로 붙어야 되는데 아까 청장 말씀
은 30년 전에 처음 들어올 적의 이력서 가지고 그
냥 계속 좀 속된 말로 우려 먹은 것 같은 인상인
데 어찌해서 진급할 적에, 30년 동안 여러 번 진급
했을 적에 그 그물에 걸리지 않았는가, 경찰청의
그물이 그렇게 영성한가에 대해서 아마도 국민들
이 상당히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 경찰이 어떻게 도적을 잡고 사기범을 잡느
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때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동안의 경찰 조직, 나아가서 국가 공조
직의 지금 어느 다른 부처에 또 경찰청의 어느 공
직자가 거짓말로 이력서를 냈다든지 또 거짓말로
무슨 서류를 변조했다든지 하는 것이 없다고 장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을 적에 국민들
의 실망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청장께서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에게
제청을 했다는, 법률 절차에 의해서 했겠습니까마
는 이 두 가지입니다.

(張在植 위원장, 丁世均 간사와 사회교대)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과
연 경찰청장이 모르고 이렇게 추천을 했는가 또
아니면 알고서도 모른 척하고 추천했는가 두 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먼저 모르고 추천했을 경우에는 과실인
데 이것은 아마 공무원 용어로는 직무해태가 되지
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무슨 행정부처에 왔다갔다
하는 행정업무 같으면 이 정도의 실수도 있겠는데
감히 대통령께 올리는 이러한 추천에 과연 직무해
태라는 것이 있을 법이나 한 일인가, 대통령에게
올리는 추천을 이와 같이 사기범이라든가 변조범
을 모르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인사가, 추천체도가
그 정도인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그랬다면
나라가 꺼꾸러졌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것은 분명히 청장이 이런 문제점
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주위환경 또 여러 가지 정
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마음하고 관계없
이 어쩔 수 없이 추천을 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도 본 위원은 청장이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
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
고 해도 나라는 부끄러운 일이고 알고 했다고 해
도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계 언론에 나가면 대한민국은 대통령한테 소위
고위공직자를 추천하는데 거짓부렁 이력서를 붙여
가지고 신원조사도 30년 전에 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상태가 어떻게 가족상황이 어떻게 부
인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전
부 조사해서 추천을 해야지, 30년 전의 엉터리 날
조된 사기 이력서를 가지고 감히 대통령에게다가
서울경찰청장으로 추천했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 이것은 청장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환
경이라든가 또 밝힐 수 없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본인 의사와 반하게 추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
각을 의심하게 한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모르고 과실로 했든 알고 자
기 아닌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했든 결과는 대

한민국의 경찰이 국민에게 고개를 못 들게 되었고 나아가서 많은 공직자가 국민들한테 고개를 못 들게 됐다 하는데 대해서 경찰청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청장,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유임운동을 했느냐 또 무슨 옷에 대한 구설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런 것 사실,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이것도 청장한테 좋은 일은 아니지 않느냐, 구설수에 올랐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눔의 문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눔의 문화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저 세상이 남한테 나눔이 좀 부당하다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문화가 중요하고 아까 말처럼 저울이라든가 자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을 보면 대통령께서 의욕을 샘솟게 하려면 공정한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도, 대통령이 이번에만 걸 보면, 물론 대통령이 한 거지요.

그런데 대통령 말씀하신 것하고 40일 사이에 지금 인사한 것으로 보면 과연 이게 공정한 인사를 해서 대통령의 말씀과 대통령의 언행이, 처사가 일치한 것인가 하는 것도 또 국민한테 상당히 걱정을 시켜주는 일, 결국은 이것도 이제 경찰청장이 결과적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청장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집결시키기 위해서, 떨어진 경찰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서류를 잘못 올려 가지고 대통령께서 이것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앞장설 용의는 없는가 또 후배를 위해서도 아아……

그래서 경찰청장께서 아마 큰 마음 또 큰 생각을 한번 가져 주시면 상당히 국력에 또 공직사회에 국민들도 아, 이제는 뭐 잘못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구나, 잘못해 놓고도 책임을 안 지는 그런 풍토에서 한번 모범을 보이는, 경찰청장 개인적으로는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할 것입니다. 어찌다 보니까 세태가, 사회가, 세상이 그렇다 보니 세상이 내 맘대로 살아집니까? 주위 환경에 의해서 그저 타의에 의해서 살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크게 생각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

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申榮國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金榮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煥委員 경찰청장님!

○警察廳長 李茂永 예.

○金榮煥委員 이번에 지방경찰청장이 몇 분 임명이 됐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이번에 14명 전원 교체되었습니다.

○金榮煥委員 14명 가운데 몇 분이 호남분이었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이제 넷이 되겠습니다.

○金榮煥委員 다섯이었는데 넷이 된 겁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네.

○金榮煥委員 임명제청을 하실 때 청장님께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서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서울청장 문제가 아니라 호남 청장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다 이것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언론으로부터도 이것이 상당히 지적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시나 이런 말씀이요.

○警察廳長 李茂永 영남도 4명 같았기 때문에……

○金榮煥委員 그렇기 때문에 팬츠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예, 똑같이 했습니다.

○金榮煥委員 지금으로부터 3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관님들에게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한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도 들었고 요 며칠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관님들과 공무원들이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오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여당도 그렇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존경하는 우리 金한길 문화관광부장관님도 계십니다마는 3년 전에 이 나라에 정권교체가 임박해 있을 때 국민들이 이 정부에다 정권을 맡기는

데 세 가지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 오랫동안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던 金大中 대통령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다고 할 때 이 정부가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 金賢哲 국정농단이 있었고 가신 측근들의 발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친·인척 비리가 전면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또 우려하는 국민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절대적 지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편중의 정치, 지역편중의 인사 또 지역편중 예산 이런 지역패권의 정치가 또 생기지 않겠는가 하고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대체로 친·인척 비리와 이런 보복정치 같은 것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이 기우였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나 또 혹자는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편중인사 문제는 그것이 사실이든 어떻든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포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민심 이반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의 영남 민심의 이반에도 그것이 작용하게 됐고 최근의 이러한 민심 동요에도 지역편중인사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그런 인사를 했을 때에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분분할 수가 있고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든지 인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이야 어떻든 간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런 지역편중인사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문제를 예민하게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자칫하면 이 문제가 민심의 이반을 가져오고 이 정부에 부담을 주고 또 공무원 내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한 두 사람의 그런 인사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대통령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이틀테면 네 명이고 다섯 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

하는 그런 사고는 인사 자체에 대해서는 올바른 생각일지 모르지만 대단히 비정치적인 생각이고 대단히 지금 현재 민심의 여러 가지 동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발상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 청장님은 이 문제를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과거에도 그런 인사패턴은 있어 왔습니다마는 요즘 잣대로는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실도 있었고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金榮煥委員** 저는 해양고등학교를 나왔는지 목포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도덕적으로 따져 봐야 될 문제이고 책임질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지역패권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무수한 선거에서 지고 무수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렇게 해서 지역통합이 되지 않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우리 민족적으로도 이런 과제를 안고 출발한 그런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우리는 이 문제를 불식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도 아마 이런 인사를 하는데 외부에서 틀림없이 누가 시키거나 누가 청탁했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관님들은 소신을 갖고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철저한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두 사람을 특정지역이나 또는 친소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배치하는 것이 결코 이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후에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절대 이런 예결위 회의장을 포함해서 국회나 언론에서 특정지역 인사편중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날의 이런 환경과 역사적 조건하에서 우리가 대단히 면려를 가지고 신중하게

이 인사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도 안 되지만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풍토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공무원 내부에서 수근거림의 대상이 되거나 국민들로부터 조소나 냉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사를 한다면 우리 장관님들과 여기 산하기관과 공무원들이 다 어떠한 올바른 정책과 어떠한 훌륭한 업적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피해와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정부를 이끌어 오고 또 그 정부가 출범할 때에 국민들과 약속한 그래서 3禁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을 극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려 두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좀 말씀을 여쭙 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너무 조신하시고 신중하신 태도를 가지셔서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새 만금을 얘기할 때에 시화호의 전례를 예로 드는 경우를 보면 본 위원으로서 가슴아픈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시화공단과 안산 그리고 울산, 온산지역 같은 데가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난망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떤 지역이고 어떤 문제가 갖고 있는 지역인지 알고 계시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金榮煥委員** 처음 도시를 만들 때 공단과 너무 인접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대기오염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도시설계적으로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렇지요. 구조적인 문제지요.

○**金榮煥委員** 그런 도시를 산업공단과 인접해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둑을 만들고 그리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지휘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렇습니다.

○**金榮煥委員** 시화호문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시화호문제는 시화호에다가 담수호를 만들어서 농경용수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수량이 적기 때문에……

○**環境部長官 金明子**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金榮煥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독하고 개선할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도시설계 과정이라든지, 시화호 같은 방조제를 만드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시작될 때 이런 문제들에서 파생될 수 있는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의사개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환경부가 그지 밀려오는 문제를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환경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시책, 계획, 입안 자체를 봉쇄시킬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글썽요, 여지껏의 여건으로 봤을 때 단순히 어떤 특정 부처의 자세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의 기초가 개발부처가 환경성을 고려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 한 개발부처들에 의해서 계획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특정부처가, 그것도 맨 후발부처인 특정부처가 막아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金榮煥委員** 제가 보기에 그 말씀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오늘 여기 건교부장관님이나 다른 장관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부장관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환경에 관한 생각을 끈추세워서 그야말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극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되었습니 다마는 개선된 이유는 담수호로 들어와 있는 물들을 외해에 방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주된 요인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그렇지요.

○**金榮煥委員**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은 건교부장관과 수자원공사와 이런 사람들과 얘기해서 담수호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다호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지 지금 시화호문제에 관해서 환경부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시화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수질 개선대책의 변경안이 관계기관 사이에서 협의조정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대책은 관계부처인 해수부에서 시행 중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金榮煥委員** 정말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환경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환경부의 문제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容鈞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鈞委員**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학부모정보화교육비로 10억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생들에 대한 정보화도 아직 미진한데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보통신부에서도 주부를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도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에 대한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분야에 맡기고 교육부는 학생에 집중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정부가 정치화됩니다. 교육부도 정치를 하고 모든 부처가 정치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본연의 임무를 못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농어촌 교육이 황폐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농어촌 교육을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출신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확충을 하고 기숙사 시설 등을 강화해 주고 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좀더 눈에 보이는 대책, 수사학적인 대책이 아닌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최근 학교에서는 왕따 현상이 상당히 심각

하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결도 있었고 사실 경호원을 데리고 등교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왕따 현상을 못 이긴 그 아이의 부모들이 이민을 가기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예산이 해마다 많은데 교육현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지적했습니다. 천년의 문 사업은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으로서 42억9,6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 꼭 이 문을 건립해야 하는지 이러한 문은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 전쟁에 이겨서 나라의 경제가 팽창하고 외국의 전리품이 잔뜩 들어와서 부자가 되고 할 때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초가삼간 짓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남도국악원사업을 위해서 내년에 3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215%나 증액되었습니다. 남원민속국립국악원, 전북도립국립국악원과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기능상 중복되는 예산의 삭감 용의를 묻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문화관광부 예산 지원이 적절하고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화재진압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 제품이 있는데 이것이 소장 유물에 대해서 안전성이 검토된 이후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4,448억, 의료보험 부문에서 3,316억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이 두 부문에서만 전체 증액예산의 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약분업 분류에도 관련이 있겠고 또 복지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올해 시작해서 바로 내년 예산에 너무 대폭으로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줄속한 제도 시행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재검토와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20.7%에 해당합니다. 물건 100원어치 팔면 20원은 갖다 바쳐야 되는데, 장사해서 20원 남기기

가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 전부 번 것은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기초생활보장금을 지급하는 예산은 복지분야 예산으로는 너무 시혜성이요 갈라먹기 식으로 짜여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앞으로 우리 국민이 정부의 시혜 속에서 신음하는 그러한 국민을 만들지 말고 국가의 격려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생산적인 국민을 만드는 그러한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역발생 환자가 증가한 데 대해서 2005년으로 예정된 홍역 2차 예방접종 의무화를 내년으로 앞당길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진주보건소의 경우에 홍역백신을 구매하면서 8,750원보다 750원 비싼 가격에 구입해서 환자의 부담을 주었고 또 남해군도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3,000여개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제품에 대한 조달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조달체계를 다시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아울러 백신의 접종에 대한 쇼크사의 현황과 그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리산에 반달곰이 자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리산 관리를 하는 인력을 감축했는데 적은 인원으로 과연 지리산의 반달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리산 반달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입니다. 장관에게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金明子 장관께서는 그 의지라든지 정책 실현의 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누구 못지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별법제정 전이라도 낙동강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낙동강 살리기 대책을 마련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경제성장 악화와 기업퇴출 등으로 내년도에 실업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결국 많은 돈이 들었지만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실효성 있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이 지난 10월에 통과되었는데 4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셨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자홍보평가가 6억8,000만원인데 어떤 식의 평가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번의 朴金成 서울청장의 임명과 그 면직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조직을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동기, 나의 고향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꼭 봐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공직자에게는 가장 큰 함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본인은 능력위주로 인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다소 그러한 생각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사와 조직관리 그리고 수사나 정보나 기타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은 공정하고 또 이것은 적정하고 이것은 국가의 공익에 합당하다는 그러한 기준만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貞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한나라당의 金貞淑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와 계십니까? 나와 계시면 예산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112억원의 예산인데 그 중에서 기금 출연금 50억을 주어버리면 62억 정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거기에 인건비 등을 다 빼고 나면 사업비는 18억 정도인데 너무 적습니다. 한 나라의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될 여성특별위원장실의 예산이 1년에 60억이라고 하면 내년에 부로 된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에 묻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관련 부처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은 마련되어 있는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몇 명짜리, 예산은 얼마짜리 부를 만드는 것인지 규모와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사업에 500억원을 내년에 1차적으로 투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장관,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절대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金貞淑委員** 이것은 사업목표 및 비교우위 분야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이 추진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고 동 사업에서 표방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차세대 기술이라는 것이 한 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기술산업에는 단계별 특성이 있고 차세대 기술이라고 한다면 지금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지구환경보전기술이다, 생태기술이다 이런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좀 자세하게 답변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20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원비 38억여원은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노조간부 교육비 6억원 속에는 원장급에서 미화원, 경리, 서무에 이르기까지 총 20명의 인건비 2억3,000만원이 들어 있고 또 지역별 근로자 상담연수지원 6억원 거기에도 역시 4억5,000여만원이 소장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노동단체 정책개발지원 4억7,000만원, 노동단체의 국제교류활동지원 1억5,000만원, 신노사문화 정립 및 확대지원 13억 해서 총 3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인데 이토록 노동조합의 교육상담, 정책활동 또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데 과연 이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노동부장관께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판단할 의향이 없으신지, 동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의 중복문제입니다.

여러 번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상당수 사업이 유사 중복성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시성 예산집행도 하고 있고, 예로 자치단체 문화관광 축제 16억5,000만원의 경우에 이미 지자체에서 자본보조가 57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나중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도 역시 농림부에서 16억5,00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9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중복예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연 문화관광부의 용자지원사업 중에는 기존의 기금 또 문화산업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이런 것들과 충돌되는 일반회계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산업활성화지원 28억, 영화진흥금고지원 400억, 이하 쪽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총 639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중복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사업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혹시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과감히 삭감할 의사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431.2억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12년 동안에 걸쳐서 굉장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억원 이상인 것만도 17개에 달하는데 이 17개 사업을 하려면 5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2항에 의거해서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 중도 사업취소, 우선순위 선정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지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동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총 2조4,2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223.4억원 또 96.7억원은 문화재청에서 내놓는 사업입니다. 과연 이 사

업도 왜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방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국비가 20% 지방비가 24.5% 민자가 55.5%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자도 어렵습니다. 민자와 지방비의 재원 염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도 남도국약원 건립사업 31억5,000만원도 앞서서 金容鈞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본 위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고려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다음, 지방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입니다. 이것이 다 전시성 사업들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20억원 공급하기 5개이니까 100억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것도 과연 이런 식으로 보육센터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문 사업도 현재 형편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삭감할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직언론인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언론인의 자긍심을 해치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업입니다. 혹시 실직문제로 한다면 노동부에서 할 사업을 왜 문화관광부가 실직언론인들을 지원하겠다고 10억원을 계상해 놓았는지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과감하게 삭감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정홍보처장께 묻겠습니다.

250명에게 월 10만원씩 활동비로 지급하면서 국정홍보요원으로 위촉하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대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기대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과감하게 삭감할 의사가 있으신지?

대국민 홍보활동을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정치를 잘하고 그다음에 양심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호소해야지 이런 위원회 250명 만들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정홍보처에 국가이미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1억4,900만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진짜로 제대로 하려면 너무 돈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이미지 올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타당성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지 밝혀 주시고 너무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된 사업 같은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업고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실업고가 지금 심각합니다. 실업고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여 버렸습니다. 아주 형편없이 줄였는데 이것을 대폭 올릴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전문대학 다양화, 특성화 육성지원사업을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같은 사업을 위해서입니다. 명칭만 다를 뿐 5개 사업은 계속 중복사업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실업고 예산에다 충당해 줄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여학생의 수학과학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돈 좀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제도는 올해부터 국가책임으로 상당히 국가보호를 하겠다는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너무 지금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동 사업추진과 관련되어가지고 소득과약, 재산과약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대상자 기초조사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긴급 급여대상자가 상당수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성급한 시행이 불러올 폐해가 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초조사가 부실한 까닭에 허위신고 등으로 신고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사실은 걱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렇게 무리하게, 또 기초조사가 단단하게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이 과연 잘 될 것인가, 또 이것이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에 연·기금 고갈에 버금가는 재정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감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고용해서 소득 및 재산과약을 비롯한 대상자 기초조사를 그동안에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요원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재산과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고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전문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두배가 넘게 책정되어 있는 동 제도의 최저생계비 보장문제가 여러번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이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한번도 정확히 안 해주시길래 이것 재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도 복지제도의 확충을 하겠다는 금번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도 조사를 정확히 못합니다. 복지요원들이 제대로 다 해낼 수 있을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야기되지 않을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삭감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민련의 鄭宇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宇澤委員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교육개혁추진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금년 예산에 구조조정에 지원되어 있는 자금이 300억원이지요?

○教育部長官 李敦熙 150억입니다.

○鄭宇澤委員 지금 제가 여쭙어 보는 것은 구조조정에 지원되게 되어 있는 것은 300억원인데 미집행이 150억원이지요?

○教育部長官 李敦熙 구조조정평가사업이 150억이고……

○鄭宇澤委員 2000년 예산에 구조조정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자금이 얼마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150억입니다.

○鄭宇澤委員 지금 구조조정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 자금중 미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집행은 아직 안 한 상태가 150억입니다.

○鄭宇澤委員 150억인데 150억 하나도…… 미집행했다는 것입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지금 평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鄭宇澤委員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300억원이 구조조정자금사업으로 지원하기로 작년에 국회에서 의결을 받았어요. 그중에 지금 200억원은 교원성과금으로 지원했고 나머지 100억원하고 교육개혁추진우수사업지원사업에 남은 50억원을 합쳐서

150억원이 미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집행된 150억원하고 이 돈만큼은 내년 예산에 구조조정지원예산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200억원 중에서도 150억원만 사용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내년 예산중에 구조조정지원비로 45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150억원하고 교원성과급지원비로 지급예정인 200억원을 삭감한 100억원만이 구조조정지원비로 지원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답변 못하겠습니다.

우리 문광부장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조성사업이 440억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법시행령을 보면 5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주장은 남해안관광벨트조성사업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조사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鄭宇澤委員 그다음에 천년의 문 제작이 35억원 짜리인데 이것이 10년마다 하나의 문을 건립해서 10년동안 12개의 문을 짓는 문화사업기획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애당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은 취소가 되었고요.

○鄭宇澤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어보면 진도군에 남도국악원 건립으로 31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남원에 국립민속국악원이 있는데 같이 설립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나온 질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鄭宇澤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청장 계신가요?

○文化財廳長 徐廷培 예.

○鄭宇澤委員 뒤에 게시는군요.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예산이 한푼도 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요?

○文化財廳長 徐廷培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委員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168억원인데 지금 시·도신청액 대비 예산반영액이 지금 20% 수준이 됩니까?

○文化財廳長 徐廷培 현재 작년, 금년 15% 조금 넘습니다.

○鄭宇澤委員 내년에는요?

○文化財廳長 徐廷培 내년에도 15% 선을 넘지 않습니다.

○鄭宇澤委員 96년도에는 2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文化財廳長 徐廷培 과거부터 쭉 증가되어 있다가 작년에 전체 시·도에서 신청한 금액의 16%밖에 해당 못되고요. 내년도 예산도 금년 수준과 똑같기 때문에 15%, 16%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鄭宇澤委員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우리 문화재청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문화재보수정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한푼도 예산 증액을 못 시키는 것은 우리 문화재청에서 예산에 대한 노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다른 이유에 의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안 넣었는지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재보수정비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시·도에서 신청액대비 증가율도 예년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금액도 한 푼도 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요?

○文化財廳長 徐廷培 예, 그렇습니다.

○鄭宇澤委員 우리 경찰청장 나와 계신가요?

안 나와 계세요?

○委員長代理 丁世均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요.

○鄭宇澤委員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두 가지는 좀 지적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지금 정부지원액 책정근거가 되는 지원대상자 소득과약이 정확히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아주 정확하게 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鄭宇澤委員 지금 현재 그 대상계층인 저소득층보다 소득이 현저히 높은 자영업자의 소득과약을 3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생활정도와 본인들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과연 정부가 소득과약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런 지원대상가구를 선정하는데 과연 적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내년후부터는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2002년부터……

○鄭宇澤委員 그래서 근로소득액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근로소득액수는 그것이 소득공제제도를 시행을 하면 혜택이 그만큼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숨기면 손해가 되어서 노출이 훨씬 쉽게 되어 있습니다.

○鄭宇澤委員 만일 소득과약이 용이한 봉급생활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들보다 나쁜 여건에서 일하는 일일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취급받을 여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일 모든 근로생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적용을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는 결과를 저는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공제율만큼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鄭宇澤委員 좀 문제가 있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아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鄭宇澤委員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자활프로그램이 저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만 해도 25만에서 30만명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실효성있는 적절한 자활프로그램을 과연 수립해서 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 몇 만명, 공공근로자 몇 만명, 자원봉사자 몇 만명 등 이렇게 해서 그저 자활시능만 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내년 말에 몇 사람이나 이것을 해서 자활이 가능해서 기초생활

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이 있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자활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자활사업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성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인프라도 확충하고 해야 할,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鄭宇澤委員**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어도 시간이 짧아서 그냥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께 다른 문제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곡마약류중독진료소라는 것이 있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鄭宇澤委員** 병상활용을 보면 100병동은 미사용하고 있어요. 마약류중독자하고 알콜중독자병동으로 각각 50병동씩 사용을 하고 있어서 병상활용도가 대단히 저조합니다.

또 입원·외래환자 수도 평균 월 10명 미만이 입원실 인원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낮은 병상가동률이나 입원실 인원이나 외래인원들이 미비한 실정을 고려할 때 매년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가 예산낭비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부곡진료소의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도 이대로 그냥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마약중독자치료소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마약중독자 치료에 활용된 것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다른 정신병 치료시설, 알콜중독자 치료시설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찾고 있습니다

○**鄭宇澤委員** 이 활용방안은 제가 답변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립암센터 문제인데요. 이것이 원자력병원과 암환자 치료라는 중복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굳이 원자력병원과 중복된다기 보다는 암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은 더욱 더 확충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립암센터로서의 꼭 필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鄭宇澤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암퇴치를 위해서 암정복추진기획단에서 10년 계획으로 암퇴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鄭宇澤委員** 그런데 국립암센터에서도 똑같이 내년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신규사업으로 40억원을 집행어넣었는데 이것은 중복된 예산으로 보시지 않습

니까?

오히려 암연구를 좀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우리 암연구사업은 암센터 생기기 전부터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이고 국립암센터는 그야말로 임상과 연구를 겸해서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鄭宇澤委員** 그렇게 극단적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또 질의가 나갑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단체들도 각종 연구기관들도 중복될 때는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신규사업 나가는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사정 위원회 운영비가 보면 특정업무비가 4억 얼마가 있는데 거기에 ‘노사정 신뢰성 및 국정개혁 선도역할 유도비’ 이것이 됩니까? ‘노사정 신뢰성 및 국정개혁 선도역할 유도비’ 그래 갖고서는 얼마가 들어 있느냐 하면 한 달에 한 1,400만원, 열두 달 해가지고 1억7,400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뭐 하는 비용입니까?

장관님, 항목이라 잘 모르실 테지만 우리 노사정 위원회 운영비 중에서 특정업무비가 4억원인데 그 내용에는 위원장 업무추진비, 자료수집활동비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노사정 신뢰성 및 국정개혁 선도역할 유도비’ 해갖고 한달마다 1,400만원 넣은 것이 됩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활동비를 뭉뚱그려서 그런 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鄭宇澤委員** 제가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길게 해 놓았는데 이 목적과 사용처가 전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저는 오히려 또 특정업무비도 2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장관 판공비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노사정 신뢰성 및 국정개혁 선도역할 유도비’ 이것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혜자 부분에 자활직업훈련비에 대한 삭감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찰청 것을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서면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답변 들을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丁世均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민주당의 金聖順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聖順委員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IMF 총재라든가 또 사무총장 등 IMF 고위 관계자들은 대체로 한국경제가 지금 위기가 아니다, 다시 IMF같은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인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며칠 전에 보면 IMF는 아시아 경제를 낙관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다, 특히 고유가 그리고 미국 경제 둔화, 기술부문 둔화, 긴축통화 정책 등 이런 것들이 내년에 아시아 지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2001년 경제전망을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이라든가 또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민간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 수출지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출마저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또 고유가 파동 등으로 해서 또 유류세 인상 등으로 해서 소비자물가가 목표치인 2.5 플러스마이너스 1%를 넘어서서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내년에 우리 경제는 좋지 않을 것이 전망되고 실업자도 90만명 이상 웃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7년에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이 68.5%였는데 작년에는 64.8%로 중산층이 계속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숙자 등 가정해체 현상이 아주 급증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불안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확대를 포함한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발전에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金聖順委員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우선 아주 시급한 것이 2000년도 의료보호진료비부족분 2,604억원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존경하는 鄭宇

澤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활사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실업자를 예상해서 자활공공근로 1,000억원 또 국민기초생활 일반소득공제 약 한 700억, 저소득자녀 보육료 지원 93억원 또 지역의보 재정지원 2,140억원,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보조원 2교대 근무 이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란 240억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 대민수당 86억원 그 다음에 의료제도개선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서게 됩니다. 그 운영비가 없는데 이것 14억원, 노숙자 지원 등 해서 꼭 계상해야 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질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시기를 당초 2002년부터 하기로 했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金聖順委員 그런데 이것을 2001년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획예산처장관께 물었을 때 수급자의 근로소득 파악 또 공제율에 따른 근로유인 효과 분석 이런 것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것 한 6개월이면 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金聖順委員 그런데 왜 내년 하반기면 할 수가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할 경우에 약 한 9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근로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되어야 자활사업이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936 가구에 대해서 얼마 전에 샘플조사한 적이 있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金聖順委員 그때 1인당 평균소득이 12만3,000원인데 그 중에서 근로소득이 10만2,000원으로 총소득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알고 계시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그렇습니다.

○金聖順委員 근로소득공제비율을 10% 적용할 때에 1인당 월 1만원의 생계비 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래서 2001년1월부터 시행할 경우에 총 1,415억하고 또 여기에 예상되는 신규수급자가 한 5만4,000명 감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800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재원마련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경우에 예산 이외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산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金聖順委員** 그것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산업과 관련해서 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보건산업은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21세기형 2대 미래사업입니다.

지금 앞을 다투어서 선진국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97 벤처캐피털 투자동향이나 또 우리나라 99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보면 정보통신 및 보건산업 부분을 2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96년에 408조에서 2010년에는 927조로 매년 6% 정도 성장할 전망입니다. 국내시장도 연평균 한 10% 정도 성장할 것이 전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보건복지부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건복지비전 2010’에서 보면 2010년까지 신약개발 경쟁력을 5위권으로 집입시키고 또 의료기기 시장 5위권 진입 등 세계 10대 보건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언제쯤 나오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 목표만 나와있지 지금 추진계획이 없거든요.

우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중에서 금년의 경우 의료부문 투자의 비율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18%, 영국은 13% OECD 회원국들이 평균 8 내지 10%인데 우리가 3% 연구개발비 가지고 어떻게 세계 10대 보건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또 구체적인 추진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한 4% 되는데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국내 제약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생약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약개발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 제약기업이 보통 평균 15 내지 20%를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삼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작년에 건강보조식품이 우리나라가 소비자 가격으로 한 1조원 시장이었습니다. 매년 10% 내외의 시장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1인당 약 27불로 건강보조식품이 세계 8위입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건강보조식품이 더 크게 활

성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도 아직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식품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보, 교육 이런 것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 건강보조식품으로 지금 25개 품목을 지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金聖順委員** 이것을 신고제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25개 품목만 하면 새로 개발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체제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조사에 보니까 건강보조식품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한 7.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약 70%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에 의존하고 있고 충동구매 권유에 따라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학적 표시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위생법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보조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특별한 관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사후관리상의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한 사항은 일반식품에 비해서 아주 특별히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金聖順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제품의 복사식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제품을 직수입하는 그런 판매에만 열중하는 그런 상황인데 식품공전에 설정되어 있는 25개 품목군 이것을 확대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다른 거의 모든 선진국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도 빨리 제정해서 이에 대한 관리, 육성 이런 것이 체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제쯤 이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단는지 무슨……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그 문제는 건강보조식품

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 과연 필요하느냐 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자칫 특별한 관리를 위한 법을 규정할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유행상 의약품으로 혼동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일반식품과의 중간쯤에 있는 이 건강보조식품의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는 과대광고 규제 이런 방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金聖順委員** 일반식품으로 했을 경우에 앞으로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대량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계 8위인데,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고유의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해 내는 그런 것도 보건산업 진흥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聖順委員** 다음,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대학병원 등 국립대학이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의료서비스라는 공공의료 서비스 측면이 강합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대학부설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을 더 높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聖順委員** 교육적인 측면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실시한 국립대학병원 경영혁신 추진평가결과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보면 거의 수익이 얼마나 뭐 그런 것에 중점을 두었거든요.

(丁世均 간사, 李漢久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제는 경영수익금,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또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을 가는 사람들이 자기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뭐 그런 것을 해야 되고 특히 의료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진료, 응급의료체계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어떤 광역거점병원으로 기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부분은 교육부에서 하더라도 병원운영 그 자체는,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건복지부로

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아마 병원의 법인체가 교육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받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金聖順委員**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관련법을 고쳐 가지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聖順委員**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악방송이 곧 개국되지 않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金聖順委員** 2000년도 총 사업비 24억원을 가지고 방송국 설비를 전부 완료했는데 금년에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5억인데 이것 때문에 다 해놓고 개국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 5억은 이번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이번에 꼭 반영을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金聖順委員** 문화재청장께 끝으로 묻겠습니다.

백제역사 678년 중에서 무려 493년간이 한성백제시대인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몽촌토성에서 240점이 발굴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서울대박물관에 있지요. 또 풍납토성에서 2,200점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재연구소와 한신대박물관, 서울대박물관 이렇게 발굴기관에서 각각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한성백제국립박물관을 규모야 어떻든 간에 이것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文化財廳長 徐廷培**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준공이 되면 제가 종합적으로 보존하는 관련방안을 강구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역사를 소개·전시하는 박물관 전시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지원요청할 경우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聖順委員** 타당성조사는 언제 합니까? 타당성조사하는 데 한 3,300만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립 타당성조사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財廳長 徐廷培** 그 문제는 서울시 쪽하고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金聖順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漢久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元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雄委員 金元雄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 새 만금사업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류하고 더 검토해야 됩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각 부처별 소관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최종 수합하고 있는 단계이고 환경부는 아직 소관 사항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이 제출된 다음에 부처간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밟은 뒤에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元雄委員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텐데 그 답변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간척사업이 주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새만금호 수질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또 갯벌보존에 대해서 새롭게 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기에 따른 다른 나라의 주요정책 사례, 네 번째는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해서 전주권 개발을 제한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어서 전주권의 공장신설도 안 되고 녹지로 전부 묶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개발제한 정책에 대해서 전북도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만금호의 수질회석을 위해서 금강상류에 있는 용담댐 또 하류에 있는 금강호에서 연 10억t의 물을 지금 만경강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이럴 때 금강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에 대한 수질검토나 생태계 변화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양수산부와 의 환경업무 논의가 있었으면 그에 대한 사항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부장관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을 진학 안하는 고교생에 관한 기술위탁교육을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50여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태 또 부작용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31일 청와대 본관에서 500미터 거리에 있는 경복궁 후문 경비초소에서 근무중이던 서울경찰청 101경비대 소속 경찰 두 명이 장난을 치다가 권총이 오발되어 그중 한 명이 숨졌다 이런 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경복궁 후문 경비초소는 대통령집무실에서 얼마나 거리가 멍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金元雄委員 제가 실무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한 500미터쯤 된다고 얘기하는데 경복궁 후문 경비초소는 데가 위치가 맞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초소의 정확한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런데 경복궁 후문 경비초소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그때 경비초소라고만 나왔지 어느 초소라는 것은……

○金元雄委員 알겠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권총이 오발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난을 치다가 오발되어서 오살된 것입니까? 사살한 것입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작년 5월 일이라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둘이, 같은 순경이, 동기생으로서 고향도 같은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런데 사살인지 오살인지는 지금 자세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그때 장난치다가……

○金元雄委員 장난치다가 오살되었다. 오발되어서 그중 한 명이 숨졌다 이게 경찰발표입니다. 발표내용이 그렇습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예, 그렇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래서 결국은 사살자인 김기성 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한 사실은 있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그때 구속했습니다.

○金元雄委員 업무상과실치사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그렇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사살이 아니라고 보신 것 아니겠어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金元雄委員 그 당시의 경비업무일지 같은 것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수사내용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警察廳長 李茂永** 그때 그 사건은 종로서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경찰 자체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예, 검찰에 송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런데 사고발생 직후에 사실은 진상규명과 경찰의 기장을 바로 세우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진상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그 사실 아십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金元雄委員** 김영화 당시 종로경찰서장이 사고 직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외곽에서 경비를 서는 근무자가 권총에 실탄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손질하다 오발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고경위는 보안상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버틴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일차 그렇게 되었다가 나중에 구체적인 사실을 밝혔을 것입니다.

○**金元雄委員** 그러다가 숨진 김정진 순경의 아버지 김종원 씨와 그 가족들이 사인에 의문을 제기하니 뒤늦게 청와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는 초소라고 밝힌 적이 있으십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초소 위치는 제가 아까 모른다고 말씀올렸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런데 권총에 실탄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손질하다가 오발사고가 났다고 당시 종로경찰서장이 이랬는데 이것 근무중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근무중에……

○**金元雄委員** 근무중에도 권총을 손질합니까? 총기손질을 합니까? 근무중에는 총기손질 안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각 초소에서 혼자 근무하니까 총기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그때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종로경찰서에서 한 말입니다. ‘청와대 경비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수사하고 밝힐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달라.’ 이런 분위기 이해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 납득이 되시냐고요.

○**警察廳長 李茂永** 작년 5월 일이라 그 분위기가 지 제가……

○**金元雄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다 모르신다고 그

러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작년 5월27일부터 6월1일까지 金大中 대통령께서 러시아와 몽골을 방문하셨습니다. 金大中 대통령 귀국 하루 전인 5월31일 오후 2시35분 지금 청와대 후문이 아니라 대통령집무실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제55초소, 55초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청장님, 55초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警察廳長 李茂永** 잘 모르겠습니다.

○**金元雄委員** 그것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지 500m 밖에 안 떨어진 초소입니다. 여기에서 근무 중이던 김기정 경장이 김정진 순경을 말다툼 끝에 사살했습니다. 이튿날인 6월1일 金大中 대통령을 수행했던 안주섭 경호실장이 귀국하자 李茂永 경찰청장 당시는 서울청장이신데 그러셨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金元雄委員** 지금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朴金成 당시 101경비단장, 누구인지 아시지요? 김영화 당시 종로경찰서장, 이효진 당시 경호실차장 등을 불러서 같이 구수회의를 한 결과 당시 종로서장이 책임을 지고 청와대 안이 아니라 청와대 밖에서 즉 종로경찰서 관할지역에서 총기오발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하자는 결론을 내리신 적이 있으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기억에 없습니다.

○**金元雄委員** 기억에 없으십니까, 이런 사실이 없는 것입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 한 일은 없습니다.

○**金元雄委員** 지금 이 자리는 국회의 예결위원회입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예, 알고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리고 언론에 종로서장이 발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金元雄委員** 그리고 나서 사망한 경찰이 속해있는 101경비단 소속 중대장만 직위해제를 하고 그러니까 사망자 김정진 순경의 아버지인 김종원 씨 등 가족이 사인규명을 요구하면서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이야기하니…… 김영대 차장이 경호실차장 아니십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예.

○**金元雄委員** 또 이화영 씨가 현 종로서장 아니

십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예.

○金元雄委員 그분 둘이서 나서가지고 상당액의 금품을 유족들에게 주고 이를 무마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그것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金元雄委員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사망한 김정진 순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장을 했습니까, 화장을 했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그것도 지금 기억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물으시니까……

○金元雄委員 화장을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대부분이 화장을 하게 됩니다.

○金元雄委員 그러면 지금 김정진 순경의 사체부검서를 한번 자료를 줄수 있겠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예,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金元雄委員 검시조서 이런 것도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金元雄委員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사실 국가안위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도 충기를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하물며 101경비대가 어떤 곳입니까? 청와대의 경비를 맡고 있는 조직입니다. 국가원수의 안위, 국가안위와 직결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충기를 갖고 동료들 사살하고 그것도 당사자들이 경비근무 중이었다는 것도 심각성을 더해줍니다. 이 사건을 일부 경찰의 단순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이것은 경찰 조직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강해이현상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책임자 문책은 기강확립차원에서 엄중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그 당시 이 사건은 신문지상에도 다 보도가 된 것으로는 기억이 납니다.

○金元雄委員 구체적으로 이런 사실로 된 것이 아니고 발표대로만 주로 나왔었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그리고……

○金元雄委員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지금 공권력에 의한 진실왜곡사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2의 김 훈 중위 사건과 같은 의문사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이것은 명확하게 밝혀진 사건입니다. 검사입회하에 모든……

○金元雄委員 밝혀지지 않고 은폐한 사건 아닙니

까?

○警察廳長 李茂永 이것은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고……

○金元雄委員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만 발표가 된 것이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또 검찰에서 와서 조사를 다 끝냈고 또 지휘책임을 물어서 징계양형규정에 의해서 소대장, 중대장, 경비과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처분을 한 바 있고……

○金元雄委員 이것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찰이 청와대 후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복궁 후문쪽에서 사건이 났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서 이 사건이 났다고 발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대통령집무실에서 500m밖에 안되는 55호 초소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여기서 은폐되었습니다. 하나는 사건 발생장소 또 하나는 사건의 내용, 이것은 실수에 의한 오발이 아니라 사살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 업무상 과실치사’로 했는데 이것이 사살인데 업무상 과실치사입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오랫동안의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 영·호남의 균형 있는 그러한 인사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출신지역의 출신에 대한 우대는 좀 넉넉하게 봐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요부서의 지휘관이 특정지역출신만으로 짜여 있음으로 해서 조직적 진실은폐, 조작이 가능해졌다는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전 경찰의 지금 희망이 바로 수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안색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지는 그런 경찰지도부를 일선경찰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漢久 다 끝나셨어요?

○金元雄委員 예.

○委員長代理 李漢久 다음은 민주당의 李洛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洛淵委員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이번 朴金成씨 사건은 대단히 저급한 인사스캔들이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정권에 부담을 주었고 경찰조직에는 깊고 넓은 내상을 남겼습니다. 호남사람으로서도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오신 많은 장관님들 모두

인사권자시니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인사 좀 잘하세요. 호남사람이라고 부적절한 사람까지 부적절한 자리에 중용되는 것 호남사람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호남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저도 호남사람으로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인사 잘하세요. 인사의 성패는 뭘 줄 아십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 조직원들이 또는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 하나, 수용 가능하나,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액셉터블(acceptable)하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일부 야당위원님들 발언 도중에 여당위원님들 몇 분이 격렬하게 반발해서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격렬하게 여당위원님들이 반발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위원님들의 발언이 꽤 가학적으로 들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상대를 가학하면서 본인은 즐기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반발이 더욱더 감정적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지역문제를 거론할 적에는 고뇌해야 되고 상대에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예산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46.6%나 깎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2세의 교육이 스타트 라인에서, 아니면 그 도움닫기단계에서부터 불평등해지는 일을 막자라는 사업일 겁니다. 이걸 깎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더 더욱이나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로 한다는 건데 이걸 무슨 발상입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부모 중에서 정말로 저소득층에서 유치원도 못 다니는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비교육적인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문화관광부장관께 여쭙습니다.

문화예산이 1%를 넘은 지 2년째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오는 게, 느껴지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예산이 1% 넘었다는 것이 사실은 서양 구미 선진국에도 그리 흔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보여져야 될텐데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문화가 그러면 뭔가, 문화예산 1%시대에 뭔가 하는 것이 별로 보여지지 않는다, 더 더욱이나 모처럼 문화인출신의 장관이 오셨는데 그 장관님의 얼굴도 별로 이 예산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행히 경기장의 시설은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월드컵 본선 참가팀들이 공식적인 본선경기 전에 연습경기도 하고 훈련도 하게 되는데 잘못하면 그것을 죄다 일본에 뺏길 것 같다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월드컵이라고 하는 게 경기만이 아니고 경기 이외의 것,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일본하고 비교되는 그런 계기가 될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너무 방대한 분량이 될테니까 혹시 서면이 있으면 좀 제한해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과의 메워질 수 없는 격차만 확인하는 그런 잔치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쭙습니다.

노벨평화상 다음에는 웬지 노벨문학상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부가 다 할 일은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문화관광부로서 어떤 전략이 있다 그러면 밝혀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聖順 위원님께서 국악FM방송 얘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립국악원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서 인건비만 있으면 되겠다는데 이게 각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기왕이면, 기왕에 준비가 된 것이라면 불과 11명이니까 인건비를 해서 국악FM방송이 개국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초·중·고교생들 대상으로 한 국악강사 풀제 이게 사업비가 20억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여쭙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강화, 고창, 화순의 고인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3개 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고인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고창, 화순 그 인근 영광, 함평 또는 영암 하는 그 벨트는 고인들의 보고입니다. 고창과 화순만에 국한되지 않게끔 그 벨트 일대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차제에 이 고인들의 보존이라든가 하는 것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문화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고인들지도 같은 것을 한번 작성한다는 야심적인

계획도 좀 가져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예산이 매년 잘리고 기획예산처, 나와 계십니까? 이것을 매년 전년 답습주의로 지난해에 1,100 얼마였으니까 이번에도 1,100 얼마만 해라 그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 같은 것도 좀더 활기차게 되어야 될 건데 98년부터 시도되었다가 계속 좌절되고 있지요? 이것은 문화재청장님은 필요하다고 답변하실테니까 기획예산처장관님께서 왜 해마다 깎는지, 무슨 배짱으로 깎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국정홍보처장께 여쭙습니다.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국가 이미지 홍보사업 예산이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가이미지 제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정권적 차원의 그런 홍보활동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는 좀 대담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노동부장관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노동계에서는 내년 2월이면 실업자가 13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실업대책예산은 태평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업사태를 어떻게 전망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인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양이 많다고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漢久** 다음은 한나라당의 黃祐呂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委員**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 중에 1분을 할애해서 동료 金洪信 위원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양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洪信委員** 金洪信입니다.

지금 제가 비행기록을 받았는데요. 비행기록에 5월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록 자료를 다시 주셔야만 점검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청장님께, 금방 답변하시기 어려울지 모르는데 행자부장관이 11월27일 해외출장을 가서 12월3일에 오셨습니다. 이때 尹雄燮 당시에 서울청장…… 이분이 청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는데 12월5일 오후 4시경에 李茂永 청장께서 혹시 청와대에 들어가셨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러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습니

까?

○**警察廳長 李茂永** 12월5일입니까?

○**金洪信委員** 예, 12월5일 오후 4시경에 청와대 들어가셨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그날 인사내정 받으러 갔습니다.

○**金洪信委員** 그날 내정을 받았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내정결재를 받았습니.

○**金洪信委員** 오후 4시경이 맞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예.

○**金洪信委員** 그러면 그전에는 청와대에 들어갔거나 통화……

○**警察廳長 李茂永** 없습니다.

○**金洪信委員** 연락받은 적이 없고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金洪信委員** 그러면 내정소식은 바로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제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치안정감급 인사내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내정결재를 받았습니.

○**金洪信委員**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도 답변시간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委員** 경찰청장께 간단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79억원으로써 전년의 410억에 비해서 무려 280% 이상 증액되어 있는데 그중에 무인속도측정기 도입에 관한 인상분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인속도측정기 도입과 관련한 예산의 지출은 낭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고 또 99년도에는 불용액 발생도 하고 여러 가지 구매과정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가격의 산정방법과 구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장비는 가격이 대수가 많을 때에는 좀 감액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 300대분과 내년 600대분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매방식의 개선방안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黃祐呂委員** 그다음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도 내년에 750대, 2002년에는 650대, 2003년에는 1,043대를 새로 도입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黃祐呂委員 그런데 이미 670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대단히 확대되는 예정인데 이렇게 기계에 의해서 비인간적으로 단속을 계속하시고 또 운전자들은 이것에 대해 대항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달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과태료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98년도에 82억, 99년도에는 576억, 올해는 벌써 592억, 내년에는 1,051억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장비를 계속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경찰관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로 나가는 것도 있고, 단속상의 여러 가지 잡음이나 부패고리도 차단하는데 무인단속장비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OECD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이나 사망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등 여러 군데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祐呂委員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단속경찰관 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일괄해서 상관관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알겠습니다.

○黃祐呂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2년만에 열 배가 훨씬 넘는 과태료의 목표를 세우고 계신데,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고발신고 보상제도에 대한 예산을 236억 원이나 책정했는데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자동판독장치가 10개년 계획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99년도에는 6억이었다가 지금은 3억원 정도로 절반이 인하된 것으로 예산상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독장치는 오인율이 40%나 된다면서요?

○警察廳長 李茂永 제가 그것을……

○黃祐呂委員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을 대당 4,000만원에 설치하는데 노후장비의 보수비용은 4,700만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보수를 많이 하는 장비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찰행정기관 보상금을 이번에 많이 책정했습니다.

기관운영 보상비로 459억원을 책정했는데 99년도에는 98%인 369억원을 가계지원비로 전용했어요.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사기진작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그것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黃祐呂委員 경찰의 사기에 대해서는 청장님 못지 않게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합니다마는 경찰의 사기에 대해 오늘 오전에도 우리 야당이 주축이 되어서 간곡하게 충정의 얘기를 많이 나눈 것으로 압니다마는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사를 엄정하게 하시고, 6년에 걸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불과 2년8개월만에 초고속으로 하고, 여러 가지 물의와 잡음이 따르고, 또 반대로 한꺼번에 그 우수한 경찰간부 네다섯 명을 옷 벗게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해도 보상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경찰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대령을 갑자기 중장으로 몇 단계를 뛰어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직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야를 막론하고 청장께 대단한 유감과 비난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黃祐呂委員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고, 청장의 결연한 태도로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 간단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가 인천의 옥련동이라는 데 주둔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나니까 여기에 기름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처럼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옵니다. 미군부대가 주둔한 곳에 전체적으로 환경조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環境部長官 金明子 주둔한 곳을 말씀하시는데 미군부대 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黃祐呂委員 둘 다 얘기합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저희로서는 미군부대 내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할만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黃祐呂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둔했다가 이전한 곳 말입니다.

○**環境部長官 金明子** 최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黃祐呂委員** 지금 시간이 워낙 촉박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몇 군데가 주둔하다가 이전했는데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 어떠한 환경조사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떤지 장관으로서 얘기를 해주시고 교육부장관께 물어볼 말씀은 무엇보다도 대학입시제도입니다. 대학입시제도가 오늘 수능시험 결과에도 나왔지만 매년 달라지고 기준부터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단히 당황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썼길래 금년도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특히 서울대학 입학시험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최근에 논란되는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부담은 얼마였으며 또 앞으로 교원정년단축으로 교사 1인당 국고가 얼마나 경감되고 국고에 이익을 주었는지 오히려 부담을 주었는지 그 점에 대한 것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漢久** 다음은 민주당의 辛基南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辛基南委員** 辛基南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안 계신 것이 좀 아쉬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제부처장관만은 아닙니다. 예산 없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처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회문화 분야에는 대정부질문도 그렇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얘기할 대상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처장관이 경제장관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실장이 나와 계시다면서요. 대답은 못하시더라도 유념해서 들으시고 장관께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예상치 못한 서울경찰청장 학력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계신데 심기일전하셔서 평소의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력적으로 일해 온 대로 계속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 지리산지구 전적비 가보셨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예, 가보았습니다.

○**辛基南委員** 최근에 가보았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최근에는 제가 지방순시 다니면서 헬리콥터에서 보았고 93년도와 94년도에 전북지방경찰청장 할 때와 96년도에 전남청장할 때 헬기로 가본 일이 있습니다.

○**辛基南委員** 기회 있을 때 한번 가보십시오.

전시관의 규모나 내용이 너무 초라합니다. 없으니만 못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너무 뒤떨어졌어요. 지금 남북교류·화해·통일시대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념교육, 체제교육 이런 것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도 이것을 개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협조해서 가지고 안의 내용물 전시를 잘 해야 됩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알겠습니다.

○**辛基南委員** 가보면 애들 장난같은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이것은 1950년대, 60년대 그 당시 정보부가 내용물을 채운 그 내용입니다. 지금 남북통일시대에 그 내용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바꾸시고요.

지금 거기 보면 또 전부 군작전 위주로 되어 있어요. 경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빨치산전투는 경찰이 주도한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警察廳長 李茂永** 그렇습니다.

○**辛基南委員** 그런데 그 이후 군세력에 밀려서, 경찰이 밀려 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그 공을 전부 그쪽에 빼앗기고 있는데 선배호국경찰들의 활약을 후배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정신이 계승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6·25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죽고 했습니까? 그것을 후배경찰관님들이 좀 잘 받드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알겠습니다.

○**辛基南委員** 복지부장관님께, 역대 정부가 지역건강보험재정 50% 국고분담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어요. 이 건강보험재정은 파탄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현재 30%인 분담률을 2005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공약한 대로 2003년까지 임기 내에 50%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중간선으로 2002년까지 40%는 확보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최소 35% 정도는 달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 30% 가지고는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2,100억을 증

액해서 올려 냈지요? 그렇게 되면 35%선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 이것이 생산적 복지의 핵심적 제도 아닙니까? 4만명 정도가 내년에 대상자로 추산이 되는데 정부예산 500억 가지고서는 1만6,000명밖에 소화를 못해요. 나머지는 안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활공공근로의 대책 그리고 자활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성패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지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태도를 종합평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고 인센티브제도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 그리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정부조직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로 승격을 하고요. 21세기 국가발전은 인적자원 개발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225개 인적자원관련업무가 28개 부·처·청에 산재해서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각국에서는 다 인적자원정책 추진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국가수준의 정책비전제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추세를 따라가야 합니다. 각 부처가 각기 추진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해서 조정하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부총리로 승격해야 한다, 이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실업대책예산이 작년의 54%에 불과합니다. 9,00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그 중 65.3%인 6,000억밖에 안됩니다. 실업대책예산의 증액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동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의 적정규모 그리고 소요예산규모를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관광부장관, 우리나라 해외문화원의 예산규모가 이것이 잘못된 통계가 아니고 맞는 통계인데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린다는 문화원의 예

산규모가 일본의 0.3%이고 영국의 0.6%, 독일의 1.9%, 프랑스의 0.2%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문화를 홍보한다 어쩐다 하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예산을 쓰지도 아니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전파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0.3%, 0.2%가 됩니까? 3%, 2%도 아닙니다. 가보면 임대료 내느라 급급해요. 예산이라는 것이 임대료 예산밖에 없어요. 사업같은 것은 못합니다.

일본에 있는 문화원 얘기만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원을 가보면 비참합니다. 문화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년 예산에 주일한국문화원 청사신축비를 예산처에서 안되어서 상임위에서 겨우 100억 정도를 넣어놓았어요. 지금이 청사를 신축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경기가 바닥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장만해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예산실장은 예산처장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문제인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3억이 예산처에서 배정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삭제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생활체육육성 방침에 위배됩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논리적 근거는 생활체육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과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해야지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매우 옳지 못한 논리입니다.

매사를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억지입니다. 정치논쟁에 국민의 생활체육이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체육이 가뜩이나 선수육성 위주의 체육으로 가 있습니다. 엘리트 위주인데 이러면 안됩니다. 국민생활체육으로 중점이 옮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다 국가 예산으로 육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기금은 이것은 보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교육센터 지원예산도 20억 중에 10억 밖에 안되었는데 반드시 증액되어서 금년 7월에 출범하는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쫓가리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경기도에서 80일 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 세계 모든 도자기 문화가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가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도자기 문화수준을 세계에 과시할 기회가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사업인데 국비지원이 78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년 정부예산에도 28억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의 10% 정도에 불과한데 다른 문화행사지원율과 볼 때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불공평합니다. 경주문화엑스포는 31.8%, 강원국제관광박람회는 37.7%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도자기엑스포가 어째서 그렇게 홀대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에 지원하기로 한 68억 수준은 꼭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漢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文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委員 오늘 사회문화분야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어지러워서 국민들이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고통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볼 때 저는 우리 경찰이 바로 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위권력층에게 경찰은 큰 존재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서민들에게 경찰은 생활 속에 불가피한 일부분으로써 요즘 같으면 음주단속도 해야 되고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사고도 처리해야 되고 교통신호단속부터 시작해서 경찰이 제대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많이 따지고 있지만 경찰이 바로 되도록 하는데 우리도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경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선 李茂永 경찰청장님께서서는 포돌이, 포순이부터 시작해서 홍보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서 외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거두었는데 또 실제로 경찰이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점은 좋은데 이번에 인사문제를 통해서 청장으로서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와버린 것이 아니냐, 본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미 국민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찰의 총수가 도덕적으로 심상하게,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권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지경까지 와버렸지 않느냐, 캐시미어 양복이다 헬리콥터다 이런 것을 다 떠나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보기에 인사의 잘못된 중심에 이무영 경찰청장님이 계시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저는 정말 李茂永 경찰청장께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을 사랑하신다면 지금쯤은 용퇴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존경하는 金文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우리 경찰이 민주화·중립화·투명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사퇴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가장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 아니냐 그런 질의입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아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모두 발언에서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9년 전에 그런 불비된 것이 이런 업보로 나타날 줄은 저도 몰랐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보다 투명성있게 치밀하게 인사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계속 계셔야 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지금 대통령께서 노벨상을 수상하고 돌아오시면 국정에 일대 쇄신책을 발표하시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발표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리 말씀을 드려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저는 그만 두시겠다고 그러면 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미련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기록을 볼 때는 李茂永 청장 자신도 경무관에서 치안정감으로 올라가는데 한 5년 걸렸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예, 오래했습니다.

○金文洙委員 5년 걸렸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거의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91년도부터 95년 7월……

○金文洙委員 여기 인사기록카드를 제가 볼 때는 88년에 총경이 되셨네요. 94년에 전북경찰청장으로 경무관이 되셨고 그리고 치안정감이 된 것은 98년

이네요.

제가 여러 가지 인사기록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사실 그만 둔 朴金成 전 서울청장은 2년8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 李茂永 청장보다 특별히 유능하다 그런 느낌은 전혀 인사기록을 봐서는 못 느끼겠어요. 어떻게 자신보다도 朴金成 청장이 특별히 유능한 사람인지 아니면 시절을 잘 만났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뭔가 상당한 실세의 주문 또는 요구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文洙委員 능력이 특별히 있었나요?

○警察廳長 李茂永 아까도 말씀올렸습시다라는 경기도가 약 팔백칠팔십만의 인구가 많은 데입니다.

○金文洙委員 저도 경기도에 삽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거기서 나름대로 큰 대오가 없이 그리고 개혁성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했던 이런 추진력 이것을 높이 평가했고 평상시에 지휘력이라든가 또는 리더십이 탁월하다……

○金文洙委員 그런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점점 더 실망을 해서 우리 청장님 자신의 자리가 더욱 위태로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질의를 안 하겠고 그리고 사직동팀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셔서 사직동팀을 해체했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해체했습니다. 金文洙 위원님께서 작년이맘 때 많은 지적을 하셔서 가지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어땠든 간에 큰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하다가 대통령님의 결단에 의해서 그때 해체를 했습니다.

○金文洙委員 저는 솔직히 그때 답변을 들을 때는 우리 청장님이 돌아가서 바로 해체시키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1년이 걸려서 해체가 되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아닙니다. 金文洙 위원님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때 약속을 했고 축소를 많이 해 나가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해체를 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사직동팀의 그 업무가 어디로 갔느냐, 제가 대통령비서실장님한테도 질의를 해보면 잘 모르겠다는 것인데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사직동팀의 고

유업무가 어디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그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습니다.

○金文洙委員 이관이 안되고 없어졌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예, 청와대비서실에서 알아서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 경찰청에 있는 특수수사과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진정, 탄원이 들어왔을 때 또 조사필요성이 있을 때 과거에는 사직동팀으로 보내서 내사를 했다가 또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통보도 해 주던 그런 기능이 바로 특수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해 나오는 이런 경향이 많아졌다 그리고 내사기능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아주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직동팀의 원래 예산이, 조사과 건물유지비로 썼던 예산도 있고 청사유지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경찰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사직동팀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이렇게 합디다

여경기동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개수 중이다 또 기동대 청사유지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예산을 삭감 안 할 계획이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전 경찰관서의 건물관리비는 다 붙어 있습니다.

사직동팀이 쓰던 여경기동대가 쓰던 보일러비라든지 수리비 이런 것은 같은 건물을 유지……

○金文洙委員 그대로 변함이 없다……

○警察廳長 李茂永 예, 그 건물은 여자경찰기동대가 숙소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래서 그것을 목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 점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警察廳長 李茂永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다음에 이 사직동팀의 옷로비부터 시작해서 요즈음 나온 한빛은행사건 때까지 많은 문제, 이 정권에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던 각종 권력형 비리 은폐, 부당한 직권남용을 통한 개입 이러한 사건의 책임자였던 사직동팀 조사과장, 지금 최광식 조사과장이지요? 은평경찰서장으로, 총경으로 나갔다가 이번에 또 경무관급으로 승진했나요?

그래서 경찰청 총무과 개혁기획단이요? 개혁추진단장이 되었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金文洙委員**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승진을 시켰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최광식 총경을 경무관으로 승진시켜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아닙니다.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청장님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입니다. 작년에 되어야 될 사람이 여러 가지 언론에 또는 그런 송사에 걸리다보니까 좀 불이익을 받았습시다.

○**金文洙委員** 그동안의 여러 가지 권력 핵심의 비리와 문제가 되었던 갖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잘 지키고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잘 지켰다 이런 포상성격은 아니네요?

○**警察廳長 李茂永** 그것은 아닙니다.

○**金文洙委員** 알겠습니다.

○**警察廳長 李茂永** 기자들한테 물어보아도 아주 여론도 좋고……

○**金文洙委員** 우리는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 번 접해 봤는데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 났는데 경찰에서 호텔을 분실로 쓰고 있다는 것, 이런 기사 보셨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봤습니다.

○**金文洙委員** 롯데호텔, 하얏트호텔, 힐튼호텔, 웨라톤, 웨스턴조선호텔, 하얏트호텔은 용산경찰서를 위해서 별관내 일부 공간을 분실로 제공하고 있고 롯데호텔은 연회장 건물 3층 내에 남대문경찰서를 위한 별도 사무실, 일명 502호를 마련해 놓고 힐튼호텔에는 본관 23층에 남대문경찰서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고 웨라톤 위커힐에서는 동부경찰서를 위한 분실, 웨스턴조선호텔은 남대문경찰서를 위한 분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지요?

이런 분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위원님, 그것이 이렇습니다.

○**金文洙委員**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있었다고 그러합니다.

○**金文洙委員** 그럼 지금 없습니까? 지금도 있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있는데 앞으로 없애도록 하겠다 이

것이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외국의 귀빈들이 자주 옵니다. 경호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서 수십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오던 일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롯데호텔 파업 당시에 롯데호텔에, 다 아시는 것처럼 테러특공대를 투입을 했지요? 그렇지요? 솔개부대……

○**警察廳長 李茂永** 위원님 솔개부대라고 그러시는데요 그것이 특공대입니다.

○**金文洙委員** 별칭이 솔개부대 아닙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별칭이 아니고 무전부호로 이렇게……

○**金文洙委員**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온 여름에 엄청나게 뜨겁게 문제가 많이 된, 여직원들이 사산을 했다는 등 또 맞아 가지고 다친 이런 것은 제가 여기 본회의장이나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번 제시했기 때문에 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 호텔측에서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상시적으로 호텔측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경찰이 호텔을 일정하게 영업을 보호해 줄 필요도 있지만 노사관계나 이런 데에서도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분실의 제공 또는 여러 가지 이권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존경하는 金文洙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외빈행사 등 경호업무 수행시에 필요한 기간, 그 시간동안만 유료로 해서 경호시 필요할 때만 쓰고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것은 다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리고 지금 경찰이 민주화된다고 하지만 지금 노조측에서 저한테 제기하는 것은 과잉폭력 진압, 예를 들면 솔개부대라는 대테러부대를 올해 투입한 것도 87년 대우자동차의 파업, 87년이라면 우리나라에 파업이 너무 심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투입한 이후에 13년만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최근에 11월1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때도 많은 부상자가 생겨 가지고 경찰청에 아마 우리 당에서도 각 법조인이든지, 위원들이 방문했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金文洙委員** 조사하러 왔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金文洙委員** 그리고 지금 또 12월8일 이랜드 중계점에서 진압을 하면서 많은 중상자들이 발생한 것 그것은 아시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진압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경찰의 티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더 격렬한 시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부상자들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여기 사진에 보면 머리가 다 찢겨 가지고 수술을 하고 껌 자국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또는 제시하는 것을 보면 이런데 이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 아닙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저희 경찰이 여러 시위를 진압하고 있습니다마는 합법적인, 평화적인 시위는 저희가 보호하고 보장하고 안내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불법폭력시위로 처음부터 아주 각목을 들고 나와서 폴리스라인을 무참히 그냥 짓밟아 버리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부딪치는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옵니다마는 부상자는 경찰이 훨씬 많습니다.

○**金文洙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테이프를 여기서 한번 같이 들어 볼까요? 비디오테이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셔서 가지고 서울청에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또 NGO 단체에서도 같이 와서 보시고 나중에 판단을 하겠다고 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부대의 교양훈련을 더 강화해서 안전진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이것이 지금 경찰청에서 2000년4월에 만든 '경찰인사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읽어보니까 내용 참 좋은 것 많이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인사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대통령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렇게 써 놓은 홍보와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

지요, 어떻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경찰인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金文洙委員** 고위직은 좀 이것과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警察廳長 李茂永** 이번에 박금성 청장 학력 허위기재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는 아직 없으시나 이거예요?

○**警察廳長 李茂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漢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柳在珪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珪委員** 柳在珪 위원입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노동부에서 내년 2월까지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주당 40시간으로 줄이고 주 5일 근무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보다 52일이 줄게 됩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는 140일, 일본은 129일에서 139일, 영국은 137일 등으로 선진국보다 더 많은, 우리가 세계1위라는 이러한 166일이 되는데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지 또 단축할 필요가 있다면 생리휴가를 폐지하던가 또 할증임금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연간 공휴일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업대책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은 내년도 연평균 실업률이 3.6%, 실업자수는 80만명 대라는 추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결과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직자 재훈련비가 금년도 1,442억원에서 내년도 1,296억으로 감액계상되었고 실업자직업훈련비도 금년도 256억에서 내년도 202억으로 감액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볼 때에 실업률이 내년도에 4.6%, 실업자수가 1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 이 예산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에 대한 실업훈련비를 다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1조8,666억원에서 금년도에 52.9%가 증가한 2조8,53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제도시행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조건부 수급자들이 하루 1만9,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공공근로수입이 소득으로 잡혀 다음 생계급여 산출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기피하고 있고 또 월급 95만6,000원 이하인 근로자들의 경우 힘들게 한 달 일한 것보다도 일 안하고 자기보다 더 많이 급여를 받을 때 느끼는, 근로의욕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또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었다 하는 국민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도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해서 당초 92만8,000원에서 95만6,000원으로 올랐고 또 대상자도 11월 초에 149만에서 12월 초에 151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매년 대상자가 늘고 물가가 상승될 경우에 우리 큰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현황 분석을 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 전국 경로당 운영비 월 4만4,000원과 난방비 연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국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3만8,452개의 70%인 2만8,580개소에 대해서만 국비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탈락된 9,872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또 난방비 25만원을 줄 적에 평균 5개월로 보면 연간 월 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차라리 전체 경로당을 다 지원을 하고 예산비율을 달리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을 각각 지원하는 것이 좋지 3만8,000개에서 8,900개소는 지원을 안하고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예산배정기준에 어긋나고 또 이것의 지방부담과 국고부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명확히 해서 실비를 지원해달라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훈처장에게 묻습니다.

6·25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또 1인당 최고 2억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6·25 참전용사들에게는 사후에 지급되는 장례비 15만원과 생활보호비에도 못 미치는 참전군인 생계보조비 약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과 6·25 참전의 경중을 비교하는 것은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르겠지만 6·25 참전용사야말로 독립유공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숨 바쳐 지켜온 숭고한 애국자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분들이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하고 후손들에게도 국가수호의 숭고한 정신을 교훈으로 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6·25 참전용사가 우리나라에 한 40만명에 이르고 있고 연령은 65세, 그러면 70세 기준으로 봐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만 살면 40만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네들이 살아 생전 그분네들에게 예우를 하는 국가보국훈장에 준하는 징표를 수여한다는 문제라든가 또 장례비 15만원을 줘 올려서 법정기준의 장례비를 지급하는 문제 또 기념관을 지어서 후손들이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기념관을 지어주는 문제 등 보훈처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묻습니다.

7월20일 환경부에서 국립공원법 개정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의 경우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지역은 규제가 더 강화됨으로써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되는데 거기다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확장, 일체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국립공원법의 저축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이러한 도로포장이나 확장을 얼마든지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그러한 경제행위까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준하는 어떠한 시혜를 주어야 되는데 도로포장도 해주지 않고 이러한 억제만 했을 경우에 굉장한 불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예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규정입니다.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시설설치비의 3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으로서 2001년도에는 16개 시설에 국고 131억7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그중 서울 가양, 울산 북구, 충북 단양 등 3개 시설은 사료화 시설로서 1998년9월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음식물쓰레기자원화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02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50%를 재활용하는데 그중 70%를 사료화로, 나머지는 퇴비화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9년6월 서울 도봉구청에서 수거·가공한 음식물쓰레기 사료를 먹인 포천군 소재 사육농가의 소들이 폐사하였고 영국 등 유럽에서는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광우병이 나타난 바 있고 사료화되어 소나 돼지에게 유통되는 경로와 소비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료화 시설의 설치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환경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오늘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오해를 할까봐 저는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이번 朴金成 치안감의 문제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고 또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이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것, 무학자 학교를 안 다닌 사람도 공무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공무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학력을 공무원의 절대적인 요건으로 아는데 바로 문제가 있고, 이 朴金成의 경우는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그동안에 여섯 등급의 승진을 했어요. 승진때마다 이 사람이 만약 학력을 위조했다면 그 당시에 이것이 발견되었어야 됐는데 발견이 하나도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필 서울시경에 전임됨으로써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제 얘기는 우선 朴金成 총경이 당초에 공무원에 입문할 적에 제출한 인사기록카드가 잘못된 것이지 승진때마다 이것이 절

대요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해명드리고 싶고, 이것이 자칫하면 우리 국민이 보는 시각에서 이번에 서울시경찰청으로 올 적에 혹시 이러한 경력을, 학력을 위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 학력을 위조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자기가 잘못 쓴 것이 이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번에 사의까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제청자나 추천자나 이것을 왜 모르고 제청했느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문의한 것은 나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추천을 할 적에는 우리가 흔히 최종학교 어디 나왔느냐 대학을 나왔느냐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런 것만 해서 올리는 것이지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인사에는 별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서울시경찰청으로 오는 데서 학력을 위조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저는 제가 경험한, 또 이런 인사때 항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문제를 제가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장께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혹시 될 위험이나 한 것마냥 문제를 자꾸 제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법적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漢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朴鍾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根委員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국민연금기금을 실시하고 또 의료보험료 징수차원에서 자영업자를 비롯해 여러 가지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원성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과정에서 다소 민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朴鍾根委員 의료보험료 징수에서도 민원이 있다는 것은 모르십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의료보험료는 각 시·군·구별로 되어 있던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하나의 전국 단위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朴鍾根委員**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실 것 없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보건복지부는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징수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국민의 엄청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득파악을 누가 일선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기초생활보장제도 관계에 대해서 물으신 것입니까?

○**朴鍾根委員** 아닙니다.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관계입니다.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국민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세무서에 있는 각종 공적 자료 등을 활용해서 파악하고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한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鍾根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갑근세 얘기가 아니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직접 파악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鍾根委員** 직원 한사람이 몇 가구를 관장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朴鍾根委員** 한 460 가구 정도를 맡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많이 틀렸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공단마다 좀 틀립니다. 마는 직원 숫자가 달라서……

○**朴鍾根委員** 그런데 한사람이 460 가구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 못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누가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 지역구에서 보니까 통장님들이 이것을 조사하고 있어요. 통장님들이 조사한 자료를 동에서 취합하고 동에서 취합한 자료를 보사부 담당 책임자가 나와서 확인하면서 이러한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말썬이 있다는 사실을 장관님 좀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연관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 시행을 내년부터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소위 복지예산이 기초생활 보장을 포함해서 예산 지출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朴鍾根委員** 대강 얼마쯤 됩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이것은 조금 따로 구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朴鍾根委員**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것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3조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그렇습니다.

○**朴鍾根委員** 그리고 직업훈련을 하는 예산이 또 들어 있지요?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경로연금 등한 2600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이 예산의 대부분이, 또 공공근로사업도 상당부분 확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다양한 예산 지출이 전부 국민소득을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그렇습니다.

○**朴鍾根委員** 기초생활 보장에 관해서 160만명을 상대로 지금 생활보장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의료보호비로 나가는 것, 교육보호비로 나가는 게 1,000억, 자활급여가 2,600억, 의료보호 1조1400억 또 생계급여 약 1조5,000억, 이런 엄청난 돈을 지급하시면서 과연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느냐, 걱정이 태산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의료비, 교육비, 기타 지원 이런 거를 빼 가지고 생계 주거비를 마지막으로 계산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최소 3만2,000원부터 72만9,000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 엄청난 큰 폭을 가지는 이러한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급여를 지급하시는데 과연 이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장관 자신 있습니까? 또 민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저희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수단을 총동원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朴鍾根委員** 보건복지부에서는 맨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약분업 관계에 대해서도 작년에 입이

많도록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민원이 생기지 않느냐, 문제 없느냐,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다 문제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용만 2조 몇 천억이 더 들어가게 결과가 되고 말았지요? 장관 인정하시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직접비용이 1조5,000억 더 들어갔습니다.

○朴鍾根委員 직접비용만 그렇고 간접비용까지 다 합하면 2조5,000억을 추가로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생활 보장도 3조를 넘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과연 소득 파악에 의한 가구별 급여수준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국민의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한 6,00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그것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朴鍾根委員 중복되지 않아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朴鍾根委員 어제서 중복이 안 됩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공공근로는 실업대책으로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중에서 자활사업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두 사업은 중복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朴鍾根委員 그것은 장관께서 제 질의를 잘못 이해했는지 업무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 93만원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朴鍾根委員 그 중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타 지원을 빼고 또 자기 소득을 빼고 차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朴鍾根委員 그 소득에 공공근로소득도 계산이 된다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장관님 모르십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아, 자기 소득에 공공근로로 인한 소득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朴鍾根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중복

이 되는 겁니다. 공공근로에서 번 것은 빼고 지급해야 되니까 대상자는 중복이 된다는 얘기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朴鍾根委員 또 직업훈련도 중복이 됩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대상자 중에서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직업훈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朴鍾根委員 경로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대상가구 중에서 경로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한테는 별도로 부가급여로 경로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朴鍾根委員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93만원 내에는 안 들어갑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이것은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朴鍾根委員 93만원을 초과해서 수혜를 받는 가구도 생기겠네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朴鍾根委員 지금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과연 보건복지부가 민원이 없이 잘 수행할 수 있겠는가 참말로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영자들 국민연금, 의료보험 징수 또 공공근로사업을 과거 한 이삼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말썽,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볼 때 또 이번 의약분업에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장담, 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이 예산집행이 과연 효과적으로 민원없이 제대로 수행될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지금 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아주 걱정했습니다마는……

○朴鍾根委員 우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장관님께서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지금 현재 큰 민원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朴鍾根委員 민원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GDP의 약 5%에 상당하는 25조 상당의 돈을 징수하는 책임과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회보장성 각종 연·기금, 기여금, 보험료 그리고 정부예산 이걸 전부 합하면요. 장관님 휘하에서 움직이는 규모가 약 30조에 가깝습니다. 이 엄청난 국가자원을 관리하시는데 지난번과 같이 제발 민원이 생기지 않고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복지성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에 조세부담률이 한 20.7% 된다는 것은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朴鍾根委員** 그런데 국민복지관계 국민부담률이 한 5% 포인트 정도 차지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률이 이런 복지예산 때문에 25%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복지예산을 관장하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각별하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교육은 왜 사교육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드는가? 공교육에서 뭐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에서부터 제 질의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입시지옥이다 하는 게 있고 또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교육부문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가 말하는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이 잘못된 것 아닌가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까지 우리는 혹시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기본과목 이외에 개인의 특성을 살린다는가 창의력을 살린다는가 21세기에 맞는 어떤 적성을 육성한다는가 하는 이런 분야에 자율성을 전혀 주지 않고 정부가 일일이 다 교육내용까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다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은 수업시간이 얼마며 교육내용이 어떠한가, 그 과목별·시간별 분포에 대한 국제 비교자료를 좀 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제가 2년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도 자료가 없다고 제대로 안 나왔고 금년에도 또 같은 내용의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알 수 없는, 자료가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일은 안 하십니까? 교육부에서……

○**教育部長官 李敦熙** 저희들이 OECD 선진국가와 대비해서 저희들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일부 교과목의 부분에 관해서는 학력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朴鍾根委員** 그것을 국회의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그 연구가 아주 미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정리 잘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朴鍾根委員** 그리고요. 교육부에서는 각 행정부처들과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차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교육인적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부처와 함께 지금 인적자원 개발 관리면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朴鍾根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발전이 다양하게 급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발전의 형태에 따라서 인력의 불균형 부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부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또 과거에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런 불균형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건 5년, 10년을 내다보는 인력수급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또 교육부도 뭐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인력수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년, 10년을 내다보는 내용들이어야 되겠다, 그런 데 맞추어서 산업별로 인력수급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인적개발관리면에서 비능률과 낭비가 없도록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받들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鍾根委員**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朴鍾根委員** 노동부에 공공근로와 직업훈련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공공근로예산의 정확한 액수는 현재 기억을……
 ○**朴鍾根委員** IMF가 발생하고 나서 IMF가 한국 정부에 요구했고, 한국정부의 4대 개혁과제로 선정된 것 중의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朴鍾根委員** 정부의 중대한 4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시장 유연성이 IMF 이전에 비해 지금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까, 별로 진전이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많이 된 것입니다.
 ○**朴鍾根委員** 많이 좋아졌다고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朴鍾根委員** 그렇다면 노동쟁의가 없어야 되는데 노동쟁의가 사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잘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쟁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마는 쟁의가……
 ○**朴鍾根委員**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쟁의가 아무 관계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관계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있느냐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다. 다마는 현재 쟁의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朴鍾根委員** 쟁의가 감소되고 있다고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습니다.
 ○**朴鍾根委員** 공기업이다, 대우다 해 가지고 온천지가 시끄러운데,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시장이 저항하는 소리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구조조정에 저항해서, 고용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쟁의가 나오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해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朴鍾根委員** 전망을 아주 낙관적으로 하셔서 다행입니다. 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조조정도 제대로

로 안 되고, 노동시장 문제도 제대로 안 되고, 실업대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되어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노동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97년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노동시장은 유연화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朴鍾根委員**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실업대책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화시키는 데에 대해서 노동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안이한 인식 가지고 이 노동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의 핵심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漢久** 원래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바로는 7시에 일단 정회를 하고 8시30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오늘은 10시30분에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셔서 식사 후에 계속 질의를 받으시지 정부측 답변을 들을지는 이따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金景梓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예정대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景梓委員** 민주당 金景梓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교육부장관, 국정홍보처장, 환경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문화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짓달 해가 떨어지고 갈 길은 먼데 빨리 할테니까 관계관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청장, 아까 행자부장관에게도 당부했습니다. 다마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인적사항관리 하나를 잘못해 가지고 이토록 나라를 난리를 치게 만드는 것은 백 번을 사죄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경찰의 인적사항과 전산 레코드를 철저히 체크해서 완벽한 레코드를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지요?
 ○**警察廳長 李茂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景梓委員**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교육부차관에게 동시에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지금까지 순수하게 지역감정 해소를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산실장 얘기할 수 있습니까?

○**企劃豫算處豫算室長 朴奉欽** 그런 식으로는 예산편성하지 않습니다.

○**金景梓委員**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예산 중에 지역감정 해소하는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아이템이 있습니까?

○**教育部次官 金相權** 저희 예산 중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항목의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金景梓委員**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동과 서, 남과 북이 높은 담을 쌓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과거 정권들은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의 화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의 갈등을 즐기고 때로는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남과 북 사이에 가로 놓여 있던 벽이 무너지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조짐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남북 화해무드에도 불구하고 동서지역의 벽은 무너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동서 화해무드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되도록 자주 만나야 합니다. 특히 지역감정에 관한 선입견이 적은 젊은 사람들이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슈를 중심으로 공동의 관심 속에서 협동심을 배양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지역별로 경쟁력을 고도화시키고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차원에서 10대 광역권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광양만, 진주 광역권은 동북아 중추 항만도시와 항공산업도시로 육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특히 동서화합 차원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5개 시, 4개 군 지역이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영·호남 협력개발의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관,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教育部次官 金相權** 들어 보았습니다.

○**金景梓委員**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전남의 순천대학교와 경남의 경상대학교는 지리산을 살리는 환경운동과 함께 영·호남 모든 지역민들의 공동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지리산 권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하여

구례와 하동의 중간지점에 지리산권 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운영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존경하는 한나라당 河舜鳳 위원과 같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지리산권 문화연구센터의 설립사업은 호남과 영남지역의 중심대학인 순천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주축이 되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동서지역 간에 권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화합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교육부 예산에 정식으로 올랐다가 계수조정 시에 일어난 혼란 때문에 어이없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예결위에서 동서화합 및 공동체적인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리산권 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교육부차관에게 전달할 테니까 보시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次官 金相權** 알겠습니다.

○**金景梓委員** 다음은 국정홍보처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출범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추락한 상태입니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의 경제위기와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의 실패에 있기는 하지만 국정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측면도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2000년9월 말 기준 예산집행현황에 따르면 국부유출, 국가채무, 사회질서 확립 및 부정부패 척결, 금융개혁, 국민 대화합, 개혁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의약분업 등에 대한 홍보지원이 부족했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잘 입증하고 있어요. 정부의 개혁정책이 역설적으로 민심을 이반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입안·집행하고 그 정책의 수혜자들을 지지계층으로 끌어들이는 뒤에 다시 그들을 개혁의 응원군으로 삼아서 개혁정책의 추진력을 얻어나가야만 했지만 오히려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하나 같이 졸속추진과 국민불편 강화 등의 논란을 빚으면서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 확대, 의약계 부조리와 약물 오·남용을 막을 의약분업 등 복지 관련 개혁안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국민 반발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장, 국민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개혁정책이 표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진출금을 제외한 2001년 국정홍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9억 7,232만원으로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94조9,300억원의 0.03%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 주요시책의 광고사업 2001년도 예산안은 90억원으로 미국 1조1,590억원의 128분의 1이고, 영국 3,744억원의 40분의 1로서 대단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처장은 문민정부 시절에 공보처와 국민의 정부의 국정홍보처의 예산규모를 비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국정홍보처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국가 주요시책 광고사업 8억 2,000만원, 민중공동체의식실천사업 9억5,925만원, 홍보기획 및 국정홍보활동 지원 특수활동비 2억원, 국정신문 발간사업 4,548만원 등 총 20억2,473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홍보처장, 문광위가 국정홍보처 예산을 삭감한 이유와 예산삭감이 국정홍보처 업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삭감을 왜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막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로 대체하기 위한 천연가스, 소위 CNG 시내버스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국고보조 141억800만원은 천연가스버스와 경유버스의 차량가격 차액을 대당 1,125만원씩 보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지요?

○**環境部長官 金明子** 예, 맞습니다.

○**金景梓委員**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서 천연가스버스 도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늘리겠다는 환경부의 사업취지에는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인 고유가 행진과 정부의 에너지가격 체계개편에 따라서 경유가격이 단계적

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의 47% 수준인 경유가격을 내년에는 52%, 2003년에는 61%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유가격 인상에 따라서 경유와 천연가스의 연료비 차이가 커지게 되면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버스운수업자들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스스로 천연가스버스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급규모를 천연가스와 경유의 공급가격 전망에 따라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두 번째 주요질의입니다.

주암호 등 영산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8일 주암호 등 영산강 대권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시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2001년 상반기 중에 수변구역지정관리, 산림의 수원함양기능강화,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확대, 특수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공급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본 위원도 정부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현재 순천시를 중심으로 한 주암호 인근지역 주민들은 다음 11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1.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과 비교했을 때 수질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수변구역지정은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2.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영산강물관리종합대책에 소요되는 연간 1,000억 이상의 투자비 소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3. 환경기초시설 등 소요재원의 70% 이상이 영산강 수계에 투자되도록 되어 있어서 주암호 등

섬진강 수계는 규제만 당하고 사업비의 대부분은 영산강 수계에 지원되는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에 영산강 수계와 섬진강 수계 대책이 분리해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산강과 섬진강 특히 주암호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명칭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친환경농법에 따른 손실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5.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거주자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어업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수변구역 토지소유자의 이주 및 토지매수 희망에 따른 부동산 매입대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7.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수계관리 위원회에 당해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체장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앉아서 적당히 마음대로 만든다 하는 비난이 대단히 많습니다.

8. 영산강환경감시대의 지원단속과 행정처분권 및 수사권 부여로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 및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 영산강환경관리청의 기능을 전라남도도 이관하여 수자원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당해 지자체 수변구역 편입면적에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11. 마지막으로 제외지 하천부지 또는 제방이 없는 하천부지에 대한 친환경자원 이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이상의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11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나오셨어요?

안전청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문광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천년의 문 계획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이 대폭 변경되었다고 그러셨어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그랬습니다.

○金景梓委員 아까 질의했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金洪信 위원이 잠시 언급한 것으로 압니다. 마는 의료보호 체불진료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병원과 의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한 뒤에 받지 못한 돈이 물경 4,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체불진료비가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기피 또는 차별진료의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분업 후에는 약국에서 약제비가 지연 지급될 것을 우려하여 조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2001년도 추가소요분 요구액 가운데 수가현실화 관련 예산 945억원이 계상되지 않았고 의약분업이나 수가인상 등과 관계없이 2001년도 당해연도에 발생할 진료비 부족분, 2000년도에는 1,855억원이었습니다. 등이 예상됨으로 이로 인하여 또다시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운영예산은 주로 건물의 임차료 인상분과 노사간담회 개최 횟수의 증가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예산을 증액하여 전년도 예산 22억8,500만원보다 4억6,500만원, 20.4%가 증액된 27억5,000만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활동은 제1기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제2기의 경우는 그 위상과 관련하여 법제화가 되었으나 제3기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일각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와 관련되는 일반업무비와 기타 위원장 업무추진 활동과 관련된 특정업무비로 구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2001년에는 7억9,000만원, 그 중에 일반업무비 3억7,300만원, 특정업무비 4억7,3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4%인 2억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과 그동안의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용도도 지정되지 않은 노사정위원회의 업무추진비 2억원의 증액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자 출신인 장관의 견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漢久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金景梓 위원을 마지막으로 정회하기로 했습니다. 마는 李在昌 위원께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李在昌 위원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昌委員 李在昌 위원입니다.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청장께, 朴金成 전 청장으로 인해 경찰의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대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인사기록카드가 잘못 기재되었다, 학력을 위조했다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징후이고 경찰이 지금 내부로부터 또 외부로부터 불신을 안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서 거기에 끼지 못하는 많은 경찰관들의 불신이 쌓여있고 또 이것이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청장은 어떤 한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보지 말고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었나 하는 것을 깊이 살펴서 정말 이번 일이 아니라 각종 징후가 또 생겨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국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청장의 소신을 묻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께 묻습니다.

교원정년단축은 구조조정차원에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오히려 인건비가 10.5%나 내년엔 늘어납니다. 이것은 기간교사를 다시 쓰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개혁이었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그간에 얼마 만큼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는 얼마만큼 교원정년제 단축이라는 개혁이 성과를 거두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국립대학교의 입학금수업료는 5%인상하는 데 반해서 기성회비는 사실상 한 3.1배나 되게 많이 받습니다. 문제는 이 기성회비가 법적인 고등교육법 11조나 이런 데 근거하지 않고 규약에 의해서 투명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이 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기성회비를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지, 또 투명성과 또한 앞으로 징수집행이 아주 공정하고 또 글자 그대로 이 기성회비의 목적대로 쓰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교육부예산에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운영비 또 중장기인적자원개발종합정책 추진

비 등 약 20억 가까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 정부조직법도 개정되지 아니한 예산을 계상한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대학교육개혁추진비가 600억이 계상되어 있고 작년보다 100억이나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국립대학 구조조정문제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조조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600억에 대한 내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소위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을 해서 그간에 100만평 규모에 2,000억원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전국의 21개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간에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도 없고 내년 예산에 겨우 6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낭비를 초래하고 또 전시성의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 차라리 좀더 검토해서 하고 내년 예산을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축구트레이닝센터,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훈련장이 될 센터 65억원 중 2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게임산업단지조성지원문제는 21세기 지식정보산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70억원의 지원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악 FM방송에 대한 경영비지원은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도 이것을 지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전체적인 타당성조사는 노무라연구소에서 되었지만 아직 각 단위사업별 타당성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431억이 과연 집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한국방문의 해를 작년엔 31억5,000만 내년에 또 84억이나 계상되었는데 과연 한국방문의 해

가 실효성있는 사업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금년 집행한 결과를 평가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 노동부장관께 묻습니다.

실업자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IMF체제 이후의 실업대책을 평가한 결과 앞으로 100만명이 넘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개선해서 할 것인지 그 방침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노사문화창출추진사업이라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2억9,900만원, 약 13억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노사정간담회, 정책과제추진연구비 이렇게 되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계상한 것인지 답변바라고 본 위원은 이것은 삭감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기를 하면서 묻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사업에 97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활인턴 채용이라든지 자활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 확충운영 등 내용이 상당히 재검토되어야 되고 또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업의 바탕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만 선별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께 묻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소위 소득을 파악하는 한 방법으로 지금 인적 요원을 한 5,500명 이렇게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1,800억원이나 되는데 세무서에서도 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이런 사회복지요원이 자영업자 등 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 과제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각종 수출을 제약할 경우 우리 GDP 성장 0.3%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대비를 잘하면 그렇지만 그냥 현재대로 가면 잘될 때에 10배 정도의 경제적인 영향이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보고 있는

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 보호,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단속에 총 14억7,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야생동식물 보호,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CITES협약에 우리도 가입을 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위 WWF, World Wildlife Fund와 같은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국제적인 신인도도 얻고 항구적으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을 행정부에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漢久**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오늘 질의하지 못하신 분은 내일 하시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에 속개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회의를중지)

(21시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張在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鄭哲基 위원님께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용자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나고 물으셨습니다.

2000년 예산액은 305억원이지만 전년도에 재특회계에서 용자받은 원리금상환액 등을 제외하면 실제 용자액은 207억원입니다. 2001년 예산은 18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용자해준 학자금상환액이 110억원 정도 예상되므로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용자를 하게 되어 실제 용자액은 올해보다 늘어난 290억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기당 용자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려 학자금용자의 취지를 살릴 계획입니다.

또 鄭哲基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유치원 자녀학비 지원예산이 감소된 이유와 유치원에도 못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의 불평등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李洛淵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까 宋錫贊 위원님 질의에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학비 지원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금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학비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에는 112억원이었던 것이 2001년도에는 6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미취원 저소득층 아동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鄭哲基 위원님께서 디지털 디바이드 극복을 위한 학부모 인터넷교실 지원비 10억원을 농어촌지역에 집중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저소득층 학부모를 포함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金容鈞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貞淑 위원님 안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宇澤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元雄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洛淵 위원님 질의는 아까 鄭哲基 위원님 답변에서 함께 했습니다.

辛基南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景梓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화합 및 공동지역 발전을 위한 지리산문화연구센터의 설립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할 의향은 없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지역감정 해소 차원의 동서화합을 위해서 순천대학 그리고 경상대학 교육문화 교류를 위한 지리산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01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李在昌 위원님께서 정년단축의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정년단축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관찰된 결과로써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성과는 좀더 시간을 두고 분석·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

재로서는 정년단축으로 새로 승진된 많은 교장·교감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인사적체가 해소되는 등 교직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새로운 학교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 교육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李在昌 위원님께서 대학의 기성회비 징수와 집행의 투명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학의 기성회비 징수액 결정은 대학마다 설치되어 있는 기성회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결정하는 수업료보다 인상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예산처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기성회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학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통합운영하는 국립대학 특별회계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李在昌 위원님께서 정부조직법 개정 전에 인적자원관련 예산 20억원 반영은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인적자원 개발정책은 정부조직법 개정의 차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이미 12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발족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이 그 의장으로서 각 부처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적자원 관련예산 중 인적자원개발종합정책 추진예산 10억원은 현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인적자원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비 및 수용비, 여비 등 운영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8억7,000만원은 동 위원회가 국가인적자원 개발정책에 관한 각계의 여론수렴 및 정책방향 제시 등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운영비 예산입니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종전 대통령 자문기

구였던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지난 10월에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개편된 것으로써 2001년도 예산규모는 2000년도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李在昌 위원님께서 내년도 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국립대학 구조조정 예산 등 600억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고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대학교육 개혁 지원사업은 600억원으로써 국립대 구조조정을 위해 450억원과 또 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개혁 우수대학 평가사업으로 150억원으로 구분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립대 구조조정 사업 중 200억원은 교원의 연구경쟁력 평가를 통해 성과급으로 차등지원하고 250억원은 국립대학의 체제개편과 운영시스템 혁신을 위해 대학 통폐합 및 학과교환 그리고 행·재정의 효율화 실적 등을 평가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국립대 구조조정사업은 국·사립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고등교육체계의 효율화를 기하고 공적기관으로서의 국립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李在昌委員 장관님, 지금 대학평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 문제가 대학사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조조정을 해서 대학을 바로잡자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 방법을 그렇게 획일적이고 또 행정편의적인 방향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할 때 정말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제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종래 대학평가에서 보면 너무 중앙기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시행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평가는 중앙의 기준보다도 개별대학이 가지고 있는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새로운 평가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李在昌委員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대학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발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많이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알겠습니다.

黃祐呂 위원님께서 수능 등 대입제도가 매년 달라지고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여지고 또 2002년도 서울대학교의 대학입학요강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으셨습니다.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는 학력위주의 전형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학생의 소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98년10월에 예고한 사항을 반영해서 2000년11월 말에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대입제도는 가능한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반드시 3년전에 예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입제도는 학교별로 다양하므로 다소 혼란스럽게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능시험은 점차 대입자격고시화하고 있으며 고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쉽게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으나 난이도 조절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능경비는 총 소요액 174억 중 시험감독관수당 등 시험관리경비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122여억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52여억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 인쇄, 채점, 위원관리, 문제인쇄 경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수능, 내신, 심층면접 등을 활용해서 다단계 전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2002학년도 입시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黃祐呂 위원님께서 정년단축에……

○黃祐呂委員 잠깐만요. 금년 수능시험 결과가 막 발표가 되었는데 수능평균이 작년보다 몇 점 상승했는지 장관님 아십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6.9, 약 7점 정도 상승한 것으로……

○黃祐呂委員 7%가 상승했지요?

○教育部長官 李敦熙 예.

○黃祐呂委員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77점이 나왔는데, 249점이 전년도 평균이었습니다. 27.6이 상승했는데 300점 이상 수험생이 45%를 넘고 또 수험생의 평균점수도 작년보다 26.8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변별력에 있어서 이렇게 매년 차이가 나서야 수능시험의 학생들의 대비나 또 이것을 분석해서 판단하는 대학이나 또 이것을 지도하는 선생이나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수능시험이 진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수능이 쉽게 출제되어서 점수가 대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학생선발의 변별력이 약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엄격히 따져보면 최상위급에 있는 대학에서 문제가 되고 오히려 중간수준의 대학에서는 변별력으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실제로는 출제진에서나 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본래 겨냥하기로는 대체로 77점 내외를 겨냥했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나오기는 점수가 6.9나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겨냥한 바대로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봐야 하겠습니까마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수능이 너무 어려운 것은 실제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금년처럼 예상보다도 훨씬 예상을 빚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점수를 받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출제하는 교수들로서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히려 학생들의 성적수준, 실력수준을 비교적 평소에 잘 체감하고 있는 검토교사의 수를 좀더 증원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이렇게 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黃祐呂委員** 지금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가 되는 380점 이상이 작년엔 6,597명이었는데 올해는 3만5,141명, 다섯 배가 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기술적으로 어렵다, 교수들로서도 힘들었다는 표현을 하고 지나가기에는 학생들이나 교육현장에서, 자기 문제로서 닥치는 가정에서는 이것이 지금 수능시험 가지고 데모가 일어나는 해가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표현들을 보면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점잖게 이야기하시고 천천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좀 교육현장을 심각히 보시고 이러한 학생들 한 명의 운명이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됩니다. “교수들이 하나까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좀 좋아지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학부형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서 여기에 약간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을 전적으로 잘 집행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더 비용을, 예산을 써서라도 좀 정확한 예측가능한 교육정책을 펴셔야 되고 이것 사소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중대한 대학입

학의 문제라는 것을 꼭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입학요강을 지난번에 국정감사때는 11월, 늦어도 12월 초에는 발표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또 늦어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서울대학교가 요강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모집단위를 결정하는 데 아마 학내조정과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되도록이면 빨리 발표해줄 것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黃祐呂委員** 이 점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이 또 학부형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장관님이 좀 느끼셔야 합니다. 느끼셔서 특별히 대학입학시험에 관한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예, 알겠습니다.

또 黃祐呂 위원님께서 정년단축에 따른 재정 부담은 얼마이며 국가부담 재정경감분 규모는 어떤가하고 물으셨습니다.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국가 전체 재정 부담은 연 4,000명에 달하는 예년 수준의 퇴직자를 제외할 경우에 추가 부담 총액은 99년과 2000년 2개년에 걸쳐서 1조6,800억원이 됩니다. 동 기간 중의 절감액은 1조400억원을 차감한 순재정부담은 6,300억원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절감 누계액이 부담 누계액을 368억원 정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년단축에 따른 절감액은 99년도부터 2005년 절감액은 4조4,500억원이나 지방교육 절감액은 2조3,000억원이고 국가재정부담 절감액은 2조1,500억원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黃祐呂委員** 좋습니다.

저에게 내신 자료에 의하면 정년단축 이후 총 4만1,339명이 퇴직했고 퇴직수당으로 지급된 것만으로도 3조1,485억이고 그 중에 정년단축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의 재채용이 2만2,945명이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이것이 사실이지요?

○**教育部長官 李敦熙** 예, 그렇습니다.

○**黃祐呂委員** 그리고 초기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노교사 한 명을 퇴직시키면 젊은 교사를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

고 대단히 인력단축, 효율성을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 현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올해 초등학교 채용이 미달되고 있는 것 장관님, 아시지요?

○教育部長官 李敦熙 예.

○黃祐呂委員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물론 지역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어떻게 해소하시려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教育部長官 李敦熙 제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밝혀 드리면 어떨까요?

○黃祐呂委員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내주시는데 지금 야당의 65세 환원안 법안이 나와 있고 또 자민련에서는 63세 환원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65세로 환원할 때 도무지 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인지 또 63세 안으로 할 때는 어떠한 예산이 추가되는지, 또 지방교육재정의 부담분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교원수급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예, 알겠습니다.

○黃祐呂委員 또 교육부에서 국정홍보처에 의뢰하신 여론조사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았는데 전국의 1,000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신 것인데 보면 20대가 27.8%, 30대가 27.3%, 40대가 18%, 50대 이상이 26% 이라서 이것이 낮아 하신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40대 편차가 너무 작고 또 직업별도 교사들이나 이런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가 좀 의심스러운 자료입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20대는 아직 학부모들이 아닌데 좀 다양하고 충분한 여론조사를 교육부에서 하시려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숫자도 1,000명으로는 전국의 여론조사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단위도 높아서 과연 국민이 어느 방향으로 원하는지를 책임 있는 여론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를 지금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몰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는 것 장관님 아시지요?

○教育部長官 李敦熙 예, 알고 있습니다.

○黃祐呂委員 그 점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시고, 자료 내 주실 때 충실히 해주시고, 아주 솔직하게 정년을 단축함으로써 교사 1인당 비용이 그러면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셔야 교사들이 답답한 것이 풀립니다. 거기에 상당히 응어려져 있는 교육현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것을 한번 자료를 만드실 수 있는가 해주시고, 장관님께 하나만 지적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지금 인현동 화재가 나서 아직도 상당한 학생들이 치료도중에 있고 보상을 못 받고 그런 점은 아시는데 행자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 답변해 온 것을 갖고 있지만 사실 보상문제에 냉담합니다. 교육부에서 이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자료를 보내 드릴테니까 학생들의 문제라는 점을 좀 고려해서 넓은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예, 알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장관님, 제가 조금 제 순서가 지난간 뒤에 왔는데요, 그 대신에 제가 질의한 것은 다 서면으로 해주시구요, 이것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黃祐呂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요, 대학입시 본고사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을 대학에다가 자율화 빨리 시켜 버려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금년에 397점, 398점 이상 되어야 좋은 대학 그러니까 서울대학이지요. 이런 데 그다음에 380점, 385점 이상 되어야 어지간한 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두 다 점수가 좋아가지고, 동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능도 등급제로 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학생부, 전부 다 성적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내신 잘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 학교마다 표창, 표창장 인플레가 나 버렸습니다. 다 포상되어 있습니다. 추천서 다 써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술 하나 가지고 면접하고 한다면 면접과외, 논술과외가 고액으로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논술과외, 면접과외를 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과외입니까? 온 국민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러면 대학에다 이제 자율권을 주어야 됩니다. 본고사를 보든지 말든지 대학이 알아서 너희들이 편할 대로 뽑아라 하고 주어야지 여기다 또 본고사 못 보게 하면 무얼로 학생을 어떻게 뽑습니까? 서울대학에 가서 물어 봤어요. “어떻게 내년에 뽑으려고 그러느냐?” 학생 한 사람에 대해서 30분씩 심층면접해서 뽑겠대요. 어떻게 심층면접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겠습니까? 심층면접으로 해서 교수마다 점수가 다

다르고 기준이 다른데…… 그리고 발표력이 없지만 실력은 좋은 애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억울하게 거기에서 또 가려내 버리고……

지금 오면서 제가 텔레비전을 들으니깐 소수점 두 자리 이하로 내려가야 뽑는다 이거예요. 뭘 대학입시가 소수점 00 두 자리 이하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에다 빨리 자율권을 주십시오. 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등교사가 수급이 차질이 나서 몇 년 동안 난리가 나서 교원정책이 완전히 망가뜨려졌다고 전국이 시끌시끌한데 우리 장관께서는 아직도 내년도에 초등교사 몇 명이 수급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계시는데 이거 빨리 누가 알려 드리세요. 저희는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하십니까? 지금 초등교사들 정년 단축한 것 때문에 다시 정년 환원이 올라와 있고 온통 교육계가 이걸로 들쭉서 났는데 이걸 장관께서는 아직도 내년 초등학교의 교사 수급에 대한 상황을 파악 못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이거 답변 지금 해주시고, 여기에서 한 명 내보내면 2.5명 쓴다고 그랬어요. 2.5명 쓴다고 그랬는데 돈이 지금 명퇴금으로 3조 얼마가 들어가 있고 교사들이 전부 다 돌아와 버렸습니다. 돌아와 버려가지고 정년단축한 효과는 하나도 없이 돈만 다 날라가고 연금이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교단도 지금 갈등투성이입니다. 명퇴한 사람들은 집에다 돈 몇 억씩 갖다 놓고 다시 돌아와 버리고 안간 사람들은 잡무만 지워져 있고, 이 정년단축한 효과는 온데간데 없고 연금만 고갈상태 되어 버리고 교육은 망쳐졌습니다. 이 초등교원들의 정년 환원으로 일어나는 비용과 수급계획 조사를 빨리 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여학생 수학·과학능력 함양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이거 돈 몇 억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개발하고 실시하는 건데요, 이것 다른 데 좀 삭감해 가지고라도 이것 좀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식정보시대에 과학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사회인데요, 여학생들이 그동안에 진로지도를 잘못해 가지고 전부 인문·사회분야로만 가고 여성인력이 지금 과학기술계통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여성들의 인력을 골고루

개발시키는 데 이걸 특별히 교육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선처를 하시겠습니까? 이거 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다 신청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남녀평등해야 된다고 이것을 다 삭감을 해 버리셨습니까? 과학기술인력이 우리나라에 여성이 전혀 모자라 가지고 그동안에 공과대학에 여성들 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취직을 할래야 여학생은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인문·사회계열을 나와서 여성이 지금 사회에서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쓰셔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부에서 알아서 좀 해주셔야지 이것을 다 삭감 100% 해버리셨는데 이것 조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教育部長官 李敦熙** 여학생 수학·과학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여성특위가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분야 프로그램은 금년에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내년도에 학술연구비를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 프로그램은 여성특위에서 금년도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후년도인 2002년도쯤 일반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보급 및 일반화에 필요한 2002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金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여성특위를 대시는데 여성특위가 돈이 18억 밖에 없어요. 18억 가지고 이런 사업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특위는 이것은 부도 아니고 위원회도 아니에요. 18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밀어버리십니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여기다가 돈 한 이삼억만 넣어줘도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시고 그러면 제가 나서서 다른 데의 예산 삭감하겠어요. 삭감하는 데 앞장을 서겠어요. 여기 전문대학 다양화·특성화 몇 백억 있는 것 다 깎아가지고 다 여기다 넣을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여학생 수학과 과학능력 함양을 위한 연구를 여성특위가 중심이 되어서 해왔기 때문에 여성특위와 함께 일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면 여기다가 더 지원해서 같이 하도록 해주세요. 여성정책담당

관실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教育部長官 李敦熙** 예, 여성특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예.

○**教育部長官 李敦熙** 그리고 아까 초등교사 전담 교사가 실제로 숫자상으로는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초등교과 전담교사가 한 1만명 되고 학급담임 교사가 11만명이 있기 때문에 수업하고 교원수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간제교사를 쓴다든가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정상화된 상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수업 운영은 그런 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장관님, 수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어떻게 장관님께서 하십니까? 지금 중등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초등으로 가가지고 지금 중등교사는 몇만명이 남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2개월씩 교육시켜서 초등에 빼고 있는데 초등의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구차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기간제교사라는 것이 다 그것 아닙니까? 중등교사 교과담당기간제가 중등교사가 지금 1년 반 사이에 1만명 이상 내려가 있습니다. 중등학교 교사가 초등에 가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디까지나 임시지, 워낙 급하니까. 그리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니 초등교육은 교육이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교육이 초등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느냐구요. 그리고 내년에 교사가 몇 명이 모자란지도 아직도 모르시고 파악을 못 하시고.

○**教育部長官 李敦熙** 소위 중·초교사라고 하는 것은 중등교원으로서 초등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숫자 그리고 초빙기간제 교사 이 숫자는 점차적으로 줄여가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수업을 할 교사가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金貞淑委員** 내년에 초등학교 교사가 모자라서 모집을 해봤더니 서울 경기도는 나아요. 그런데 지방으로는 400명 모집하는데 교사들이 40명도 안 와요. 그러면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제 없으면 나중에 방법이라는 것은 중등교사들 데려다가, 자격증은 있는데 취직 안 되고 있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초등교로 가서 제대로 초등교육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육정상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교사들의 명분도 세우고 사기도 높이고 하는 뜻에서 교원정년이 환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하셨어요. 전부 다 여론조사해 가지고 정책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결정했습니다? 전부 다 여론조사해 보지요. 여론조사해 가지고 정하지 무엇하러 국가기관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이렇게 국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여론조사를 돈을 얼마 들여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여론조사해 가지고 정년 연장하는 것 반대한다 하고 여론몰이 식으로 이렇게 발표하시지를 않나.

또 교육부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교원정책을 잘못 써서 이렇게 교단이 황폐화되었으면 뒤늦게라도 빨리 문제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교원들에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시고, 교원들이 신바람 나게 교단에 설 수 있는 명분을 세워 주세요. 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법을 고쳐서라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교육을 살리자 하는 취지에서 교육정년환원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금 이것은 이제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금방 결정이 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준비는 예산과 거기에 따른 수급 계획에 얼마큼 차질이 나겠는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인원수와 예산을 본 위원실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다 끝났습니까?

○**金元雄委員** 아닙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吳長燮委員**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하세요.

○**教育部長官 李敦熙** 金元雄 위원님……

○**吳長燮委員** 발언권 얻었어요. 장관님 좀 기다리세요.

吳長燮 위원이에요.

오늘 사회문화부문 질의인데요. 어제까지 경제분야의 부별심사를 하면서 자료요구 했는데 한 건도 안 왔어요. 그것 위원장님께서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 아주 한 페이지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제질의 마지막에 하고서 다시 보충을 또 못 했는데 그것 좀 촉구해 주시고요.

교육부장관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촌학자금지원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것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300억에서 170억으로 줄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도별로 신청자 수하고 신청자 금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년단축을 했는데 초·중·고…… 계약직으로 쓴 명단은 필요없고 초·중·고 수하고 지급하는 봉급액 그리고 정년단축 안 했을 경우에 지급되어야 되는 금액 관계를 지역별로 도 단위로 주시고요.

그리고 사립대학교 지원에 운영 시설 연구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립대학교별 운영 시설 연구 지원금액, 이것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집행한 부분과 2001년도 계획부분 두 가지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책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늘 얘기하는 것이 시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부분, 두 부처에서 지원한 금액, 또 정책적으로 어떤 지침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의 구분을, 현재 다른 부분과 복합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회의를 한다고 보면 11시까지 줄 수 있지요?

위원장님, 11시까지 자료를 주도록 말씀을……

○**教育部長官 李敦熙** 지역의 교육청과 우리가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봐야 하겠 습니다.

○**吳長燮委員**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그것을 집계 도 못하고 통제와 관리를 안 합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吳長燮委員** 11시 안으로 주십시오.

○**委員長 張在植** 제가 보기에 각 부처에서 자료를 상당히 신속하게 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주의하셔서 열심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金貞淑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수궁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열심히 듣고 너무 설명하기 복잡하면 양해를 구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득이랄까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에 합격을 못해요. 자기 형이 들어가서 보고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 동생을 너무 나무라지 마 십시오. 책을 보니까 줄을 칠 데에는 안 치고 줄을 안 칠 데에 다 쳤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못하지요.

밑에서 국장들이 답변을 써주면 줄을 치세요. 줄을 칠 데에 쳐서 요점만 답변을 해야 알아 듣는데, 줄을 안 칠 데에 쳐서 자꾸 설명을 하니깐 국회의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요점만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長燮委員**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중에 어제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할 때 鄭宇澤 위원께서 요구했고, 저에게 두 사람 중의 한 사람……

○**委員長 張在植** 제가 촉구해 드릴게요.

○**吳長燮委員**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張在植** 교육부장관 계속 답변하세요.

○**教育部長官 李敦熙** 金元雄 위원님께서 대학 비진학 일반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기술위탁 실시현황과 부작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 비진학 학생에게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해서 직업능력을 갖춘 견실한 직업인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기술계 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90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1만6,768명을 대상으로 기술계 학원에 4,125명, 공고 부설과정에 440명, 공고 직업훈련원 등에서 1만2,103명 등을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 소재의 학생이 서울 등 타 지역의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생활지도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담임교사의 현장지도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탁교육학생의 실태를 조사해서 미흡한 부분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적절하게 보완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金元雄委員** 장관님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중에 생활지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두 달여에 걸쳐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했더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 안하는 고교생에 대해서 기술위탁 교육을 시켰는데 그동안에 교육의 효과측정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教育部長官 李敦熙**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金元雄委員** 혹시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고교생들을 현장을 다니면서 확

인을 해보았습니다. 남녀 1,000명을 확인을 했는데 그 1,000명 중에서 58명의 여학생이 술집이나 다방 종업원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위탁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 동대문 청량리에 있는 동원미용학원, 금란정보처리학원, 금란요리학원에 경기도 일산에 있는 G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가 있는데 그들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에도 제가 1,000명 학생 중에서 정보기술처리학원이나 요리학원 같은데 다니라고 했더니 거기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중국집이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 1,000명 중에서 103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람, 인원, 학교를 사무실에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1,000명 중에서 남녀 합쳐서 161명, 무려 16%가 고등학교에서 기술위탁교육을 시켰다고 한 학생들이 지금 실제와는 다른 상태로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일산에 있는 학교에서 거리가 먼 서울 동대문 청량리에 있는 학원으로 보낸다든지 또 충청도에 있는 학생들을 가까이 안 보내고 서울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더니 충청도의 어느 학교는 기술교육을 시킨다고 서울로 보냈는데 숙식비 같은 것은 전혀 지원 없이 여학생들 와서 조금 다니다가 적응을 못하면 다른 데로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유형별로 조사를 해 보았는데 1,000명당 400명 정도만 정규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경우에는 한 학교에서 오류 명 정도가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친한 어떻게 보면 같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다니면서 집단으로 빠져나가고 조직폭력배 같은 데도 가입하고 경기도에 있는 L고등학교에는 다섯 명의 학생들을 서울에 있는 한국요리학원에 보냈는데 이들이 뽕뽕 뭉쳐 가지고 실질적인 조직폭력배와 힘겨루기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은 사범당국의 신세를 지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래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학교에서 전담선생님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저희 사무실의 직원이 나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본인이나 부모의 희망에 따라 학원에 나가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희망해서 나가는 학생들은 45%이고 55%는 그냥 단순히 학업에 열의가 없으니까 너 이런 것 해라 하니까 자기 희망과 관계없이 보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또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해도 되는지 또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특히 본인의 적성과 희망이 얼마나 존중되면서 실시되고 있는지 또 통학권과, 본인의 생활권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시·도로 보내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李敦熙** 불원간에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평가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교육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8개 부처 중에서 1개 부처가 끝났는데 8개 부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111개입니다. 지금 대략 111건 중에서 19건이 겨우 대답이 끝나고 92건이 남았는데 오늘 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어느 위원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 집에 가니까 새벽 3시 조금 넘었는데 잠을 4시 반에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같으면 좋습니다. 지금 뭐 십 이삼 일 이렇게 밤을 새우니까 처음에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참 일했다고 흐뭇한 생각을 가졌는데 사람인 이상 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간단간단히 해주시고 또 구체적인 것으로 깊이 파고 들어갈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장관이나 담당국장을 방으로 부르셔서 가지고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책에 줄친 것만 물어보시고 줄 안 친 데는 좀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좀 죄송한데요, 교육부장관님께 이것 서면질의 하나만 하고 서면으로 답변받아도 될

까요?

○委員長 張在植 그러세요.

○金貞淑委員 국제학대학원 지원과 관련해서 장관께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내일이라도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柳三男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敵我 간에 전쟁을 할 때도 전쟁법이 있습니다. 서로가 지켜야 할 법이 있다고요. 포로교환이라든가 노약자에 대한 살상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으로 통하는 법이 있습니다. 스포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룰이 있고 게임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토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은 15분 또 질의응답은 10분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보완질의에 대해서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9시10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시까지 딱 45분간 黃祐呂 위원하고, 金貞淑 위원하고 金元雄 위원 세 분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됩니까? 낭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委員長 張在植 알았습니다.

○柳三男委員 그래서 보충추가질의에 대한 시간도 확실히 정해 가지고 마이크 조정하고 있는 아가씨, 시간 되면 딱 끄고 이런 규칙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룰이 필요합니다.

○金貞淑委員 시간낭비라니요?

○委員長 張在植 낭비가 아니라…… 낭비라고 안 했고……

○金貞淑委員 어떻게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밤에 黃祐呂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委員長 張在植 취소했어요. 낭비라는 말 안 했어요.

○金貞淑委員 그것이 그냥 보통 문제입니까?

너무 국민 전체가 심각한 문제니까 언급한 것입니다.

○委員長 張在植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金貞淑 위원님이 오늘 교육부에 주신 질의는 저도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柳三男 위원께서 낭비라는 소리는 또 낭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관

광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洪信 위원님, 金貞淑 위원님, 鄭宇澤 위원님, 李在昌 위원님께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중 5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민자유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함께 유교문화권개발계획의 민자유치대책과 지방비 확보대책 등에 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회계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이면서 국고투입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관련 사업은 모두 5개 사업입니다. 이중에 金洪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UN기념공원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부정적인 결론이 나와서 정부 계획에서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산 동삼동 해양문화원 조성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김해·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에는 신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대상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OC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19일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결정한대로 건설교통부에서 국도승격지원문제를 추진키로 했으며 건설교통부는 현재 국도승격 노선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동 SOC부분이 여기에 반영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경북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지방비의 원활한 투입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대상사업에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시·도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확보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예산이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하는 등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중 문화관광부의 예산과 문화재청의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대상지역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을 위한 숙박·휴양거점 조성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재청은 이에 반해서 유교 및 관련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으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金洪信 위원님, 金貞淑 위원님……

○**金貞淑委員** 장관님,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남해안관광벨트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났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해당사업 5개 중에 3개가 끝났습니다.

○**金貞淑委員**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요? 다 안 끝났는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법 위반 아닙니까?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2항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맞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2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면 그것은 장관께서 그대로 하신다니 믿어보겠는데 총 사업비의 70.5%가 민자이고 지방비가 16.4%, 국고 13.1%로 나타나고 있는데 총 사업비의 70.5%인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 부분에 대한 염려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민자유치를 선도하는 공공부문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상 지원사항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면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도 비슷한데 여기서도 전체 사업비의 24.5%를 지방비로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지구 11개 시·군·구가 다 들어오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들이 많아요. 영주시는 23%밖에 안 되고 영양군은 9.2% 이런 데에서도 지방비부담이 계획처럼 쉽게 되겠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거기는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우리 부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민자를 계획된 대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투자가 우선되어서 민간투자가 공공부문투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유치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

기 위해서는 사업 초반부에 국고투입이 조금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국고만 투입해 놓고 민자유치도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지방비부담 부분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같이 중복투자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부하고 양 쪽에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이 우습고 안 될 말이고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안동은 사업시행에서 아무런 제한을 안 받고 그냥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안동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안동은 해당이 안 돼요. 이런 프로그램은 문화재청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양 쪽에서 중복투자를 하고 있는데 안동은 여기에 구매를 안 받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안동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라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예.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존경하는 金洪信 위원님, 金容鈞 위원님, 金貞淑 위원님, 鄭宇澤 위원님께서 천년의 문에 대한 많은 우려를 주셨습니다.

천년의 문에 대해서 워낙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셔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천년의 문은 작년 1999년 초에 새천년과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대로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대규모 평화의 탑을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 문화관광부에서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국가상징조형물을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천년위원회에서는 천년의 문이라고 해서 10년마다 하나씩 문을 세워서 100년 동안 100개의 문을 연이어 지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조형물을 세우는 안이 서울시와 문화관광부와 새천년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세 추진체가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을 하나로 줄이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결론을 낸 것이 바로 지금의 천년의 문입니다.

이 천년의 문은 99년5월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가졌고 99년6월에는 대국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99년10월부터 11월15일까지 국민을 대상으

로 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67점의 작품을 접수받아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지금의 천년의 문의 안을 선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350억원에서 550억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200m 높이의 건조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높이를 150m로 줄일 경우에는 전체 예산규모가 350억원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쨌든 국비에서는 100억원만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사업과 민자유치로서 해결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전망대의 식당과 곤돌라 운영권 및 광고영업권 등의 사업에 국내외의 많은 기업들이 깊은 관심을 표명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金洪信委員** 지금 장관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양식을 제가 첫 당선작이라고 그러나요, 선택된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우리의 국가상징조형물로 가치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첫째 가졌고 둘째는 우리의 전통문양이나 건축양식을 따라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냥 원형고리 같은 것입니다.

○**金洪信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대개 보면 우리나라가 동양최대, 세계최고 이런 건축양식이나 건설양식을 갖고 있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인양 표출되는 경우가 그동안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그것이 자존심을 살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급성을 나타낸 하나의 구조물로 등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장관께서도 그 전에 글을 쓰실 때 그런 지적 같은 것을 많이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金洪信委員**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350억에서 550억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서 결국 550억원 이상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발주공사의 행태로 보면 아주 당연합니다.

장관께서 이것을 유념하셔서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실업난 구

제하고 공공근로사업 늘리고 해서 그런 쪽이 낫지도 대체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나타낼 우리의 고귀한 문화유산이 많은데 그런 쪽을 상징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그동안 쪽 하셨지만 국민들에게 여론 조사를 공개적으로 예산액을 나타내고 한번 해 보시면 찬성할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으로 재고를 요하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예산낭비라고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재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하여간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다 새겨듣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장관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천년의 문을 지으면 몇 년에 완성되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2002년 월드컵 시작되기 직전에 외형이 완성이 됩니다.

○**金貞淑委員** 그런데 예산안 개요를 보면 2003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외형이 완성되고 내부까지……

○**金貞淑委員** 이것이 돈도 확정이 안 되었다, 몇 m로 할지도 아직 모르겠다, 설계가 변경될지도 모른다 또 2003년인지 2002년인지, 처음에 조사할 때는 더 길었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처음에 金貞淑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던 그 계획은, 2010년에 되는 것은 이 이전의 계획입니다.

○**金貞淑委員** 그래서 들쭉날쭉 아직도 마스터플랜이 안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보나마나 졸속시행이고 부실공사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때나 혹시 쓸려나 했더니 그것도 외형만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도 완성이 안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나라경제도 좋지 않고, 문을 우리나라 건축양식으로 우리 문화를 자랑하는 어떤 심벌리стик, 상징적인 그런 모양도 아닌 것 같고 한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여러 가지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金洪信 위원님과 金貞淑 위원님 말씀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모양새가 아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공모해서 전문가들이 선정한 당

선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장관 마음대로 어떤 모양새를 지정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위원회는 우리나라 건축계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말씀들은 충분히 새겨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 鄭宇澤 위원님, 金貞淑 위원님께서 남도국악원 건립과 관련하여 국립국악원과 남원민속국악원과의 차별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사업비 보류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남도국악원 건립사업은 진도아리랑, 셋김굿 등이 지역 진도에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 보존전승과 국악의 생활화·대중화를 위한 국악연수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국립국악원과 남도국악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악 등 민족음악의 체계적 보존전승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국립국악원으로 되어 있고 판소리 등의 서민 중심의 민속악 보존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민속국악원입니다. 서로가 설립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두 원이 전라도 지역에 위치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 호남지역이 명창 명인들의 고향이고 국악의 또 본고장으로 토속민요를 비롯한 무형의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오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에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남도국악원이 당초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께서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98년 공기업경영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운영권자를 경쟁입찰로 결정하면서 이 광고공사의 재원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2001년도 한국 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대비한 관광산업지원을 위해서 약 7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당국과 협의했습니다마는 예산협약과정에서 금년보다도 적은 600억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 중에 자체 확보가 가능한 면세점 수익 260

억원을 제외한 33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이 330억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받은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貞淑委員** 장관님, 질의 하나 제가 드릴게요.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국가산업 중에서 서열이 지금 몇 번째나 가고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면 또 다른 장관님들이 불쾌해 하실는지 모르니까 다른 사업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문화관광부가 법적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8개 분야입니다.

○**金貞淑委員** 관광산업이 지금 우리나라 산업들 중에서 몇 번째 서열이나 올라와 있느냐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서열 매기기는 뭐하고 우리 부가 맡고 있는 8개 분야 중에서 문화관광부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문화에 이어서 관광을 붙일 만큼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관광산업으로 지금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성적이 워낙 나빠서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공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 비슷하게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따라가도, 관광이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이예요.

그런데 관광공사는 지금까지 무엇하는 것입니까? 330억이나 1년에 운영비를 대주고 하던데요. 계속해서 관광공사직원들, 우리가 그렇게 생산성도 없는 그 기관에다 돈만 들어부어야 되겠습니까? 관광공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관광산업 유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국 방문의 해라고 그래서 외국인들 유치를 해오는 프로그램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무슨 관광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작업을 합니까? 관광공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느낄 때에는 듀티프리숍 운영해 가지고 장사하고 술 같은 것 갖다 팔고 그것밖에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했는지 몰라도 관광산업을 일으키려면 지금 관광공사 갖고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획기적으로 국가에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그러시던데요. 관광부를 따로 독

립을 시키든지 관광청을 만들든지 해서 우리나라…… 관광이 아주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관광에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 외자유치도, 외화수입도 할 수 있어요. 국가 이미지도 제고되고 그래서 이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정책을 만들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알겠습니다.

저도 金貞淑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容鈞委員 관광공사 관련해서 한마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330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국고지원금 중에서 경상운영비 56억은 삭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난번에 체육진흥공단 산하기관의 구조조정 실패, 경영혁신 나태행위 등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들이 대개 구조조정을 하면서 고용직이라든지 제일 하위에서 말단으로 뛰면서 정말 실무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잘라내고 공짜로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전부 살려 놨어요.

그 사람들 월급 계산해 보세요. 말단 직원보다 3배, 4배씩 됩니다. 그런 사람 한두 명 잘라내고 실무자 네댓 명 살려 놓았으면 훨씬 일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 지원비에서도 56억 정도가 삭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지금 경상비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작년 대비 20억원 정도가 깎인 규모의 예산입니다. 물론 56억을 여기서 더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는 이미 상당히 깎인 액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金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도 더 신경을 써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金容鈞 위원님께서서는 용산 새 박물관 소화약제의 안전성 검증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박물관 소화약제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첫

째 사항은 신속한 진화가 가능한가이고 다음으로 유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인체에도 무해한가 하는 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론은 현존하는 소화약제 중 유물이나 인체에 무해한 가장 우수한 약제로 알려져 있고 선진 외국의 박물관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용산 국립박물관건립위원회의 소방전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기술검토 결과도 하론이 가장 우수한 약제인 것으로 인정을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金貞淑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축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570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축제에 대한 지원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안면도 꽃박람회사업 지원은 농림부와 중복 지원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대부분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관광목적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드웨어적 개발인 반면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은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 가운데 관광상품성이 높은 축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벤트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사업이므로 지원이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으로 배치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앞으로 관광축제에 대한 지원이 신중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함께 지적해 주신 2002년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림부는 전시장 조성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부는 영상관 건립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상호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또 金貞淑 위원님께서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의 융자사업과 중복되는 일반회계 사업이 많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융자사업은 문화상품 제작유통업체 등에 사업자금을 일정기간 지원해 주고 상환받는 사업으로 영세한 문화산업체들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업계의 대표성이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정부가 산업의 기반 조성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부는 물론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결정한 사업이라는 점도 말씀 올립니다.

金貞淑 위원님께서서는 또한 지방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이 전시성 사업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최근에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게임과 영상, 애니메이션, 음악산업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에 산업거점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화산업의 발전가능성이 있고 관련산업체의 활동이 활발한 주요거점도시에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문화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문화산업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00년도에는 대전, 부산, 광주 3개소에 설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님, 辛基南 위원님께서 실직언론인 지원사업이 노동부 사업인데 미디어교육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부가 이를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지적을 주셨습니다.

金貞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직언론인 지원사업은 2001년 예산편성 상에는 한국미디어교육센터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7, 98년도 IMF관리체제 아래에서 언론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신문·방송계 언론인들에 대한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개별사업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에 99년과 2000년 각각 20억원씩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왜 노동부에서 관장하지 않고 우리 부가 담당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업은 언론재단과 KBS,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공동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이 우리 부의 산하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부가 담당하

고 있다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貞淑委員 장관님, 이것이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 개요를 봤더니 이 사업이 문화산업 육성 가운데서도 출판산업 육성분야로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째서 이것이 문화산업 육성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출판산업 육성부분입니까? 실직언론인 지원사업인데 왜 이렇게 이름이 이상하게 되며, 그러면 작년에도 20억원을 배정해서 썼는데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이것을 알려주시고 또 동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셨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의 의혹은 왜 이런 사업을 문화관광부에서 할까, 이것이야말로 전시성이고 과시성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이것이 출판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예산편성 기술상 우리 부의 문화산업국 산하의 출판신문과에서 언론행정 부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을 물어보셨는데 실적은 올해의 경우에 구직에 680명의 직장을 찾아줄 수 있었고……

○金貞淑委員 문화관광부에서 직장을 찾아주었어요? 직장 알선을 하셨습니까? 돈 20억원을 직장 알선하시기 위해서 쓰셨어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680명이 구직등록을 했는데 그중에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20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창업교육이 1,250명, 미디어교육 강좌로 여러 군데 강사로 파견하는 사업에는 2,0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장관님, 문화관광부가 아마 부처 중에서 제일 바쁘실 것입니다. 하는 일도 많고 맡은 분야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여기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하시려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런 것은 노동부로 보내세요. 이것은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삭감은 안 해 주시면 좋겠고요.

○金貞淑委員 이것이 목적이 의심스러운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합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이것이 올해 20억을 신청했는데 이미 10억이 깎여서 10억만 남았습니다. 그것이라도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洛淵 위원님께서 월드컵 본선참가국이 우리나라에 보다 많이 연습경기장 및 준비캠프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월드컵연습경

가장 및 준비캠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준비캠프는 참가팀이 대회 5일에서 20일 이전에 사전훈련을 하는 장소로 본선참가팀이 준비캠프를 설치할 경우에 해당 도시는 물론 개최국가의 홍보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관광진흥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식연습경기장은 대회 5일전부터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와 월드컵조직위원회는 2001년부터 우선 35곳의 연습경기장 및 준비캠프를 확보하고 개최도시와 함께 가급적 많은 참가국들의 준비캠프를 우리나라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식연습경기장 및 준비캠프에 천연잔디구장, 조명시설 등 FIFA가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1개 경기장 당 약 7억원이 소요되지만 경기장 건설 등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는 35개소에 약 2억원씩 총 70억원의 국고지원예산을 요청했으나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모두 깎여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반면에 일본은 준비캠프에 상당한 투자를 이미 완료했다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가 필승을 거둘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李洛淵 위원님께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전략적 방안……

○李洛淵委員 잠깐만요.

노벨상 가기 전에요. 장관님께 아주 사소한 부탁을 드릴게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李洛淵委員 한국측 월드컵조직위원회에는 일본측 직원이 한 사람 와서 상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측 월드컵조직위원회에는 한국측의 상주직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문화원의 직원 한 사람이 그것을 맡고 있는데 주일문화원의 직원이 몇 명이나 그러면 원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 중의 한 명이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아주 일도 벅찰 뿐만 아니라 더욱 더 큰 문제는 일본측이 볼 적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관심이 없다고 보거나 준비를 안하고 있다고 보거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볼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가 대단히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상근직원 하나 빨리 보내주시는 것이 상호주의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 부분은 곧 조치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李洛淵 위원님께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해서는 우리 문학 번역으로 해외 소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에서는 96년에 한국문학번역금고를 설립해서 금년말까지 7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는 한편, 특히 문예진흥원이 70년대 이후 추진해 오던 번역업무를 한국문학번역금고로 발전적으로 일원화해서 한국문학번역원을 설치하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이 부분에 대한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추가로 10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李洛淵 위원님, 李在昌 위원님께서 국악FM방송 개국을 위한 소요경비 5억원과 초·중·고생을 위한 국악강사풀체 추가소요예산 20억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악전문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악FM방송을 설립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국하고자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판소리와 민요 등 국악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국악강사풀체를 운영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악FM방송을 위한 전문 제작진 및 기술인력 등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또한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상비, 송신소 임대료 등 5억원이 운영비로 필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중에 삭감되었고 그러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다시 반영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5억원 때문에 20여억원이 기 투자된 국악FM 방송이 실제로 작동하지 못할 때에는 참으로 더없이 안타까운, 또 기 투자한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장관으로서 말씀

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악강사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2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李在昌委員 장관님, 국악FM방송 5억 관련 말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李在昌委員 내년에 남도국악원도 또 선처하시는 예산 있지요, 21억?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李在昌委員 그래서 만약 이것이 하나의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조정을 해서라도 다 설치된 국악FM방송은 우선 운영하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在昌委員 알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다음은 존경하는 辛基南 위원님께서 주일한국문화원의 신규청사 건립 필요성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委員長 張在植 장관, 서면으로 하세요.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辛基南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예산 관련질의도 주셨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후 위원님의 세계 도자기 엑스포 관련 질의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在昌 위원님께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최종적인 타당성 조사 한번 더 필요하다는 국회 상임위와 또 정부 유관부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타당성 조사에 들어 갔습니다. 이 조사결과가 2001년 9월중에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李在昌委員 장관님, 태권도공원 만든다고 해서 전국 21개 자치단체가 근 1년 넘게 각종 로비도 하고 광고제작해서 자기 지역이 최적지라고 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놓고 막상 주무부처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지금 사실상 결정 못한 상태에서 KDI의 조사 보고에도 이것은 경제성이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따라서 명목을 잇기 위해서 내년에 6억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빨리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벌써 아마 문화관광부 자체로도 여러 번 평가했을 것입니다.

이런 100만평 규모로 2000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이것에 대한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빨리 관계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예,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在昌 위원님께서도 또한 축구전용 트레이닝센터 건립예산 확보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짧게 답변 올리면 소요 사업비가 총 75억원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이 중 국고에서 5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대한축구협회와 월드컵조직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협의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신청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50억원으로 증액되어서 지금 예결위원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이웃 일본과 중국에 비교해 볼 때 열악한 축구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여건 개선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팀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센터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다음으로 李在昌 위원님께서 게임산업단지 조성 예산 70억원을 증액시키자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산 게임수출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약 15만평 규모의 게임산업단지를 수도권 지역에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게임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게임산업 육성의 시급성을 인정해서 2001년 예산에 게임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70억원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동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 편성시켜 주신다면 게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01년도에 착공해서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산업의 국

제경쟁력 강화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李在昌委員 장관님, 어디 후보지나 계획에 대한 것을 문화관광부 자체에서도 좀 가지고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지금 타당성 조사결과 후보지가 한 세 곳 정도로 압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昌委員 민간에게만 그냥 맡겨져 있는 것입니까? 정부 계획으로서도 게임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정부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李在昌委員 대개 기본조사를 한 결과가 있겠네요? 어떤 요건을 갖춘 지역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요즘에 바로 상당히 또 관계되는 몇몇 지역이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在昌委員 알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李在昌 위원님께서 남도국악원 건립비용 내년 예산을 일부 잘라서 국악FM방송 운영비에 쓰라고 말씀 주셨던 것을 제가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합니다. 제 말씀은 한 쪽을 잘라서 FM방송을 가능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FM방송은 5억만 있으면 운영이 되니까 별도로 좀 지원을 해주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李在昌 위원님께서 한국방문의 해 사업이 필요성 있는 사업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바로 지난 주에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앞서서 외래관광객을 1년에 500만 명 유치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래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함으로써 외화 획득은 물론 우리 문화가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정부는 99년3월에 한국방문의해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을 구성했고 관계부처, 지자체, 관광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일반 공모를 통해 25개의 이벤

트와 관광패키지상품, 관광코스 등을 선정했고 중앙부처, 지자체, 관광업계 등과 함께 한국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올 한해 동안 예비행사 개최, 해외홍보 마케팅 등 차질없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580만명의 외래관광객 유치와 73억달러의 관광수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내겠다 하는 저희들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李在昌委員 장관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물론 그 취지는 본 위원도 참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방문의 해를 설정하기 전까지 국민들이 여기에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국민 각자가 한국방문의 해를 설정한 취지에 맞게 각종 우리 기초질서 문제에서부터 또 국민들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매너에 대한 문제라든지 해서 정말 한국을 찾고 싶은 나라로 이렇게 만드는 국민운동적인 성격이 뒷받침될 때 정부의 각종 이벤트계획이라든지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觀光部長官 金한길 알겠습니다. 잘 새겨들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부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張在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제 저녁 늦게 했다고 해서 그런지 아무튼 아직 정부측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양당 간사께서 합의하심에 따라서 오늘은 이것으로 그치고 오늘 듣지 못한 답변은 내일 답변시간에 함께 듣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특히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여러 장관님들과 관계 직원들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산회)

○出席委員(46人)

- | | | | |
|-------|-------|-------|-------|
| 高 珍 富 | 權 琪 述 | 權 五 乙 | 金 景 梓 |
| 金 德 圭 | 金 文 洙 | 金 聖 順 | 金 榮 煥 |
| 金 容 甲 | 金 容 鈞 | 金 龍 學 | 金 元 雄 |
| 金 一 潤 | 金 貞 淑 | 金 學 元 | 金 洪 信 |

羅午淵 閔鳳基 朴世煥 朴鍾根
 裴基善 孫泰仁 宋錫贊 宋永吉
 申溪輪 辛基南 申榮國 申鉉泰
 沈揆喆 吳長燮 柳三男 柳在珪
 尹榮卓 李康斗 李根鎮 李洛淵
 李相洙 李在昌 李漢久 張在植
 丁世均 鄭宇澤 鄭哲基 鄭亨根
 咸承熙 黃祐呂

차 장
 기획예산처예산실장
 ○金融監督委員會參席者
 위 원 장
 ○放送委員會參席者
 위 원 장

崔吉大
 朴奉欽
 李瑾榮
 金政起

○出張委員(1人)

宋榮珍

○請暇委員(2人)

李海瓚 李浩雄

○委員아닌出席議員(6人)

郭治榮 宋光浩 沈在哲 元裕哲
 李熙圭 趙富英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金光琳
 전문위원 張基泰
 입법심의회관 李鍾澤

○出席國務委員

행정자치부장관 崔仁基
 교육부장관 李敦熙
 문화관광부장관 金한길
 보건복지부장관 崔善政
 환경부장관 金明子
 노동부장관 金浩鎮
 해양수산부장관 盧武鉉

○出席政府委員

교육부차관 金相權
 보건복지부차관 張錫準
 환경부차관 鄭東洙
 노동부차관 金相男
 건설교통부차관 姜吉夫
 국정홍보처
 처 장 吳弘根
 차 장 李圭錫
 경찰청
 청 장 李茂永
 차 장 崔圻文
 문화재청장 徐廷培
 중소기업청
 청 장 韓峻皓
 차 장 辛東午
 철도청
 청 장 鄭鍾煥